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2권 (제13회 ~ 제24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3회 — 이각과 곽사가 크게 맞붙고, 양봉과 동승이 두 번이나 황제를 구하다	6
제14회 — 조맹덕이 거처를 옮겨 허도로 가고, 여봉선이 밤을 틔타 서군을 습격하다	28
제15회 — 태사자가 소패왕과 한창 싸우고, 손백부가 엄백호와 크게 싸우다	52
제16회 — 여봉선이 원문에서 극을 쏘고, 조맹덕이 육수에서 군사를 패하다	77
제17회 — 원공로가 칠군을 크게 일으키고, 조맹덕이 세 장수와 합류하다	101
제18회 — 가문화가 적의 승패를 예측하고, 하후돈이 화살을 뽑아 눈알을 삼키다	119
제19회 — 하비성에서 조조가 군사를 몰아붙이고, 백문루에서 여포가 목숨을 잃다	134
제20회 — 조아만이 허전을 에워싸고, 동국구가 내각에서 조서를 받다	158
제21회 — 조조가 술을 끓이며 영웅을 논하고, 관공이 성을 속여 차주를 베다	175
제22회 — 원소와 조조가 각기 군사를 일으키고, 관우와 장비가 왕류 두 장수를 함께 사로잡다	193

제23회 — 예정평은 옷을 벗어 적을 꾸짖고, 길태의는 독을 썼다가 형벌을 받다	214
제24회 — 국적(나라의 도적)이 흉악한 짓을 저질러 귀비가 살해되고, 황숙이 패하여 원소에게 도망치다.....	236

제13회 — 이각과 곽사가 크게 맞붙고, 양봉과 동승이 두 번이나 황제를 구하다

李催郭汜大交兵 楊奉董承雙救駕

한편, 조조가 정도에서 여포를 크게 격파하자, 여포는 해빈으로 가서 패잔병과 말들을 모았다. 부하 장수들도 모두 모여들어 다시 한번 조조와 결전을 벌이려 했다. 이때 진궁이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세가 너무 강하니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우선 몸을 의탁할 곳을 먼저 찾아낸 뒤에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포가 물었다. "원소에게 다시 투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궁이 대답했다. "먼저 사람을 기주로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포는 진궁의 말대로 했다.

한편, 기주에 있던 원소는 조조와 여포가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책사인 심배가 나아가 말했다. "여포는 굶주린 호랑이나 승냥이 같은 자입니다. 만약 저자가 연주를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기주까지 노릴 것입니다. 차라리 조조를 도와 여포를 공격해야 근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원소는 즉시 안량을 보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조조를 돕게 했다. 그런데 여포의 첩자가 이 소식을 알아내어 급히 보고했다. 여포는 크게 놀라 진궁과 상의했다. 진궁이 말했다. "유비가 새로 서주를 다스린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서 몸을 의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포는 그 말을 따라 결국 서주로 투항하러 왔다.

유비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가 말했다. "여포는 당대에 손꼽히는 용맹한 장수이니, 나가서 맞이해야겠소." 그러자 미축이 말했다. "여포는 호랑이나 이리 같은 흉악한 자이니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받아들였다가는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지난번 여포가 연주를 습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지역의 화를 면할 수 있었겠소? 지금 그가 궁지에 몰려 나에게 의탁하려 하는데, 어찌 판단음을 품었겠소?" 이때 장비가 말했다. "형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탈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합니다."

유비가 무리를 이끌고 성 밖으로 삼십 리쯤 나가 여포를 맞이하고,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성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주아(州衙)의 관청에 이르러 예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여포가 말했다.

"소인은 왕 사도와 함께 동탁을 죽일 계책을 꾸민 뒤, 다시 이각·곽사의 난을 만나 관동을 떠돌았으나 여러 제후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래 조조 역적이 불인하여 서주를 침범했을 때 사군(유비)께서 힘껏 도움을 구하셨고, 저 여포는 그 틈에 연주를 습격하여 조조의 세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간계에 빠져 군사를 잃고 장수를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군께 의탁하여 함께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니, 사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도 사군(도겸)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 서주를 다스릴 사람이 없기에, 제가 임시로 주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군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러고는 패인(牌印)을 여포에게 건넸다. 여포가 이를 받으려는데, 유비의 뒤에 선 관우와 장비의 얼굴에 분노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포는 짐짓 웃으며 말했다.

"여포 같은 한낱 용맹한 무부가 어찌 주목(州牧)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비가 다시 양보의 뜻을 비쳤다. 그러자 진궁이 나서서 말했다.

"강한 손님이 주인을 누르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군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유비가 손을 멈추었다. 곧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여포가 머물 집을 마련해 안착하게 했다.

다음 날, 여포가 유비를 다시 자리로 초대하자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그 자리에 나갔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여포가 유비를 후당으로 모시자 관우와 장비도 뒤따라 들어갔다. 여포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불러 유비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유비가 거듭 사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자 여포가 말했다.

"현제, 너무 사양하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비가 눈을 부릅뜨며 크게 꾸짖었다.

"우리 형님은 금지옥엽 같은 귀한 분이신데, 네놈이 대체 누구길래 감히 우리 형님을 현제라고 부르느냐! 이리 나와라! 내가 너와 삼백 합을 겨뤄주마!"

유비가 급히 장비를 말렸고, 관우가 장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유비는 여포에게 말을 건네며 달랬다.

"제 아우가 술기운에 망언을 했으니, 부디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포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잠시 후 술자리가 끝나자 여포가 유비를 문밖까지 배웅했다. 그때 장비가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달려오며 크게 소리쳤다.

"여포! 나와 삼백 합을 겨루자!"

유비가 급히 관우에게 장비를 말리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여포가 유비를 찾아와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사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셨으나, 아우님들이 저를 용납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만 다른 곳으로 가서 의탁하겠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장군께서 가신다면 제 죄가 너무나 큼니다. 제 아우가 무례를 범했으니, 조만간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인근의 소패는 예전에 제가(유비가) 군사를 주둔시키던 곳입니다. 장군께서 그곳이 좁고 초라하다 하여 꺼리지 않으신다면, 잠시 말을 쉬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량과 군수 물자는 제가 책임지고 대드리겠습니다." 여포는 유

비에게 감사를 표한 뒤,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소패로 가서 몸을 의탁했다. 유비는 돌아가 장비가 무례를 범한 일을 두고 그를 나무랐다.

한편, 조조는 산둥 지역을 평정한 뒤 조정에 표문을 올려 보고하여 건덕장군과 비정후에 봉해졌다. 그 무렵 이각은 스스로 대사마가 되고 곽사는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거리낌 없이 권력을 휘둘렀으나, 조정에는 감히 이를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태위 양표와 대사농 주준이 헌제에게 몰래 아뢰었다. "지금 조조는 이십여 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책사와 무장도 수십 명이나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직을 보필하여 간당을 제거할 수 있다면 천하의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헌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짐이 저 두 역적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 왔으니, 그들을 처단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큰 다행이겠소!" 양표가 아뢰었다. "신에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두 역적이 서로 싸워 자멸하게 만든 뒤, 조조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가 그들을 죽이고 역적 무리를 소탕하여 조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헌제가 물었다. "그 계책을 어떻게 내려 하오?" 양표가 대답했다. "듣기로 곽사의 아내가 질투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 곽사의 아내에게 이간계를 쓰게 한다면, 두 역적은 스스로 서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헌제는 비밀스러운 조서를 써서 양표에게 건넸다. 양표는 즉시 부인을 몰래 보내 다른 용건이 있는 것처럼 곽사의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러고는 곽사의 아내를 만난 틈을 타 이렇게 말했다. "듣자하니 곽 장군과 이각의 부인이 정을 통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매우 깊다고 합니다.

만약 이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니, 부인께서는 그들과의 왕래를 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곽사의 아내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가 며칠째 밤마다 들어오지 않는다 했더니, 세상에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군요! 부인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반드시 조심하겠습니다."

양표의 부인이 돌아가자, 곽사의 아내는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작별을 고했다.

며칠 뒤, 곽사가 다시 이각의 집을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다. 곽사의 아내가 말했다. "이각은 성격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물며 지금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술에 독을 탔다면 저는 어찌합니까?" 곽사는 아내의 거듭된 만류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이각이 사람을 보내 술상과 안주를 가져왔다. 곽사의 아내는 몰래 술에 독을 탄 뒤 상을 올렸다. 곽사가 막 음식을 먹으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음식이 밖에서 온 것인데 어찌 바로 드시려 합니까?" 그러고는 먼저 개에게 먹여 보았더니 개가 그 자리에 서 죽고 말았다. 이 일을 보고 곽사는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조정의 회의가 끝나자, 이각은 곽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술잔을 나누며 연회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잔치가 끝나자 곽사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그러자 곽사의 아내가 "분명 독이 든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외치며 급히 변을 입에 부어 억지로 토하게 만들고서야 통증이 가라앉았다.

이에 격분한 곽사가 말했다. "내가 이각과 함께 큰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내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독살당하고 말 것이다." 곽사는 곧바로 자기 부하들을 비밀리에 정비하여 이각을 공격하려 했다.

이 소식은 이각에게 미리 전달되었다. 이각 역시 크게 화를 내며 "곽사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라고 외치고는, 곧바로 자기 군사를 이끌고 곽사를 죽이러 나섰다. 성 아래에서는 두 군대가 뒤엉켜 혼전이 벌어졌고, 그 혼란을 틈타 병사들이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각의 조카 이섬(李暹)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다. 그는 수레 두 대를 준비하여, 한 대에는 천자(헌제)를, 다른 한 대에는 복황후를 태우고, 가후와 좌령에게 그 수레를 감시하며 호송하게 했다. 나머지 궁인과 내시들은 모두 걸어서 이동하게 했다. 이들이 후재문을 통해 밀려 나갈 때 마침 곽사의 군대가 도착했다. 화살을 마구 쏘아 대는 바람에 죽은 궁인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각이 뒤이어 몰아치며 살육하자 곽사의 병사들이 물러났고, 헌제와 복후를 태운 수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을 빠져나왔으나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결국 이각의 진영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한편 곽사는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궁녀와 후궁들을 모조리 약탈해 진영으로 데려가고, 궁전에 불을 질렀다. 다음 날, 곽사는 이각이 황제를 납치했음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이각의 진영 앞으로 와 격렬히 싸웠다. 황제와 황후는 모두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두고 시를 지어 탄식하였다.

광무제의 중흥으로 한나라가 번성하여 황제가 대를 이어 열두 명에 이르렀건만, 환제·영제 때에 도가 사라지니 종묘사직이 무너졌도다. 무모한 하진이 삼공에 올라 사직의 쥐를 없애려다 간웅을 불러들이니, 승냥이와 수달을 몰아내려다 호랑이와 이리를 들인 격이라, 서량의 역적들이 음란하고 흉악한 짓을 저질렀도다. 왕윤이 충심으로 미인계를 의탁하여 동탁과 여포를 갈라 싸우게 하였고, 우두머리를 멸하니 천하가 평안할 듯했으나 이각·곽사가 다시 원한을 품을 줄 누가 알았으랴. 온 나라가 가시밭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랴, 육궁의 여인들은 기근과 전란에 시름하는구나. 인심이 떠나고 천명도 다하니, 영웅들이 각지에 할거하며 강산을 나누어 갖는도다. 후세의 왕들은 이를 거울삼아 두려워하고 삼가야 하며, 금구(나라)를 함부로 이지러뜨리지 말지어다. 백성의 삶은 처참히 무너지고 남은 산하에는 원한 맺힌 피가 흐르니, 옛 역사를 보매 슬픔을 금할 길 없고 예나 지금이나 망망히 서리(黍離)를 탄식하노라. 군주는 마땅히 나라를 지키는 경계를 새겨야 하거늘, 누가 태아점을 쥐고 기강을 온전히 지킬 것인가?

한편, 곽사의 군대가 도착하자 이각이 진영을 나와 맞서 싸웠다. 곽사의 군대가 불리해지자 잠시 물러갔다. 이각은 황제와 황후의 수레를 미오(鄴塢)로 옮기고, 조카 이섬(李暹)을 시켜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이로 인해 안팎 사신의 왕래가 끊기고 음식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결을 지키는 신하들 모두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다. 헌제가 사람을 보내 이각에게 쌀 다섯 섬과 소뿔 다섯 짝을 청하여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다. 그러자 이각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아침저녁으로 밥을 올리고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가!" 그러고는 썩은 고기와 상한 양식을 던져주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하여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헌

제가 꾸짖었다. "역적들이 어찌 이토록 사람을 기만하는가!" 이때 시중 양표가 급히 아뢰었다. "이각은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폐하께서는 우선 참으셔야 합니다. 그 예봉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헌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물만 소매를 적시며 흘릴 뿐이었다.

갑자기 좌우의 호위병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한 무리의 군마가 창과 칼을 휘두르며 해를 가릴 듯 달려오고 있습니다. 북과 징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며 황제 폐하를 구하러 오고 있습니다!" 헌제가 그들이 누구인지 물으니, 바로 곽사였다. 헌제는 다시 근심에 빠졌다.

그때 성 밖에서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알고 보니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곽사를 맞이하며 채찍으로 그를 가리켜 꾸짖었다. "내가 그대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 드는가!" 그러자 곽사가 말했다. "그대는 역적이다. 내가 어찌 그대를 죽이지 않겠는가!" 이각이 다시 외쳤다. "나는 이곳에서 황제를 보필하고 있는데, 어찌 역적이라 하는가?" 곽사가 대꾸했다. "황제를 납치해 온 것이 바로 그대인데, 어찌 보필이라 하는가!" 이각이 말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우리 둘 다 군사들은 쓰지 말고, 오직 우리 둘이서만 승부를 내자. 이기는 쪽이 황제를 데려가는 것이다!"

두 사람은 즉시 진영 앞에서 맞붙어 싸웠다. 열 합을 싸울 때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양표가 말을 타고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두 장군은 그만 멈추시오! 이 노부가 대신 관리들을 데려왔으니, 두 분과 화해를 논하고자 하오." 그제야 이각과 곽사는 각자의 진영으로 물러갔다.

양표와 주준은 조정 관리 60여 명과 합류하여, 우선 괄사의 진영으로 가서 화해를 권유했다. 그러나 괄사는 도리어 모든 관리를 잡아 가두어 감시하게 했다. 관리들이 "우리는 화해를 위해 왔거늘, 어찌 이토록 대접하는가?"라고 항의하자, 괄사는 "이각은 천자를 납치했지만, 나는 공경들을 납치했다!"라고 맞받아쳤다. 양표가 "한쪽은 천자를 납치하고, 다른 한쪽은 공경들을 납치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묻자, 괄사는 크게 분노하며 칼을 뽑아 양표를 죽이려 했다. 이때 중랑장 양밀이 간곡히 만류한 덕분에 괄사는 양표와 주준을 풀어주었으나, 나머지 관리들은 여전히 진영에 갇혀 감시를 받아야 했다. 양표가 주준에게 "나라를 위한 신하로서 임금을 바로잡고 주군을 구하지 못하니, 천지 사이에 헛되이 태어났구나!"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하더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하다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주준은 집으로 돌아가 병을 얻어 죽었다. 이때부터 이각과 괄사는 매일같이 서로를 죽이며 싸웠는데, 50여 일 동안 이어진 싸움에서 죽은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이각은 평소 요사스러운 술법을 매우 좋아하여, 자주 무녀들을 시켜 군중에서 복을 치며 신을 불러내게 했다. 가후가 여러 번 간언했으나 이각은 듣지 않았다. 이때 시중 양기가 황제에게 비밀리에 상소를 올려 말했다. "신이 보기에 가후가 비록 이각의 심복이기는 하나, 사실 황제 폐하를 잇은 적은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그와 함께 계책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후가 도착했다. 현재는 즉시 좌우의 신하들을 물러나게 한 뒤, 가후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부탁했다. "경은

한나라를 가엾게 여겨 짐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겠소?" 가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대답했다. "그것이야말로 신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신이 스스로 방도를 찾아 보겠습니다." 헌제는 눈물을 거두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각이 칼을 찬 채 황제를 알현하러 들어왔다. 헌제는 얼굴이 흙빛이 될 정도로 겁에 질렸다. 이각이 황제에게 말했다. "곽사가 신하의 도리를 저버리고 대신들을 감금한 채 폐하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폐하의 수레는 이미 끌려갔을 것입니다." 헌제가 손을 모아 감사의 뜻을 표하자 이각은 물러갔다. 그때 황보려가 황제를 뵈기 위해 들어왔다. 헌제는 황보려가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각과 고향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그에게 명을 내려 양측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도록 했다. 황보려가 명을 받들어 곽사의 진영으로 달려가 설득하자 곽사가 말했다. "이각이 천자를 보내준다면, 나도 대신들을 풀어주겠소."

황보려가 이각을 찾아가 말했다. "천자께서 제가 서량 사람으로서 이각 장군과 고향이 같다 하여, 특별히 저를 보내 두 분의 화해를 권하도록 하셨습니다. 곽사가 이미 조서를 받들었는데, 장군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각이 대답했다. "나는 여포를 물리친 큰 공이 있고, 4년 동안 정사를 보좌하며 많은 공적을 세웠으니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오. 곽아다(곽사)는 한낱 말 도둑일 뿐인데, 감히 제멋대로 공경들을 납치하고 나에게 대항하니 반드시 처단할 것이오! 그대는 내 방략과 군세를 보시오. 곽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황보려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유궁(有窮)의 임금 후예(后羿)는 활을 잘 쏘는 것만 믿고 환난을 대비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서 동탁 태사의 강성함을 장군께서 직접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포는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그를 도모하여, 순식간에 그 목이 성문에 내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강한 힘이란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장군께서는 상장(上將)으로서 부월과 부절을 쥐고 계시고, 자손과 일가친척 모두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라의 은혜가 두텁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아다는 공경들을 납치하고, 장군께서는 지존(황제)을 납치하셨으니, 과연 누가 가볍고 누가 무겁다 하겠습니까?"

이각이 크게 분노하여 칼을 뽑아 들고 꾸짖었다. "천자가 너를 보내 나를 모욕하려 하느냐? 내 먼저 네 머리부터 베어버리겠다!"

기도위 양봉이 간곡히 말했다. "지금 곽사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천자가 보낸 사신을 죽이면 곽사가 군사를 일으킬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제후가 그를 도울 것입니다."

가후 역시 힘써 권하자, 이각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자 가후는 황보려를 밖으로 밀어냈다. 황보려가 크게 소리쳤다. "이각이 조서를 받들지 않고 황제를 시해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시중 호막이 급히 그를 말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칫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황보려가 호막을 꾸짖었다. "호경재! 너 또한 조정의 신하인데 어찌 도적의 편에 서느냐?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

하다'고 했다. 내가 이각에게 죽는 것도 다 하늘의 뜻이다!" 황보려는 욕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퍼부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제는 급히 황보려에게 서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각의 군대 대부분은 서량 출신이었고, 강족 군사들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다. 그런데 황보려가 서량 사람들에게 "이각이 반역을 꾀하고 있으니, 그를 따르는 자는 곧 역적 무리가 될 것이며 그 뒷감당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고했다. 서량 사람들은 황보려의 말을 귀담아듣는 이가 많아지면서 군대의 사기가 점차 꺾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각은 크게 노하여 호분 장수 왕창을 보내 그를 추격하게 했다. 하지만 왕창은 황보려가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임을 알고는 끝내 추격하지 않고, "황보려가 이미 어디론가 떠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만 올렸다. 이때 가후가 다시 강족 사람들에게 은밀히 일렀다. "천자께서 너희의 충성심과 의리를 알고 계신다.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고생한 너희를 위해 비밀 조서를 내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나중에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마침 강족 사람들은 이각이 자신들에게 관직이나 상을 주지 않는 것에 원망을 품고 있었기에, 가후의 말을 믿고 모두 군사를 이끌고 떠나 버렸다.

가후는 황제에게 비밀리에 상소를 올려 말했다. "이각은 탐욕스러운 뿐 지략이 없습니다. 지금 군사들이 흩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높은 관직과 재물로 달래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황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 이각을 대사마로 봉했다. 이각은 매우 기뻐하며 "이것은 무당이 신에게 기도하여 얻은 힘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무당에

게는 큰 상을 내리면서도, 정작 고생한 군사들과 장수들에게는 상을 내리지 않았다.

기도위 양봉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송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화살과 돌을 맞아가며 싸웠는데, 공을 무당에게 빼앗긴단 말인가?" 송과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 역적을 죽여 천자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양봉이 대답했다. "그대가 중군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면, 내가 군사를 이끌고 밖에서 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두 경(밤 10시~자정 사이)에 거사를 치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계획이 새어 나가 이각에게 보고되고 말았다. 이각은 크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 송과를 먼저 잡아 죽였다. 양봉은 밖에서 군사를 이끌고 기다렸으나 신호탄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각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다가 마침 양봉과 마주쳤고, 진영 안에서 새벽 네 경(새벽 2시~4시 사이)까지 격렬한 혼전이 벌어졌다. 양봉은 싸움에서 밀리자 군사를 이끌고 서안으로 도망쳤다.

이후 이각의 군세는 점차 약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광사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바람에 죽는 병사들이 매우 많아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장제가 대군을 거느리고 섬서에서 왔습니다. 두 분(이각과 광사)과 화해를 청하면서, 만약 응하지 않으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각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 먼저 사람을 보내 장제의 진영에 화해를 청했다. 광사 역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장제가 상소를 올려 황제가 흥농으로 행차하기를 청했다. 황제는 기뻐하며 말했다. "짐이 동도(낙양)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제 이 기회를 얻었으니 참으로 큰 행운이로다!" 황제는 장제를 표기장군으로 봉했다. 장제는 식량과 술, 고기를 가져와 백관들에게 공급했다. 관사는 공경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 주었다. 이각은 황제의 수레와 행차를 정비하여 동쪽으로 향했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림군 수백 명을 보내 창을 들고 호위하게 했다.

황제의 수레가 신평을 지나 패릉에 이르렀을 때, 마침 가을이라 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함성이 들려오더니, 수백 명의 군사들이 다리 위로 몰려와 수레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큰 소리로 "누구냐!"라며 물었다. 시중 양기가 말을 달려 다리 위로 올라가 외쳤다. "황제께서 지나가시는데, 누가 감히 길을 막느냐!" 그러자 장수 두 명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는 관 장군의 명을 받들어 간첩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자 이 다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황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직접 뵙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 양기가 수레의 구슬발을 높이 들어 올리자, 헌제가 말했다. "짐이 여기 있는데, 그대들은 어찌 물러나지 않는가?" 그러자 장수들이 모두 만세를 외치며 길 양옆으로 갈라졌고, 황제의 수레는 비로소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

두 장수가 돌아와 관사에게 보고했다. "황제의 수레가 이미 떠났습니다." 관사가 꾸짖었다. "내가 막 장제를 속여 넘기고 황제의 수레를 다시 탈취해 미오(鄴塢)로 들이려던 참이었는데, 네놈들이 어찌 감히 멋대로 놓아주었느냐!" 그러고는 즉시 두 장수를 베어 버리고 군사를 일으켜 뒤쫓아갔다.

황제의 수레가 막 화음현에 이르렀을 때, 뒤편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이 들려왔다. "수레를 멈추시오!" 헌제가 눈물을 흘리며 대신들에게 호소했다. "방금 늑대 굴을 벗어났더니 이제는 호랑이 입에 걸렸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대신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적군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산 등성이 너머로 한 장수가 나타났는데, 앞세운 커다란 깃발에는 '대한 양봉(大漢楊奉)'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는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다. 알고 보니 양봉은 이각에게 패한 뒤 종남산 아래에 군사를 주둔하고 있다가, 황제가 이곳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보호하러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양쪽이 진을 벌여 마주 섰다. 광사가 최용을 앞세워 내보내니, 최용이 양봉을 반역자라 부르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양봉이 크게 노하여 진중을 돌아보며 "공명은 어디 있는가?" 하고 외쳤다. 그러자 한 장수가 커다란 도끼를 손에 들고 화류(驍驍) 같은 준마를 날려 곧장 최용에게 달려들었다. 두 말이 맞붙어 단 한 합 만에 최용을 말 아래로 베어 버렸다. 양봉이 이 기세를 몰아 들이치자 광사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20여 리를 달아났다. 양봉은 즉시 군사를 거두어 천자를 뵈러 갔다. 헌제가 위로하며 말했다. "경이 짐의 몸을 구했으니 그 공이 결코 작지 않다!" 양봉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헌제가 다시 물었다. "방금 적장을 벤 자는 누구인가?" 양봉이 그 장수를 이끌고 수레 아래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동 양군 출신으로, 성은 서, 이름은 황이며 자는 공명입니다." 헌제가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다. 양봉은 황제를 호위하여 화음에 이르러 머물렀다. 장수

단외가 의복과 음식을 갖추어 올렸다. 그날 밤, 천자는 양봉의 진영에서 묵었다.

곽사가 한 차례 패한 뒤, 이튿날 다시 군사를 몰아 진영 앞까지 들어닥치자 서황이 앞장서서 맞서 나갔다. 곽사의 대군이 사방에서 에워싸자, 헌제와 양봉은 포위망 한가운데 갇혀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남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들리더니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말을 달려 나타났다. 그러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서황은 이 기세를 몰아 공격하여 곽사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달려온 이는 바로 황제의 친척인 동승이었다. 헌제는 그를 보자 그동안 겪은 고초를 눈물로 호소했다. 동승이 말했다. "폐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양 장군과 함께 맹세코 저 두 역적을 베어 천하를 평정하겠습니다." 헌제는 즉시 동쪽 수도로 떠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밤을 도와 수레를 움직여 홍농으로 향했다.

한편, 곽사가 패하여 돌아오던 길에 이각과 마주쳤다. 곽사가 말했다. "양봉과 동승이 황제를 구하여 홍농으로 떠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산동 지역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자리를 잡는다면, 반드시 천하에 이를 알려 제후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삼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각이 말했다. "지금 장제가 장안을 점거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나와 당신이 힘을 합쳐 기회를 엿보다가, 홍농까지 가서 황제를 죽여버립시다. 그리하여 천하를 나누어 가지면 어찌 안 되겠습니까?" 곽사가 기뻐하며 승낙했다. 두 사람은 군사를 합쳐 길을 가며 약탈을 일삼았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 양봉과 동승은 적군이 멀

리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돌려 동간에서 적들과 큰 전투를 벌였다.

이각과 곽사 두 사람이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는 병력이 많고 저들은 적으니, 혼전으로 몰아붙여 이겨야 한다." 그리하여 이각은 왼쪽에, 곽사는 오른쪽에 서서 산과 들을 가득 메운 채 몰려왔다. 양봉과 동승은 양쪽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며 겨우 황제와 황후의 수레를 빼냈다. 그 과정에서 백관과 궁인들, 부책(符冊)과 전적(典籍) 등 황실에서 쓰는 온갖 물건을 모두 내버리고 말았다.

곽사는 군사를 이끌고 홍농으로 들어가 약탈을 일삼았다. 동승과 양봉은 황제를 보호하며 섬북 쪽으로 피신했는데,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나누어 뒤쫓아왔다. 동승과 양봉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이각·곽사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동으로 비밀리에 성지(聖旨)를 보내, 옛 백파수(白波帥)였던 한섬·이락·호재 세 곳의 군사들에게 급히 구원하러 오라고 불렀다. 이락 또한 본래 산림에 모여 살던 도적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를 부른 것이었다.

세 곳의 군사들은 천자께서 죄를 사하고 관직까지 내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오지 않겠는가. 그들은 본영의 군사를 모두 일으켜 동승과 합류하여, 힘을 합쳐 다시 홍농을 탈환하려 했다.

이각과 곽사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약탈했는데, 노약자는 죽이고 건장한 자들은 군사로 강제 징집했다. 적과 맞붙을 때는 민병을 앞세워 '사즉생의 군대'라 부르며 몰아붙이니, 그 기세가 매우 거셌다. 이락의 군대가 위양에 도착했을 때 이각, 곽사의 군대와 마주쳤다. 곽사가 군

사들에게 길가에 옷가지와 물건들을 내던지라고 명령하자, 이락의 군사들은 땅에 가득한 물건들을 줍느라 정신이 팔려 대열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각과 곽사의 두 군대가 사방에서 몰아치며 혼전을 벌이자 이락의 군대는 대패했다. 양봉과 동승이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며 황제를 보호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황제를 모시고 북쪽으로 급히 도망치는데 뒤에서는 적군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다. 이락이 외쳤다.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서 말에 올라 먼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헌제가 말했다. "짐은 백관들을 버려두고 혼자 떠날 수 없다."

모두가 통곡하며 뒤를 따랐다. 그 와중에 호재는 어지러운 군중에 휩쓸려 죽임을 당했다. 동승과 양봉은 적군이 급히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헌제에게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황하 기슭까지 가자고 청했다. 이락 일행이 겨우 작은 배 한 척을 찾아내 나룻배로 삼았다. 마침 날씨가 몹시 추운 데다, 헌제와 황후는 억지로 부축을 받으며 강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강가 언덕이 높아 배로 내려갈 수가 없었고, 뒤에서는 추격병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양봉이 말했다. "말 고삐를 풀어 길게 이어서 황제의 허리에 묶은 뒤, 그것을 잡고 배로 내려가시게 합시다."

이때 사람들 틈에서 국구(國舅, 황후의 오라비) 복덕이 흰 비단 열댓 필을 끼고 나타나 말했다. "제가 난군 중에 이 비단을 주웠으니, 이것을 길게 이어 수레를 끌듯 사용합시다."

행군교위 상홍이 비단으로 헌제와 황후를 감싼 뒤, 사람들이 먼저 황제를 매달아 아래로 내려보내니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었다. 이락은 칼을 쥐고 뱃머리에 서 있었고, 황후의 오라비 복덕은 황후를 업고 배 안으로 내려갔다. 강가에서 배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다투어 뱃줄을 잡아당기자, 이락은 그들을 모조리 물속으로 베어 넘겼다. 헌제와 황후를 건너게 한 뒤에야 다시 배를 띄워 나머지 사람들을 건넜는데, 다투어 건너려던 자들은 모두 손가락이 잘려 나갔고, 그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강을 건너고 나니 황제의 곁에는 겨우 열댓 명의 사람만이 남았다. 양봉은 우여곡절 끝에 수레 한 대를 구해 황제를 태우고 대양으로 향했다. 황제는 며칠째 음식을 먹지 못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그날 저녁 기와집에서 머물게 되자 마을 노인이 가져온 거친 곡식 밥을 황제와 황후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하지만 너무 거칠고 딱딱한 음식이라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황제는 이락을 정북장군으로, 한섬을 정동장군으로 봉한다는 조서를 내리고 행차를 재촉했다. 그때 두 대신이 달려와 수레 앞에서 울며 절을 올렸는데, 바로 태위 양표와 태복 한웅이었다. 이를 본 황제와 황후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웅이 말했다.

"이각과 곽사, 두 역적도 제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설득해 군사를 물리고 전쟁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한옹이 물리가자, 이락은 헌제에게 양봉의 진영으로 가서 잠시 쉬시라고 청했다. 양표는 헌제에게 안읍현에 머무르시라고 청했다. 황제의 행차가 안읍에 이르렀으나, 마땅한 높은 집이 없어 헌제와 황후는 초가에 머물러야 했다. 게다가 달을 문조차 없어 사방에 가시나무를 꽂아 울타리로 삼았다. 헌제가 초가 아래에서 대신들과 정사를 논하면, 여러 장수는 울타리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진압하듯 지켰다. 이락 등은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백관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면 황제 앞에서 대놓고 때리고 욕했다. 일부러 탁한 술과 거친 음식을 황제에게 보냈고, 헌제는 억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락과 한섬은 또 목형을 받은 죄수와 부곡(部曲)·무당·의원·하인 등 200여 명을 연명으로 천거하여 교위·어사 따위의 관직에 앉혔다. 인장을 새길 겨를도 없어 송곳으로 그어 만드니, 도무지 격식과 체통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한옹이 이각과 곽사 두 역적을 간곡히 설득하자,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백관과 궁인들을 풀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해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산나물을 캐 먹을 정도로 굶주렸으며,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가득했다. 하내태수 장양은 쌀과 고기를 바치고, 하동태수 왕읍은 비단과 옷감을 바친 덕분에 헌제는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동승과 양봉이 상의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낙양의 궁궐을 수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의 수레를 모셔 동도인 낙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락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동승이 이락에게 말했다. "낙양은 본래 천자께서 도읍을 정하신 곳입니다. 안읍은 작은 땅인데 어찌 황제의 행차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황제를

모시고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자 이락이 대답했다. "당신들이 황제를 모시고 떠나시오. 나는 그저 이곳에 머물겠소."

동승과 양봉은 황제의 수레를 받들어 길을 떠났다. 한편 이락은 몰래 사람을 보내 이각·곽사와 결탁하여 함께 황제의 행차를 가로채기로 했다. 동승과 양봉, 한섬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밤을 새워 군사를 배치한 뒤, 황제의 수레를 호위하며 기관(箕關)을 향해 서둘러 나아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락은 이각·곽사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해 왔다. 사경(새벽 2~4시) 무렵, 이락의 군대가 기산(箕山) 아래에 이르러 크게 외쳤다. "수레를 멈춰라! 이각과 곽사가 여기 있다!" 이 외침에 헌제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고, 산 위에서는 여기저기 불길이 치솟았다. 이야말로, 지난번에는 두 역적이 둘로 나뉘었더니, 이번에는 세 역적이 하나로 합쳤구나. 한나라 천자가 이 난관을 어떻게 벗어날지, 다음 회를 들어 보라.

제14회 — 조맹덕이 거처를 옮겨 허도로 가고, 여봉선이 밤을 틈타 서군을 습격하 다

曹孟德移駕幸許都 呂奉先乘夜襲徐郡

한편, 이락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이각과 곽사를 사칭하며 천자의 수레를 추격하자, 천자는 크게 놀랐다. 이때 양봉이 “저들은 이락의 무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즉시 서황을 내보내 맞서게 했다. 이락이 직접 싸움에 나섰으나, 두 군사가 맞붙은 지 단 한 합 만에 서황의 도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서황은 남은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천자의 수레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기관을 통과했다. 지도(軹道)에서 천자를 맞이한 태수 장양은 곡식과 비단을 갖추어 황제를 정중히 모셨다. 천자는 장양을 대사마로 봉하였고, 장양은 천자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뒤 군사를 이끌고 야왕으로 떠나 그곳에 주둔하였다.

천자가 낙양에 들어갔으나, 궁궐은 이미 다 타버리고 거리는 황폐해져 눈길 닿는 곳마다 잡초만 무성했다. 궁궐 안에는 무너진 담장과 부

서진 벽뿐이라, 양봉에게 명하여 작은 궁을 지어 거처하게 했다. 백관들이 조하하러 모여들었으나 모두 가시덤불 사이에 서 있어야 했다. 천자는 흥평이라는 연호를 건안 원년으로 고쳤다.

그해에 또다시 큰 기근이 닥쳤다. 낙양에 남은 주민은 겨우 수백 가 구뿐이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모두 성 밖으로 나가 나무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 먹으며 연명했다. 상서랑 이하의 관리들조차 스스로 성 밖으로 나가 쌀감을 구하러 다녔으며, 무너진 담장이나 허물어진 벽 사이에서 굶어 죽는 이가 부지기수였다. 한나라 말기의 국운이 다해가는 모습이 이보다 더 참혹할 수는 없었다. 후대의 한 시인이 이를 보고 탄식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망탕산에 피 흐르고 흰 뱀이 죽으니, 붉은 깃발이 사방을 누비며 휩쓸고 다니네. 진나라의 사슴(천하)을 쫓아 뒤엎어 사지를 일으켰고, 초나라의 오추마를 거꾸러뜨려 강토를 세웠도다. 천자는 나약하고 간신들은 날뛰니, 종묘사직은 시들고 도적들은 광기를 부리는구나. 두 수도가 재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철로 만든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리라.”

태위 양표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며 말했다. “전에 조서를 내리셨으나 아직 사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조가 산동에 머물고 있는데, 군사도 강하고 장수들도 용맹하니,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황실을 보필하게 해야 합니다.” 황제가 대답했다. “이미 전에 조서를 내렸거늘, 경은 어찌하여 다시 상소를 올리는가?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면 될 일이다.” 양표는 명을 받들고 곧바로 사절을 보내 산동에 있는 조조를 불러들였다.

한편, 산동에 있던 조조는 천자의 수레가 이미 낙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순욱이 나아가 말했다.

"옛날 진나라 문공이 주나라 양왕을 받아들였을 때 제후들이 복종하였고, 한나라 고조가 의제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었을 때 천하의 민심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천자께서 고난을 겪고 계시니, 장군께서 진정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천자를 받든다면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서둘러도 모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가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조서를 받으니, 정해진 날짜에 군사를 일으키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천자가 낙양에 머물고 있었으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이를 보수하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이때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이끌고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천자는 크게 놀라 양봉에게 물었다. "산동에서 온 사절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각과 곽사의 군대까지 몰려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양봉과 한섬이 말했다. "저희가 적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폐하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동승이 거들었다. "성벽은 견고하지 못하고 무기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 싸우다 지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천자를 모시고 산동으로 피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천자가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즉시 수레를 일으켜 산동을

향해 출발했다. 백관들은 탈 말이 없었기에 모두 천자의 행차를 따라 걸어서 이동했다.

낙양을 벗어나 화살 한 대 거리도 채 가지 못했을 때였다. 하늘을 뒤덮을 듯한 먼지 구름이 일고 북소리와 징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끝도 없이 많은 인마가 몰려오자, 황제와 황후는 겁에 질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달려왔는데, 바로 산동에 보냈던 사신이였다. 사신은 수레 앞에 이르러 절을 올리며 보고했다. “조조 장군께서 산동의 군사들을 모두 일으켜 황제의 명을 받들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낙양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하후돈을 선봉으로 삼아 상급 장수 열 명과 정예병 5만 명을 이끌고 황제를 보호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제야 황제의 마음이 놓였다. 잠시 후, 하후돈이 허저, 전위 등을 거느리고 수레 앞으로 나아와 군례를 갖추어 황제를 뵈었다. 황제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정동쪽에서 또 다른 군대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황제가 즉시 하후돈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명하자, 하후돈이 돌아와 보고했다. “조조의 보병 부대입니다.”

잠시 후, 조홍, 이전, 악진이 천자를 뵈기 위해 달려왔다. 이름을 알리고 절을 올리자 조홍이 말했다. “신은 형님(조조)께서 적군이 가까이 이른 것을 알고, 하후돈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울까 염려하시어, 다시 저희를 보내 밤낮으로 갑절의 속도로 달려와 돕게 하셨습니다.” 천자가 말했다. “조 장군은 참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충신이로다!” 그러고는 즉시 호위 부대에게 앞장서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이때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이끌고 거침없이 몰

려오고 있습니다!” 천자가 하후돈에게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하후돈은 조홍과 함께 양쪽 날개가 되어 나누어 나갔다. 기병이 먼저 출격하고 보병이 그 뒤를 따르며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이각과 곽사의 도적 군대는 대패하였고, 적의 머리 만여 개를 베었다. 그제야 군사들은 낙양의 옛 궁궐로 돌아갔으며, 하후돈은 성 밖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다음 날, 조조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다. 진영을 갖춘 조조는 성 안으로 들어가 천자를 뵈고 전각 계단 아래에서 엎드려 절했다. 천자가 몸을 일으키라는 명을 내리며 조조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조조가 말했다. "신은 그동안 나라의 은혜를 입어 늘 보답할 길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각과 곽사 두 도적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신이 거느린 20여 만의 정예병으로 역적들을 토벌하여 승전보를 올리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나라의 안위를 돌보시는 데 전념하십시오." 천자는 조조를 사례교위로 봉하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인 가절월을 내렸으며, 상서사까지 맡겼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조조가 멀리서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싸우기로 의논했다. 그러자 가후가 간언했다. “안 됩니다. 조조의 군대는 병사들이 정예이고 장수들도 용맹하니, 차라리 그에게 항복하여 스스로의 죄를 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각이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네가 감히 우리의 기세를 꺾으려 드느냐!” 이각은 칼을 뽑아 가후를 베려 했으나, 주변 장수들이 말려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가후는 홀로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음 날, 이각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를 맞이하러 나왔다. 조조는 먼저 허저, 조인, 전위에게 삼백 명의 철기병을 맡겨 이각의 진영을 향해 세 차례나 돌격하게 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진을 쳤다. 포진을 마친 곳에서 이각의 조카인 이섬과 이별이 말을 타고 진 앞으로 나섰는데,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허저가 말을 달려가 단칼에 먼저 이섬을 베어버렸다. 깜짝 놀란 이별은 말에서 굴러떨어졌고, 허저가 그마저 베어버린 뒤 두 사람의 머리를 들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허저의 등을 두드리며 “그대는 참으로 나의 번쾌로구나!”라며 크게 칭찬했다. 이어 조조는 하후돈에게는 왼쪽으로, 조인에게는 오른쪽으로 군사를 이끌게 하고, 자신은 직접 중앙군을 이끌고 진영을 돌파했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삼군이 일제히 진격했다. 적군은 조조의 군세를 버티지 못하고 대패하여 달아났다. 조조는 직접 보검을 뽑아 들고 진영을 누비며 밤새도록 추격하여 살육했는데,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항복한 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각과 곽사는 서쪽으로 도망치기에 급급해 마치 집 잃은 개와 같은 꼴이 되었고,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음을 깨닫고는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 떼가 되고 말았다.

조조는 군사를 돌려 낙양 성 밖에 진을 쳤다. 그러자 양봉과 한섬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지금 조조가 큰 공을 세웠으니 반드시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곧바로 천자에게 나아가, 이각과 곽사를 추격하여 죽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부대를 이끌고 대량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다.

어느 날 천자가 사람을 보내 조조의 진영에 알리고, 조조를 궁으로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했다. 조조는 천자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 뵙기를 청했다. 궁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은 눈매가 맑고 수려
 하며 정신이 아주 충만해 보였다. 조조는 속으로 '지금 동군은 몹시 굶
 주려 관리와 군사, 백성들 모두 굶주린 기색이 역력한데, 어찌 이 사람
 만 홀로 저토록 윤택해 보이는가?'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공의 안색이
 참으로 좋아 보이십니다. 대체 어떻게 몸을 관리하셨기에 이 지경에 이
 르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삼십 년
 동안 담백하게 먹었을 뿐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
 다. “그대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효렴으로 추천받아 원
 래 원소와 장량의 종사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천자께서 도성으로 돌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알현하러 왔으며, 정의랑이라는 관직을
 받았습니다. 제음군 정도현 사람이며 성은 동, 이름은 소, 자는 공인입
 니다.” 조조는 자리를 피하며 말했다. “이름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러
 게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조조는 곧 천막 안에 술자리를 마련하
 여 그를 대접하며 순욱과 만나게 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보
 고하기를, “군사 한 부대가 동쪽으로 가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
 다”라고 했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하자 동소가 말했다.
 “저들은 이각의 옛 부하인 양봉과 백파(白波)의 수령 한섬입니다. 명
 공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량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
 고 가는 것뿐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혹시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
 겠소?” 동소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무런 계책도 없는 무지몽매한 자
 들이니 명공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이각
 과 곽사 두 도적은 이제 어떻게 되겠소?” 동소가 말했다. “발톱 없는
 호랑이요 날개 없는 새와 같으니, 머지않아 명공의 손에 잡힐 것입니
 다.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조조는 동소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함을 보고는, 즉시 조정의 큰일에 대해 물었다.

동소가 말했다. "명공께서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폭란을 제거하고, 조정에 들어가 천자를 보필하시니 이는 오백(五伯)과 같은 큰 공적입니다. 다만 장수들의 뜻이 제각각이라 반드시 복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무르시면 혹여 불편한 일이 생길까 우려되오니, 천자께서 허도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어지러운 와중에 이제 막 수도로 돌아와 근방의 사람들이 안정을 바라며 우러러보고 있는데, 다시 거처를 옮긴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비범한 일을 행해야 비범한 공을 세울 수 있는 법이니, 장군께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조조는 동소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본래 뜻이요. 다만 양봉이 대량에 군사를 펴고 있고 대신들도 조정에 있으니, 다른 변수가 생기지는 않겠소?"

동소가 대답했다. "그 일은 쉽습니다. 양봉에게 편지를 보내 먼저 그 마음을 안심시키십시오. 그리고 대신들에게는 수도에 식량이 떨어져 천자의 수레를 허도로 모시려 한다고 명확히 알리십시오. 허도는 노양과 가까워 식량을 운반하기 쉬우니, 식량이 부족하거나 끊길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하면 대신들도 기쁜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동소가 작별을 고하자 조조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오직 공께서 가르침을 주시오." 동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다.

조조는 이날 여러 모사와 함께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이때 시중이자 태사령인 왕립이 종정 유애에게 몰래 말하기를, “내가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지난봄 태백성이 두우에서 진성을 범하고 천진을 지났으며, 화성 또한 역행하다가 천관에서 태백성과 만났습니다. 금성과 화성이 서로 만났으니 반드시 새로운 천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한나라의 기운은 이제 다해가고, 진나라와 위나라가 차지할 땅에 반드시 새로운 주인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황제에게도 비밀리에 상소를 올려, “천명은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오행의 기운은 항상 성하지 않습니다. 불의 기운을 이어 받을 것은 토의 기운입니다. 한나라를 대신해 천하를 얻을 이는 반드시 위나라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했다.

조조가 이 소식을 듣고 왕립에게 이르기를, “공이 조정에 충성스러우니 잘 알고 있으나, 하늘의 도는 심오하고 멀기에 부디 말을 아껴주시오”라고 했다. 조조는 이 내용을 순욱에게도 알렸다. 순욱이 말하기를, “한나라는 화(火)의 덕으로 다스렸으나, 주군께서는 토(土)의 명을 타고나셨습니다. 허도는 토에 속하니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불은 토를 살리고 토는 나무를 왕성하게 하니, 이는 동소와 왕립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게 결정했다.

다음 날, 조조는 황제를 알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동쪽의 낙양은 폐허가 된 지 오래되어 수리하기가 어렵고, 식량을 운반하는 일 또한 매우 고달픕니다. 허도는 노양과 가까워 성과 궁궐이 잘 갖춰져 있고,

재물과 식량, 백성들도 충분하여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이 감히 청하오니, 폐하께서는 허도로 거처를 옮겨 주시옵소서.” 황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신하들도 모두 조조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날을 택해 황제의 행차를 시작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호위하며 나아갔고, 백관들도 모두 뒤를 따랐다.

행차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언덕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양봉과 한섬이 군사를 이끌고 길을 막아섰다. 서황이 앞장서서 크게 외쳤다. “조조가 황제의 행차를 가로채려 한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조조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살펴보니, 서황의 위풍이 매우 당당하여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조조는 즉시 허저를 출전시켜 서황과 맞붙게 했다. 도끼와 칼이 부딪치며 쇠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조조는 곧 징을 울려 군사를 물린 뒤, 모사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 “양봉과 한섬은 정말 보잘것없으나, 서황은 참으로 훌륭한 장수다. 무력으로 억지로 굴복시키기보다는 계책을 써서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겠다.” 그러자 행군종사 만총이 말했다. “주공,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서황과 안면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졸병으로 변장하여 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뒤, 잘 설득하여 반드시 마음을 돌려 항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그를 보냈다.

그날 밤, 만총은 병사로 변장하여 적진에 몰래 잠입했다. 그는 서황의 막사 앞까지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서황은 촛불을 켜둔 채 갑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만총이 갑자기 서황의 앞으로 다가가 읊하며 말했다.

다. “옛 친구여, 그동안 별로 없으셨습니까!” 서황은 깜짝 놀라 일어나 만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자네는 산양의 만백녕이 아닌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만총이 대답했다. “저는 지금 조조 장군의 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진영 앞에서 옛 친구를 뵙게 되어 드릴 말씀이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서황은 만총을 자리에 앉히고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만총이 말했다. “공의 용맹과 지략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입니다. 어찌하여 양봉이나 한섬 같은 무리 밑에서 몸을 낮추고 계십니까? 조조 장군은 당대 최고의 영웅이며, 어진 이를 좋아하고 선비를 예우한다는 사실은 이미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에서 공의 용맹을 직접 보니 참으로 경외심이 들어, 차마 용맹한 장수를 사지로 내몰 수 없어 제가 직접 공을 모시러 왔습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나아와 함께 대업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서황은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이내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본래 양봉과 한섬이 큰 뜻을 이룰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그들을 따른 지 오래되어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네.” 그러자 만총이 말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군을 가려 섬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모실 만한 주군을 만나고도 눈앞에서 놓친다면, 그것은 대장부의 도리가 아닙니다.” 서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을 따르겠네.” 만총이 다시 권했다. “차라리 양봉과 한섬을 처단하고 떠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조 장군을 뵙는 예의가 될 것입니다.” 서황이 대답했다. “신하가 주군을 죽이는 것은 큰 불의이기에,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네.” 만총이 감탄하며 말했다. “장군이야말로

참된 의사(義士)이십니다!” 서황은 곧바로 부하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만총과 함께 밤을 도와 조조에게 투항했다. 이 소식을 미리 들은 양봉이 크게 분노하여, 직접 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쫓아오며 외쳤다. “반역자 서황, 게 서라!”

한창 추격하던 중, 갑자기 포성 한 번이 울려 퍼지더니 산 위와 아래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아지며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조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며 크게 외쳤다. “내가 여기서 오래 기다렸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양봉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돌려 후퇴하려 했으나, 이미 조조의 군사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마침 한섬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으나, 양측 군사가 뒤엉켜 혼전이 벌어지는 사이 양봉은 간신히 탈출했다. 조조는 적군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기세를 몰아 공격했고, 양측 군사 대부분이 항복했다. 결국 양봉과 한섬은 세력이 약해지자 패잔병을 이끌고 원술에게로 도망쳤다.

조조가 군대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오자, 만총이 서황을 데리고 들어가 조조를 뵈게 했다.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서황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어 천자의 수레를 맞이하여 허도로 모셨으며, 궁궐과 전각을 새로 짓고 종묘와 사직을 세웠다. 또한 관청과 관리들의 집무실을 마련하고 성곽과 창고를 수리했다. 아울러 동승 등 열세 명을 열후로 봉했다.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모든 일은 조조의 처분에 맡겼다.

조조는 스스로 대장군과 무평후에 임명되었고, 순욱을 시중 상서령으로 삼았다. 순유는 군사로, 곽가는 사마제주로 임명했다. 유업은 사공연이 되었고, 모개와 임준은 전농중랑장이 되어 군량과 재정을 독촉

하고 관리하게 했다. 정욱은 동평의 상이 되었으며, 범성과 동소는 낙양령으로 삼았다. 만충은 허도령이 되었고, 하후돈, 하후연, 조인, 조홍은 모두 장군이 되었다. 여건, 이전, 악진, 우금, 서황은 모두 교위로 삼았으며, 허저와 전위는 도위로 삼았다. 그 외의 장수들도 저마다 관직을 받았다. 이로써 모든 권력은 조조에게 집중되었다. 조정의 모든 큰 업무는 먼저 조조에게 보고한 뒤에야 비로소 천자에게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조조는 큰일을 결정한 뒤 후당에 연회를 베풀고 모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의논하며 말했다. "유비가 서주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스스로 주를 다스리고 있다. 얼마 전 여포가 전쟁에서 패한 뒤 유비에게 의탁했는데, 만약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이는 가슴을 찌르는 큰 근심이 될 것이다. 그대들에게 이들을 다스릴 묘책이 있는가?"

그러자 허저가 말했다. "정예병 5만 명만 빌려주십시오.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순욱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용맹하시기는 하나, 지략을 쓰는 법을 모르시는군요. 지금은 허도가 막 안정되었으니 성급하게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두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게 하는 계책'이 있습니다. 지금 유비가 비록 서주를 다스리고는 있으나 아직 정식 조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군께서 조서를 청하여 유비를 정식으로 서주목에 임명하게 하시고, 동시에 밀서를 보내 여포를 죽이라고 명하십시오. 일이 성사되면 유비 곁에 도와줄 용맹한 장수가 없으니 점차 공략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이 실패하더라도 여포가 반드시 유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게 하는 계책'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조서를 청하여 유비를 정동장군 의성 정후에 임명하고 서주목을 맡긴다는 내용을 담아 사절을 서주로 보냈으며, 그와 함께 여포를 죽이라는 밀서 한 통을 함께 보냈다.

한편, 유비는 서주에 머물던 중 천자가 허도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황제에게 축하하는 상소를 올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천자의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는 성 밖으로 나가 사자를 맞이하여 군 안으로 모셨고, 은혜로운 명을 받은 뒤 사자를 위해 연회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사자가 말했다. "유비 공께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사실 조조 장군께서 황제 폐하 앞에서 공을 높이 추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유비가 거듭 감사를 표하자, 사자는 품속에서 비밀스러운 편지 한 통을 꺼내 유비에게 건넸다. 유비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 일은 아직 의논해 볼 여지가 있겠군요"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나자 유비는 사자를 숙소로 편히 머물게 했다.

그날 밤, 유비는 사람들을 모아 이 일을 상의했다. 장비가 말했다. "여포는 본래 의리가 없는 자인데, 그를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는 처지가 궁해져 나에게 의탁해 온 사람인데, 내가 그를 죽인다면 나 또한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장비가 한탄하며 말했다. "착한 사람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군요!"

그러나 유비는 장비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다음 날, 여포가 축하 인사를 하러 오자 유비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했다. 여포가 말했다. "공계서 조정의 은혜로운 명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축하하러 왔습니다." 유비는 겸손하게 사양하며 인사를 받았다.

그때 갑자기 장비가 칼을 뽑아 들고 대청으로 뛰어 올라오며 여포를 죽이려 했다. 유비가 황급히 장비를 말렸다. 여포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장비,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오?" 장비가 소리쳤다. "조조가 당신은 의리가 없는 자라고 하더군! 우리 형님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비가 연신 소리를 지르며 장비를 물러나게 했다.

이어 유비는 여포를 뒷방으로 안내하여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조조가 보낸 밀서도 여포에게 보여주었다. 여포는 밀서를 다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조조라는 도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군요!" 유비가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유비는 결코 이런 의롭지 못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여포가 거듭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유비는 여포를 머물게 하며 술을 대접했고, 밤이 되어서야 여포가 돌아갔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가 물었다.

"형님, 어찌하여 여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조조가 나와 여포가 한패가 되어 자신을 치려 할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계책을 써서 우리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신은 그 틈을 타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 어찌 그 수작에 놀아나겠느냐?"

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장비는 성이 나서 말했다.

"저는 저 도적놈을 당장 죽여서 후환을 없애고 말겠습니다!"

유비가 꾸짖었다.

"그것은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다."

다음 날, 유비는 사절을 보내 도성에 인사를 전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표를 올렸다. 동시에 조조에게도 답장을 보내, 상황을 살피며 천천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절이 돌아와 조조에게 유비가 여포를 죽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조조가 순욱에게 물었다.

"이 계책이 실패했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겠느냐?"

순욱이 대답했다.

"또 다른 계책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삼키게 하는 계책'입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그 계책이 무엇이냐?"

"몰래 사람을 원술에게 보내, 유비가 남군을 차지하겠다는 밀지를 올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술이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 분노하여 유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공께서 유비에게 명을 내려 원술을 토벌하라 하시면, 양측이 서로 맞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포는 반드시 탄 마음을 품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삼키게 하는 계책'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먼저 사람을 원술에게 보냈고, 이어 천자의 조서를 위조하여 서주로 사람을 보냈다.

한편, 유비는 서주에 머물고 있다가 사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 맞이했다. 유비가 조서를 펼쳐 읽어보니, 원술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라는 내용이었다. 유비는 명을 받든 뒤 사절을 먼저 돌려보냈다. 이때 미축이 말했다. "이것 또한 조조의 계책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비록 계책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명을 어길 수는 없네."

그는 곧 군마를 점검하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나기로 했다. 이때 손건이 말했다. "성안에 남아서 성을 지킬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비가 물었다. "두 동생 중에서 누가 이 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관우가 대답했다. "제가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조만간 너와 상의할 일이 많은데, 어찌 너와 떨어져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나섰다. "제가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너는 이 성을 지킬 수 없다. 너는 첫째로 술만 마시면 성질이 거

칠어져 병사들을 매질하고, 둘째로 일을 너무 경솔하게 처리하며 남의 간언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를 믿고 맡길 수가 없구나."

장비가 말했다. "동생인 제가 이제부터는 술도 마시지 않고 군사들을 때리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일을 남의 권고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미축이 대답했다. "말만 앞서고 마음은 따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비가 화를 내며 외쳤다. "내가 형님을 모신 세월이 얼마인데, 한 번도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거늘, 어찌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느냐!"

유비가 말했다. "동생의 말이 그렇다 해도 나는 끝내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진원룡(진등)께서는 부디 동생을 도와주시요. 아침저녁으로 술을 적게 마시게 하여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요."

진등이 승낙했다. 유비는 할 일을 모두 분부한 뒤, 곧바로 기병과 보병 삼만 명을 거느리고 서주를 떠나 남양을 향해 진군했다.

한편, 원술은 유비가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와 현을 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네놈은 돛자리나 짜고 신발이나 엮던 천한 놈이 아니냐! 그런데 감히 큰 군락지를 차지하고 제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들다니. 내가 막 너를 치려던 참인데, 오히려 네가 나를 넘보려 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원술은 즉시 상장 기령에게 명령하여 십만 대군을 일으켜 서주로 돌격하게 했다. 양측 군대는

우이에서 맞붙었다. 유비는 병력이 적었기에 산과 강을 끼고 진을 쳤다.

기령은 산동 사람으로, 무게가 50근이나 나가는 삼첨도를 휘둘렀다. 그날 기령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크게 꾸짖었다. "유비 이 시골뜨기 놈아, 네가 감히 우리 영토를 침범하느냐!" 유비가 말했다. "나는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불충한 무리를 토벌하러 온 것이다. 네가 감히 앞을 막아서니, 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기령은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고 칼을 휘두르며 유비를 향해 돌진했다. 이때 관우가 크게 호통을 쳤다. "네놈, 함부로 날뛰지 마라!" 관우는 말을 몰아 기령과 맞서 싸웠다. 서른 합을 넘도록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기령이 잠시 쉬겠다고 외치자, 관우는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가 진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러자 기령은 부장 순정을 내보냈다. 관우가 말했다. "기령이 직접 나와서 승부를 가리게 하라!" 순정이 말했다. "너는 이름도 없는 하급 장수일 뿐이니, 기 장군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관우는 크게 노하여 순정을 향해 돌진했다. 단 한 합 만에 순정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유비가 군사를 몰아 장수를 죽이러 달려가자, 기령은 크게 패하여 회음 하구까지 퇴각하며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다. 기령이 군사들을 보내 몰래 진영을 습격하려 했으나, 모두 서주의 군사들에게 격퇴당했다. 양측 군대가 맞붙어 싸운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장비는 유비가 떠난 뒤로 온갖 잡다한 일은 진원룡에게 맡기고, 군대의 중요한 대사는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했다. 어느 날, 장비는

여러 관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자리에 모두 앉자 장비가 입을 열었다.

"우리 형님께서 떠나시며, 일이 잘못될까 염려되어 내게 술을 적게 마시라고 당부하셨다. 하지만 장수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취할 만큼 마시고, 내일부터는 각자 술을 삼가며 나를 도와 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은 모두 남김없이 마셔라!"

말을 마친 장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들과 함께 잔을 나누었다. 술잔이 조포의 앞에 이르자 조포가 말했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술을 마시지 않겠소."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싸움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어찌 술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나? 당장 한 잔 마셔라!"

조포는 장비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잔 들이켰다.

장비는 관리들에게 술을 골고루 돌린 뒤, 커다란 술잔을 들어 스스로 수십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러다 어느덧 크게 취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 관리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었다. 술이 조포에게 이르자 조포가 말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방금 전까지 마셔놓고 이제 와서 왜 거절하는 것이냐?" 조포가 몇 번이고 마시기를 거절하자, 술에 취한 장비는 억지로 술을 권하다가 버럭 화를 내며 외쳤다.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매 백 대를 맞아야 마땅하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조포를 끌어내게 했다. 이때 진원룡이 물었다. "유비께서 떠나실 때 당신에게 무엇이랴 당부하셨습니까?" 장비가 대답했다. "너는 문관이면 문관의 일이나 신경 쓸 것이지, 어디서 참견이냐!"

조포는 어찌할 도리가 없자, 간곡히 빌며 말했다. "장비 공, 제 사위의 체면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비가 물었다. "네 사위가 누구냐?"

조포가 대답했다. "바로 여포입니다."

그러자 장비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내가 본래 너를 때리려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네가 여포를 끌어들여 나를 겁주려 하니, 나는 기어코 너를 때려야겠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곧 여포를 때리는 것과 같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장비는 조포를 채찍으로 켰대나 때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간절히 애원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연회가 끝나고 조포가 돌아가니, 장비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조포는 그날 밤 즉시 사람을 시켜 편지 한 통을 써서 소패에 있는 여포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장비가 무례하게 굴었으며, 유비는 이미 회남으로 떠났으니, 오늘 밤 여포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습격해야 한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다. 여포가 이 편지를 보고 진궁을 불러 의논하니, 진궁이 말했다.

"소패는 원래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서주에 공격할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이번에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여포가 뒤를 따르며 즉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 오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앞장섰다. 진궁에게는 대군을 이끌고 뒤따라오게 했으며, 고순 또한 그 뒤를 이어 출발했다. 소패는 서주에서 겨우 사오십 리밖에 떨어지지 않아 말로 달려가면 금방 도착할 거리였다. 여포가 성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새벽 네 시경이었는데, 달빛은 맑고 깨끗했으나 성 안의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여포가 성문 곁에 다가가 소리쳤다. "유비 사군께서 긴밀히 전할 말이 있어 사람을 보내셨다!" 성 위에서는 조포의 군사가 조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포가 성 위로 올라와 확인하더니 즉시 군사들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여포가 암호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던 군사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들어닥치며 함성을 질렀다.

장비는 부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그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히 보고했다. "여포가 성문을 속여 열고 군사를 몰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는 크게 노하여 황급히 갑옷을 챙겨 입고 장팔사모를 움켜쥐었다. 막 부 문을 나서서 말에 올라타려는데, 이미 여포의 군마가 도착해 그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장비는 아직 술이 덜 깨서 힘을 다해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여포 또한 장비의 용맹함을 평소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몰아붙이지는 못했다. 열여덟 명의 연(燕) 출신 기병 장수들이 장비를 호위하여 동문으로 돌파해 나갔다. 부 안에 남겨진 유비의 가족들은 미처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

한편, 조포는 장비의 호위병이 고작 열댓 명뿐인 데다 장비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보고, 곧장 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다. 장비는 조포를 보자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맞서 나갔다. 두 편이 세 합 정도 싸우자 조포는 패하여 달아났고, 장비가 뒤쫓아 강가에 이르렀을 때 창으로 조포의 등을 정확히 찔렀다. 결국 조포는 말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장비는 성 밖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고, 성을 나가는 이들은 모두 장비를 따라 회남으로 떠났다. 한편 여포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켰으며, 군사 백 명을 유비의 집 문에 배치하여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엄하게 다스렸다.

한편, 장비가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우이까지 달려가 유비를 만났다. 장비가 조포와 여포가 서로 내통하여 밤중에 서주를 습격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자, 모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얻은 것이 무엇이기에 기뻐할 것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기에 슬퍼할 것이냐!"

그러자 관우가 물었다.

"형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장비가 대답했다.

"모두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침묵에 빠졌다. 관우는 발을 구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처음에 성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께서 분부하신 일은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 성은 또 잃었고 형수님까지 갇히셨으니, 이제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입니까!"

장비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죄스러운 나머지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했다.

정말로, 술잔을 들어 정을 나누려 했지만, 칼을 뽑아 목숨을 버리려니 후회해도 이미 늦었구나!

장비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15회 — 태사자가 소패왕과 한창 싸우고, 손백부가 엄백호와 크게 싸우다

太史慈酣鬥小霸王 孫伯符大戰嚴白虎

한편, 장비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하자 유비가 앞으로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칼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형제는 손과 발 같고 처자는 옷과 같다'라고 했다. 옷은 해지면 꿰매면 그만이지만, 손과 발이 잘려 나가면 어찌 다시 붙일 수 있겠느냐? 우리 세 사람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을 때, 같은 날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죽기를 바랐다. 지금 비록 성과 집안사람들을 잃었으나, 어찌 형제 중 한 사람이 도중에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게다가 성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고, 가족들이 비록 적에게 잡혔다 해도 여포가 해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니, 방책을 세워 구하면 된다. 아우가 잠시 실수를 했다고 하여 어찌 이토록 급히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말을 마친 유비가 크게 통곡하자, 관우와 장비도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편, 원술은 여포가 서주를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을 도와 사람을 보내 여포에게 약속했다. 곡식 5만 곡, 말 500필, 금은 1만 냥, 비단 1천 필을 줄 테니 유비를 협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여포는 이 제안이 반가워 고순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유비의 뒤를 습격하게 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비가 내리는 틈을 타 군사를 몰려 우이를 버리고 떠났으며, 동쪽의 광릉으로 가려 했다. 고순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비가 떠난 뒤였다. 고순은 기령을 만나 원술이 약속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기령이 말했다. "그만 돌아가시오. 내 주군을 뵙고 의논할 수 있게 해주시오." 고순은 기령과 헤어져 군을 돌린 뒤, 여포를 만나 기령이 했던 말을 상세히 보고했다.

여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원술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고순이 왔으나 아직 유비를 제거하지 못했으니, 우선 유비를 잡아 온 뒤에 약속했던 물건들을 보내주겠다." 여포는 원술이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나 욕을 퍼부으며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려 했다.

그러자 진궁이 말했다. "안 됩니다. 원술은 수춘을 근거지로 삼고 있어 병사도 많고 군량도 풍족하니, 가볍게 적을 맞서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유비에게 청하여 다시 소패로 돌아가 머물게 한 뒤, 그를 우리의 날개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훗날 유비를 선봉으로 세워 원술을 먼저 치고, 그다음에 원소를 친다면 천하를 종횡무진 누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하며 유비를 불러들여 돌아오게 했다.

한편,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의 광릉을 치러 갔다가 원술의 습격을 받아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고 돌아왔다. 그때 마침 여포가 보낸 사자가 찾아와 서찰을 전달하니,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가 말했다. "여포는 의리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그가 이미 호의를 가지고 나를 대하는데, 어찌 의심하겠느냐?" 유비는 곧 서주로 향했다. 여포는 유비가 흑시라도 의심할까 염려되어, 먼저 사람을 보내 유비의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감부인과 미부인 두 부인은 유비를 만나 여포가 병사들을 시켜 집문을 굳게 지키게 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나, 시녀들을 통해 물건을 보내주는 일에는 한 번도 빠짐이 없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여포가 내 가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마라." 그러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 여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비는 여포가 몹시 미워 따라가려 하지 않았기에, 먼저 두 형수를 모시고 소패로 떠났다.

유비가 여포를 찾아가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포가 말했다. "내가 성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 아니오. 장비가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며 날뛰는 바람에 흑시라도 큰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지키러 온 것뿐이라오." 유비가 대답했다. "제가 진작부터 형님께 성을 양보하려 했습니다." 여포는 말로는 유비에게 성을 양보하겠다고 했으나, 유비가 간곡히 사양하는 바람에 결국 소패로 돌아가 머물게 되었다. 관우와 장비는 마음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으나, 유비가 그들을 달

래며 말했다. "지금은 몸을 낮추어 제 분수를 지키며 때를 기다려야 하네. 운명에 맞서 무모하게 싸워서 안 되네." 그 후 여포는 사람을 보내 식량과 비단 등을 보내왔다. 이로써 두 집안은 화해하여 사이가 좋아졌다.

한편, 원술이 수춘에서 장수와 병사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이때 손책이 여강 태수 육강을 정벌하고 승리하여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술이 손책을 불러들여 대청 아래에서 절을 올리게 했다. 수고했다며 격려를 마친 원술은 손책에게 곁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연회를 즐기라고 일렀다. 본래 손책은 아버지 손견이 세상을 떠난 뒤 강남으로 물러나 지내며 인재를 아끼고 예우해 왔다. 그러다 도겸과 손책 어머니의 외삼촌인 단양 태수 오경 사이가 틀어지자, 손책은 어머니와 가솔들을 곡아로 옮겨 살게 하고 자신은 원술에게 의탁했다. 원술은 손책을 매우 아껴서 평소 "나에게 손책 같은 아들이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구나!"라며 감탄하곤 했다. 그래서 손책에게 회의교위라는 관직을 내리고 경현의 대수(大帥) 조랑을 공격하게 했는데, 손책이 승리했다. 원술은 손책의 용맹함을 보고 다시 육강을 공격하게 했고, 이번에도 손책이 승리하여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연회가 끝나고 손책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원술이 연회석상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오만하다는 것을 느낀 손책은 마음이 답답하여 달빛 아래 중정으로 걸어 나갔다. 돌아가신 아버지 손견은 이토록 영웅적인 분이었는데, 자신은 지금 이토록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에 손책은 자신도 모르게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다. "백부가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는 것이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나를 무척 아껴주셨는데, 만약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게 묻지 않고 왜 혼자 울고만 있는 것이오?"

손책이 보니, 그는 단양 출신의 주치였다. 그는 손견이 예전에 거두어 일을 맡겼던 옛 부하였다. 손책은 눈물을 닦고 그를 앉히며 말했다. "제가 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치가 말했다. "어찌하여 원술에게 고하여 군사를 빌린 뒤, 겉으로는 오경을 구하러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대업을 도모하지 않고, 어찌하여 남의 밑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곤궁하게 지내고만 있는 것이오?"

의논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와 말했다. "여러분이 무엇을 논의하는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제 수하에 정예병 백 명이 있으니, 잠시나마 손책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손책이 그를 살펴보니, 바로 원술의 책사였던 여범이었다. 그는 여남 세양 사람이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자리에 앉혀 함께 의논하게 했다. 여범이 말했다. "원술이 군사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손책이 대답했다. "나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전국옥새가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삼을 생각이다." 여범이 말했다. "원술이 그것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내세운다면 반드시 군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의논하여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손책이 원술을 찾아가 울며 절을 올리고 말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도 한스러운데, 이제 외삼촌 오경마저 양주자사 유요에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모두 곡아에 있는데, 분명 해를 입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염치 불고하고 수천 명의 군사를 빌려 강을 건너가,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구하고 부모님을 뵙고자 합니다. 혹시 믿지 못하실까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옥새를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원술은 옥새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가져와 살펴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네 옥새를 탐내는 것이 아니니, 일단은 여기 잠시 맡겨 두거라. 대신 병사 삼천 명과 말 오백 필을 빌려주겠다. 상황을 평정하는 대로 즉시 돌아오너라. 네 직위가 낮아 큰 권한을 휘두르기 어려울 테니, 내가 너를 절충교위와 진구장군으로 임명하여 조만간 군사를 이끌고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

손책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절을 올린 뒤, 곧 군마를 이끌고 주치, 여범, 그리고 옛 장수인 정보, 황개, 한당 등을 데리고 날을 택해 출정했다. 군사를 이끌고 역양에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선두에는 풍채가 멋스럽고 용모가 수려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손책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곧장 절을 올렸다. 손책이 그를 살펴보니, 그는 여강 서성 출신의 주유였다. 본래 손견이 동탁을 토벌하러 나갔을 때 서성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주유는 손책과 동갑내기

친구로 사이가 매우 돈독하여 형제처럼 지내왔다. 손책이 주유보다 두 달 정도 형이었기에, 주유는 손책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었다. 주유의 숙부인 주상이 지금 단양태수로 재임 중이라 고향을 방문하던 차에 이곳에서 손책과 마주친 것이었다.

손책은 주유를 만나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주유가 말했다. "제가 가진 힘을 다해 큰일을 도모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손책이 기뻐하며 말했다. "공근을 얻었으니, 이제 큰일을 이루겠구나!" 손책은 즉시 주유를 주치, 여범 등과 만나게 했다. 주유가 손책에게 말했다. "형님께서 큰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강동에 두 명의 장(張)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손책이 물었다. "그 '두 명의 장 씨'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주유가 대답했다. "한 명은 팽성의 장소이며 자는 자포이고, 다른 한 명은 광릉의 장광이며 자는 자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천하를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난리를 피해 이곳에 은거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을 모셔오지 않으십니까?" 손책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예물을 들고 찾아가 청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사양하며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손책이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가 정성껏 대화를 나누며 간곡히 청하니, 마침내 두 사람이 승낙했다. 손책은 곧바로 장소를 장사로 삼아 무군중랑장을 겸하게 하고, 장광을 참모정의교위로 삼아 유요를 공격할 방책을 논의했다.

한편, 유요는 자가 정레이며 동래 모평 사람이다. 그 역시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태위 유충의 조카이자 연주자사 유대의 동생이었다. 예전에 양주자사로서 수춘에 머물렀으나, 원술에게 쫓겨 강동으로 넘

어온 뒤 곡아에 자리를 잡았다. 마침 손책의 군대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유요는 급히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부하 장수 장영이 말했다. "제가 일군을 이끌고 우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설령 적군이 백만 대군이라 해도 결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사 안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제가 앞장서서 선봉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그는 동래 황현 출신의 태사자였다. 태사자는 북해의 포위 공격을 풀어준 뒤 유요를 찾아왔고, 유요는 그를 곁에 두었다. 태사자는 손책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선봉이 되기를 자청했다. 그러자 유요가 말했다. "그대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 큰 장수가 되기에는 이르다. 그저 내 곁에서 명령을 따르도록 해라." 태사자는 이 말이 못마땅하여 물러났다.

장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저에 이르러, 창고에 군량 십만 석을 쌓아 두었다. 손책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자 장영이 마중을 나왔다. 두 군대는 우저 나루터에서 맞붙었다. 손책이 말에 올라타자 장영이 크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황개가 달려 나가 장영과 싸웠다. 그러나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갑자기 장영의 진영이 크게 어지러워지더니, 진영 안에 불이 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장영이 급히 군사를 돌려 돌아가자, 손책은 그 기세를 몰아 군사를 몰고 나아가 적을 몰아쳤다. 장영은 우저를 버려둔 채 깊은 산속을 향해 도망쳤다.

알고 보니 그 진영 뒤편에 불을 지른 이들은 두 명의 용맹한 장수였다. 한 명은 구강 수춘 출신의 장흠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구강 하채 출신의 주태였다. 두 사람 모두 난세에 휩쓸려 양자강 일대에서 무리를 이끌고 약탈하며 살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다 손책이 강동의 호걸로서

인재를 불러 모으는 데 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자신의 무리 300여 명을 이끌고 그에게 투항하러 왔다. 손책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그들에게 차전교위라는 직책을 주었다. 이들은 우저에 있는 창고의 식량과 무기, 그리고 항복해 온 병사 4,000여 명을 거느리고 신정으로 진격했다.

한편, 장영이 패하여 유요에게 돌아가자, 유요는 크게 노하여 그를 베려 했다. 그러나 책사 착용과 설레가 만류하며, 대신 병사들을 영릉성에 주둔시켜 적을 막게 하자고 권했다. 유요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신정령 남쪽에 진을 쳤고, 손책은 고개 북쪽에 진을 쳤다. 손책이 현지 사람에게 물었다. "가까운 산에 한나라 광무제 사당이 있느냐?" 현지인이 대답했다. "고개 위에 사당이 있습니다." 손책이 말했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광무제가 나를 불러 만나려 하더라. 그러니 가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장사인 장소가 만류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고개 남쪽은 유요의 진영이니, 혹시라도 매복한 병사가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손책이 말했다. "신령이 나를 도우실 터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을 마친 손책은 곧장 무장을 갖추고 창을 든 채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정보, 황개, 한당, 장흠, 주태 등 열세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영을 나와 고개 위로 올라가 사당에 도착해 향을 피웠다. 말을 내려 참배를 마친 손책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만약 저 손책이 강동에서 업을 세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사당을 중수하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말을 타고 나선 손책이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넘어 유요의 진영을 살피러 가겠다." 장수들은 모두 안 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손책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홀로 고개를 넘어갔다. 고개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마을과 숲이 펼쳐져 있었다. 이때 길목을 지키던 소수의 정찰병이 이미 유요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유요가 말했다. "이것은 분명 손책이 적을 유인하려는 계책일 것이니, 뒤쫓지 마라." 그러자 태사자가 몸을 떨며 외쳤다. "지금 손책을 잡지 않으면 대체 언제 잡겠습니까?" 태사자는 유요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 창을 휘두르며 진영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쳤다. "담력이 있는 자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다른 장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한 젊은 장수만이 "태사자는 참으로 용맹한 장수로다! 내가 돕겠다!"라고 외치며 말을 달려 그 뒤를 따랐다. 이를 본 다른 장수들은 모두 비웃었다.

한편, 손책은 한참 동안 상황을 살피더니 그제야 말머리를 돌려 떠났다. 고개를 막 넘어가려는데, 고개 위에서 "손책, 거기 서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손책이 고개를 돌려보니 말 두 마리가 고개 위에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손책은 열세 명의 기병에게 진형을 갖추라고 명령한 뒤, 고개 아래에서 창을 가로로 쥐고 말에 올라탄 채 적을 기다렸다. 태사자가 크게 소리치며 물었다. "누가 손책이냐?" 손책이 되물었다. "너는 누구냐?" 태사자가 대답했다. "나는 동래의 태사자다! 너를 잡으러 왔다!" 손책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나다. 너희 둘이 한꺼번에 덤벼든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만약 너희를 두려워했다면 손백부라고 불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태사자가 말했다. "네놈이 부하들을 다 데려온다 해도 나는 전혀 겁나지 않는다!" 말

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태사자가 손책을 향해 돌진했다. 손책 역시 창을 내밀며 맞서 싸웠다. 두 말이 맞부딪치며 쇠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니, 이를 지켜보던 정보 등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태사자는 손책의 창술에 빈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지는 척하며 손책을 유인했다. 태사자는 옛길이 아닌 고갯마루 너머 산 뒤편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났다. 손책이 뒤쫓아오며 크게 외쳤다. “도망만 치다니, 결코 대장부답지 못하구나!” 태사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은 열두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나는 혼자뿐이니, 지금 당장 생포한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조금 더 유인해서 저놈이 길을 잃게 만든 뒤에야 비로소 손을 써야겠다.’ 태사자는 싸우는 척하며 계속 도망쳤다. 손책이 이를 놓칠 리 없었기에 평탄한 벌판까지 끝까지 추격했다. 태사자가 말머리를 돌려 다시 싸우니 또 오십합을 겨루었다. 손책이 창을 찔러 넣자 태사자가 몸을 피해 창대를 붙잡았고, 태사자가 다시 창을 찌르자 손책 역시 몸을 피해 창대를 붙잡았다. 두 사람이 힘껏 서로를 끌어당기다 그만 말에서 함께 굴러떨어졌다. 말들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없었다. 두 사람은 창을 버려둔 채 서로 옷가지를 움켜쥐고 육탄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전투복이 갈갈이 찢어졌다. 손책이 재빨리 태사자의 등에 매고 있던 짧은 극을 뽑아들자, 태사자 또한 손책의 머리에 쓴 투구를 낚아챘다. 손책이 극으로 태사자를 찌르려 하자, 태사자는 투구를 방패 삼아 막아냈다.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유요의 지원군 천여 명이 도착했다. 손책이 한창 당황하던 차에 정보를 비롯한 열두 명의 기병도 달려온 덕분에, 손책은 그제야 태사자를 놓아줄 수 있었다. 태사자는 군사들 사

이에서 말 한 필과 창을 챙겨 타고 다시 돌아왔다. 손책의 말은 정보가
챙겨준 것이었으므로 손책 역시 창을 들고 말에 올라탔다. 유요의 군사
천여 명은 정보 등 열두 명의 기병과 뒤엉켜 싸우며 신정령 아래까지
굽이굽이 밀려 내려왔다. 그때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주유가 군사를 이
끌고 나타났다. 유요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개 아래로 돌진해 내려왔
다. 어느덧 황혼이 가까워지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양
측은 각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다음 날, 손책이 군사를 이끌고 유요의 진영 앞에 이르자 유요도 군
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양측 진영이 마주 보고 대치한 가운데, 손
책은 태사자가 쓰던 작은 극을 챙겨 진영 앞에 내걸며 군사들에게 크게
외치게 했다. "태사자가 발이 빠르지 않았더라면 벌써 찢려 죽었을 것
이다!" 그러자 태사자 역시 손책의 투구를 챙겨 진영 앞에 내걸며 군사
들에게 크게 외치게 했다. "손책의 머리가 이미 여기 있다!"

양측 군사들이 서로 승리를 외치며 기세를 올리던 중, 태사자가 직
접 나서 손책과 승부를 겨루겠다고 나섰다. 손책이 출전하려 하자 정보
가 말했다. "주공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자를
사로잡겠습니다." 정보가 진영 앞으로 나서자 태사자가 외쳤다. "너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손책이 직접 나오너!" 정보는 크게 분노하여
창을 휘두르며 태사자를 향해 돌진했다. 두 장수가 말을 타고 맞붙어
서른 합가량 싸우고 있을 때, 유요가 급히 징을 쳐서 군대를 물렸다. 태
사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적장을 막 잡으려던 참인데, 어찌하여 군
대를 물리는 것이오?" 유요가 대답했다. "주유가 군사를 이끌고 곡아를
습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여강 송자 출신의 진무가 주유를 도와 안

으로 진입했다고 하니, 이미 우리 가문의 기반을 잃게 생겼다. 이곳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되니, 어서 말릉으로 가서 설례와 착융의 군마를 모아 급히 지원하러 오너라."

태사자가 유요를 따라 퇴각하자, 손책은 무리하게 쫓지 않고 군대를 멈추게 했다. 이때 장사 장소가 말했다. "저들의 군대는 주유에게 곡아를 빼앗겼기에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밤을 틈타 진영을 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책이 그 말에 동의하여, 그날 밤 군사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거침없이 진격했다. 유요의 군대는 대패하여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태사자는 혼자서 버티기 어려워지자, 기병 십여 명을 이끌고 밤을 도와 경현으로 도망쳤다.

한편, 손책은 진무를 보좌할 장수로 얻었는데, 그는 키가 7척에 얼굴은 누르고 눈은 붉어 생김새가 기이한 인물이었다. 손책은 그를 매우 존중하고 아껴 교위로 임명하고 선봉장으로 삼아 설례를 공격하게 했다. 진무가 십여 기의 기병을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가 적의 머리 50여 개를 베어 오자, 설례는 문을 굳게 닫고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손책이 성을 공격하던 중, 갑자기 유요가 착융과 합류하여 우저를 취하러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손책은 크게 분노하여 직접 대군을 이끌고 우저로 달려갔다. 유요와 착융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와 적을 맞이했다. 손책이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는가?" 그때 유요의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창을 들고 달려 나왔는데, 바로 부장 우미였다. 그러나 우미는 손책과 세 합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생포된 채 끌려갔고, 손책은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갔다. 유요의 장수 번

능은 우미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창을 휘두르며 쫓아왔다. 창끝이 손책의 등 뒤를 겨냥하는 찰나, 손책의 진영에 있던 군사들이 "뒤에 적이 나타났다!"라고 크게 외쳤다. 손책이 고개를 돌리자 번능이 말 위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손책이 크게 호통을 치니 그 소리가 마치 벼락과 같았다. 번능은 너무 놀라 말에서 굴러떨어지며 머리가 깨져 죽고 말았다. 손책이 문기 아래에 이르러 우미를 내던졌는데, 그는 이미 손책의 겨드랑이에 끼인 채 눌러 죽은 상태였다. 이처럼 손책은 순식간에 장수 한 명을 겨드랑이에 끼워 죽이고, 호통 한 번에 장수 한 명을 겁주어 죽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두 손책을 가리켜 '소패왕'이라 불렀다.

그날 유요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병사와 말의 태반이 손책에게 항복했다. 손책은 적의 머리 만여 개를 베었다. 유요는 착용과 함께 예장으로 도망쳐 유표에게 의탁했다. 손책은 군사를 돌려 다시 말릉을 공격했는데, 직접 성벽 해자 근처까지 가서 설레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 그때 성 위에서 몰래 날아온 화살 한 대가 손책의 왼쪽 다리에 정통으로 맞았고, 손책은 말에서 떨어졌다. 장수들이 급히 그를 구해 진영으로 돌아와 화살을 뽑고 금창약을 발라주었다. 손책은 군사들에게 자신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고 거짓으로 알리게 했다. 군사들이 슬피 울부짖자, 그들은 진영을 거두고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설레는 손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즉시 성 안의 군사를 일으켰다. 그는 용맹한 장수인 장영, 진횡과 함께 성을 돌파해 나와 손책을 뒤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북병들이 튀어나왔다. 손책이 앞장서서 말을 몰고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손책이 여기 있다!" 이에 군사들은 모두 깜짝 놀라 창과 칼을 내던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

다. 손책은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장영은 말을 돌려 달아나려다 진무의 창에 찔려 죽었고, 진황은 장흠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설레 역시 혼란스러운 군사들 사이에서 목숨을 잃었다. 손책은 말릉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다독인 뒤, 태사자를 잡기 위해 경현으로 군사를 옮겼다.

한편, 태사자는 정예병 이천여 명과 자신이 거느린 부대를 모아 유요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었다. 손책은 주유와 상의하여 태사자를 생포할 계책을 세웠다. 주유는 성을 세 방향에서 공격하되, 동문만은 열어두어 도망칠 길을 만들어 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성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세 갈래로 군사를 매복시켜, 태사자가 그곳에 이르러 인마가 지쳤을 때 반드시 사로잡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실 태사자가 모은 군사들 대부분은 산야에서 모여든 백성들이라 군기가 엄격하지 못했다. 경현의 성벽은 그리 높지 않았다. 밤이 되자 손책은 진무에게 짧은 옷을 입히고 칼을 들게 하여, 가장 먼저 성벽을 기어올라 불을 지르게 했다. 태사자는 성 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말을 타고 동문으로 달아났으나, 그 뒤를 손책이 이끄는 군대가 뒤쫓아왔다.

태사자가 급히 도망치는데, 뒤쫓던 후군이 30리쯤 오더니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태사자가 50리를 더 달렸으나 사람도 지치고 말도 힘에 부쳐 갈 때쯤, 갈대밭 사이에서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왔다. 태사자가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양쪽에서 밧줄을 던져 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결국 생포되어 큰 진영으로 끌려갔다. 손책은 태사자가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 뒤, 태사자의 결박을 직접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비단 옷을 벗어 태사

자에게 입혀주며 진영 안으로 청해 들인 뒤 말했다. "자의(子義)는 참으로 대장부요. 유요 같은 어리석은 자가 그대를 대장군으로 쓰지 못해 이런 패배를 당한 것이요."

태사자는 손책이 자신을 매우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항복을 청했다. 손책은 태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물었다. "신정에서 싸울 때, 만약 공께서 저를 잡으셨다면 저를 해치려 하셨겠습니까?" 태사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손책은 크게 웃으며 태사자를 막사 안으로 모셔 상석에 앉히고 연회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그러자 태사자가 말했다. "유요 공께서 막 패하여 병사들의 마음이 흩어졌으니, 제가 직접 가서 남은 무리를 수습해 명공을 돕고자 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하며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던 바입니다. 이제 공과 약속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반드시 다시 와 주십시오." 태사자는 승낙하고 떠났다. 그러자 장수들이 말했다. "태사자가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손책이 말했다. "태사자는 신의를 중시하는 선비이니,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장수들은 모두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다음 날, 손책은 진영 문 앞에 장대를 세워 해 그림자로 시간을 가늠하며 기다렸다. 마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태사자가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영에 도착했다. 손책은 크게 기뻐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손책의 사람 보는 안목에 감탄했다.

손책은 곧 수만 명의 군사를 모아 강동으로 내려갔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굶주린 이들을 구휼하자, 손책의 편에 서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다. 강동의 백성들은 모두 손책을 '손 도령'이라 부르며 따랐고, 손 도령의 군대가 온다는 소문만 들려도 겹을 먹고 달아날 정도였다.

손책이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을 때는 단 한 사람도 백성을 약탈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덕분에 닭이나 개 한 마리 놀라지 않을 만큼 평온했기에,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소와 술을 진영으로 가져와 군사들을 대접했다. 손책이 금과 비단으로 답례하자 환호성이 들판 가득 울려 퍼졌다. 유요의 옛 부하들 중 군대에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대로 따르게 했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어 농촌으로 돌아가게 했다. 강남의 백성들 중 손책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로 인해 군사들의 기세가 크게 일어났다.

손책은 어머니와 숙부, 그리고 동생들을 모두 곁으로 모셨고, 동생 손권에게는 주태와 함께 선성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서 손책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오군을 정벌하기 시작했다.

한편, 엄백호라는 자가 스스로 동오의 덕왕이라 칭하며 오군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부하 장수들을 보내 오정과 가흥을 지키게 했다. 그날 엄백호는 손책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엄여에게 군사를 내보내 풍교에서 만나라고 명령했다. 엄여는 다리 위에서 칼을 옆에 차고 말을 탄 채 진을 치고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중군에 보고하자 손책은 즉시 출전하려 했다. 이때 장광이 간언했다. "장수는 삼군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이니, 작은 도적 떼를 상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부디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손책이 대답했다. "선생의 말씀이 금석처럼 귀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적진에 뛰어들지 않으면 장병

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고는 결국 한당을 보내 군사를 출동시켰다.

한당이 다리에 이르렀을 때, 장흠과 진무가 이미 작은 배를 몰고 강가에서 다리 쪽으로 들이닥치며 달려들었다.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에 강가에 있던 군사들이 쓰러졌고, 두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려 상륙하여 칼을 휘두르며 살육하자 엄여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한당이 군사를 이끌고 창문 앞까지 거침없이 몰아붙이자, 도적들은 성 안으로 후퇴해 버렸다. 손책은 군사를 나누어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며 오성을 포위했다. 사흘 동안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으나 성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손책이 군사를 이끌고 창문 밖으로 나가 회유를 시도하자, 성 위의 한 부장이 왼손으로는 성벽의 들보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성 아래를 가리키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본 태사자가 즉시 말 위에서 활을 집어 들고 화살을 겨누며 군사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놈의 왼손을 맞히는 것을 보아라!"

말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활시위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화살이 정중앙에 명중했다. 화살은 그 장수의 왼손을 꿰뚫어 버리더니 그대로 성 위 서까래에 박아버렸다. 성 위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성 아래로 구출해 내려왔다. 이를 본 엄백호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저들의 군대에 저런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적을 당하겠는가!” 그러고는 즉시 화친할 방도를 논의했다. 다음 날, 엄백호는 동생 엄여를 성 밖으로 보내 손책을 만나게 했다. 손책은 엄여를 막사로 불러 술을 대접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손책이 엄여에게

물었다. “그대의 형님은 어찌할 생각이시요?” 엄여가 대답했다. “장군과 강동을 반씩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손책이 크게 노하며 외쳤다.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나를 대등하게 여기다니!” 손책은 즉시 엄여를 베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엄여가 칼을 뽑아 들고 일어나려 했으나, 손책이 날랜 솜씨로 칼을 휘둘러 그를 쓰러뜨렸다. 손책은 엄여의 머리를 베어 성 안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엄백호는 적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손책이 군사를 몰아 추격하니, 황개가 가흥을 점령하고 태사자가 오정을 점령하여 여러 주를 모두 평정했다. 엄백호는 여항으로 도망쳐 길목에서 약탈을 일삼았으나, 룡조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습격하여 그를 패퇴시키니, 엄백호는 회계를 향해 도망치듯 달아났다. 룡조 부자는 손책을 맞이하러 왔고, 손책은 그들에게 종정교위 직함을 내려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게 했다. 한편 엄백호가 무리를 모아 서진 나루터에 흠어져 있었는데, 정보가 이들과 싸워 다시 한번 크게 격파하고 밤을 새워 회계에 도착했다.

회계태수 왕량은 군사를 이끌고 엄백호를 구하려 했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안 됩니다. 손책은 인의를 바탕으로 군사를 일으켰으나, 엄백호는 포악한 무리일 뿐입니다. 차라리 엄백호를 사로잡아 손책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왕량이 그를 살펴보니, 그는 회계 여요 출신의 우번이라는 자로, 관직을 맡고 있는 관리였다. 왕량이 화가 나 호통을 치자, 우번은 길게 탄식하며 물러났다. 왕량은 결국 군사를 이끌고 엄백호의 무리와 합류하여 산음의 벌판에 진을 쳤다. 양측의 진영이 서로 마주 보게 되자, 손책이 말을 타고 나가 왕량에게 말했

다. "나는 인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켜 강을 안정시키려 왔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도적을 돕는단 말이오?" 그러자 왕랑이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그대는 욕심이 끝이 없는가! 이미 오군을 차지하고도 또 우리 땅까지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니! 오늘 내 반드시 엄씨 일가를 도와 원수를 갚아주겠다!"

손책이 크게 분노하여 막 싸우려 할 때, 태사자가 먼저 달려 나갔다. 왕랑이 말을 몰고 칼을 휘두르며 태사자와 맞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랑의 부하 주흔이 싸움을 돕기 위해 달려 나왔고, 손책의 진영에 있던 황개가 말을 타고 달려가 주흔과 맞섰다. 양측의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 그때 갑자기 왕랑의 진영 뒤쪽이 먼저 어지러워지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뒤를 습격해 왔다. 왕랑이 크게 놀라 급히 말을 돌려 맞서려 했으나, 알고 보니 주유와 정비가 군사를 이끌고 비스듬히 들이닥쳐 앞뒤로 공격해 온 것이었다. 왕랑은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엄백호, 주흔과 함께 피를 흘리며 길을 뚫어 성 안으로 도망쳤다. 그리고는 조교를 끌어올려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손책의 대군이 기세를 몰아 성 아래에 이르더니, 군사를 나누어 배치하고 성문 네 곳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성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왕랑은 손책의 공격 기세가 매우 급박한 것을 보고, 다시 군사를 내보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보려 했다. 그러자 엄백호가 말했다. "손책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니, 대감께서는 그저 깊은 해를 파고 높은 성벽을 쌓아 굳게 지키며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달만 버티면 저들의 식량이 다 떨어져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 빈틈을 노려

공격하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왕랑이 이 말을 따랐기에, 회계성을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손책이 며칠 동안 연이어 공격을 퍼부었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장수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손책의 숙부 손정이 말했다.

"왕랑이 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단번에 빼앗기는 어렵습니다. 회계의 군량미 대부분이 사독에 쌓여 있는데, 그곳은 여기서 수십 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군사를 먼저 보내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허점을 찔러 적이 대비하지 못한 사이에 기습하는 격이지요."

손책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숙부님의 계책이 참으로 뛰어나 적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손책은 즉시 각 성문에 불을 지르고 깃발을 흔들게 하여 마치 군사가 많이 남은 것처럼 꾸민 뒤, 밤을 틈타 포위망을 거두고 남쪽으로 철수했다. 그러자 주유가 나아가 말했다.

"주공께서 대군을 움직이셨으니, 왕랑은 반드시 군사를 몰고 성 밖으로 추격하러 나올 것입니다. 이때 기습 부대를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책이 말했다.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 성을 취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밤이 될 것이요."

손책은 곧 군마를 움직여 출정하게 했다.

한편, 왕랑은 손책의 군대가 물러갔다는 보고를 듣고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적루 위로 올라가 살펴보았다. 성 아래에서 불꽃과 연기가 솟구치고 깃발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것을 보자, 왕랑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생겼다. 이때 주흔이 말했다.

"손책이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계책을 쓴 것이니, 지금 바로 군사를 내어 습격해야 합니다."

엄백호도 거들었다.

"손책이 이대로 간다면 필시 사독으로 향할 것입니다. 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주 장군과 함께 뒤쫓겠습니다."

왕랑이 말했다.

"사독은 내가 군량을 쌓아둔 곳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대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라. 내가 뒤따라가며 지원하겠다."

엄백호와 주흔은 오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서 추격했다. 초경이 다 될 무렵, 성에서 이십여 리쯤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울창한 숲속으로부터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햇불이 일제히 밝아졌다. 엄백호는 깜짝 놀라 급히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때 한 장수가 앞장서서 길을 가로막았는데, 불빛 속에서 자세히 보니 바로 손책이었다. 주흔이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우려 했으나, 손책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

다. 나머지 군사들도 모두 항복했다. 엄백호는 간신히 혈로를 뚫고 여항을 향해 달아났다.

왕랑은 앞서 나간 군대가 이미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부하들을 이끌고 바닷가 쪽으로 도망쳐 버렸다. 손책은 곧바로 대군을 몰고 돌아와 그 기세를 몰아 성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어떤 장수가 엄백호의 머리를 들고 손책의 군대 앞에 나타나 바쳤다. 손책이 그를 살펴보니 키는 8척에 얼굴은 네모나고 입이 컸다. 이름을 물으니 회계 여요출신의 동습이라 하였다. 손책은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별부사마라는 직책을 내렸다. 이때부터 동쪽 길목은 모두 평정되었는데, 손책은 숙부 손정을 그곳을 지키게 하고 주치를 오군 태수로 삼은 뒤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다.

한편, 손권과 주태가 선성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산적들이 습격해 와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때는 이미 깊은 밤이라 미처 적을 맞이할 겨를도 없자, 주태는 손권을 안고 말에 올라탔다. 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주태는 상체를 드러낸 채 맨발로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 넘겼다. 그는 열 명 남짓한 적을 베어 죽였다. 이어 한 적이 말을 타고 달려들어 창으로 주태를 찔렀으나, 주태는 그 창을 낚아채 말 아래로 끌어내린 뒤, 적의 창과 말을 빼앗아 혈로를 열어 손권을 구출해냈다. 그러자 나머지 적들은 멀리 달아나 버렸다. 주태는 몸에 열두 군데나 창을 맞아 상처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

손책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장수 동습이 말했다. "제가 예전에 해적들과 싸우다 창에 여러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계의 현명한 관리인 우번이 의원 한 명을 추천해 주었는데, 보름 만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손책이 물었다. "그 우번이라는 이가 혹시 우중상인가?" "그렇습니다." 손책이 말했다. "그는 참으로 현명한 선비로구나. 내가 반드시 그를 등용해야겠다." 손책은 즉시 장소를 보내 동습과 함께 우번을 찾아가 정중히 모셔 오게 했다. 우번이 도착하자 손책은 지극한 예우로 그를 맞이하며 공조라는 직책을 맡겼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의원을 구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우번이 말했다. "그 사람은 패국 초군 사람으로, 성은 화요, 이름은 타라 하고 자는 원화입니다. 참으로 당대에 손꼽히는 신의입니다. 지금 바로 모셔 오겠습니다."

머지않아 화타가 도착했다. 손책이 그를 보자, 아이 같은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마치 속세를 벗어난 신선 같은 자태였다. 손책은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주태의 상처를 살펴달라고 청했다. 화타가 말했다.

"이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화타가 약을 처방해 주니 한 달 만에 상처가 다 나았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화타에게 두둑이 사례했다. 이어 군사를 일으켜 산적들을 소탕하니 강남 땅이 모두 평정되었다. 손책은 장수와 병사들을 나누어 각지의 요충지를 지키게 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보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조와 교류를 맺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원술에게 옥새를 돌려달라는 글을 보냈다.

한편, 원술은 마음속으로 황제를 칭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기에, 옥새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는 곧장 장사 양대장, 도독 장훈, 기령, 교유, 상장 뇌박, 진란 등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아 상의하며 말했다. "손책이 우리 군사를 빌려 일을 도모하더니, 이제 강동 땅을 모두 차지하자 근본을 잊고 도리어 옥새를 내놓으라 독촉하니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장사 양대장이 말했다. "손책은 장강의 험난한 지형을 등지고 있어 병사들도 정예이고 식량도 풍족하니, 지금 당장 그를 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유비를 먼저 공격하여 지난번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했던 원한을 갚은 뒤에 손책을 노려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계책을 하나 내놓겠는데, 유비를 당장 사로잡게 만들겠습니다." 강동의 호랑이와 표범을 치지는 못할망정, 서주로 내려와 교통과 싸우려 하다니. 과연 원술의 계책이 어떠한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6회 — 여봉선이 원문에서 극을 쏘고, 조맹덕이 육수에서 군사를 패하다

呂奉先射戟轅門 曹孟德敗師涪水

한편, 양대장이 유비를 공격할 계책을 내놓았다. 원술이 "그 계책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양대장이 대답했다. "유비의 군대가 소패에 주둔하고 있으니 정복하기는 쉬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여포가 서주를 호랑이처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포에게 금은보화와 식량, 말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아직 주지 않았으니, 혹시 여포가 유비를 도울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식량을 전달함으로써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포가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유비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비를 사로잡은 뒤에 여포를 도모한다면 서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술은 이 말이 매우 마음에 들어 즉시 곡식 20만 곡을 준비하게 하고, 한운을 보내 여포에게 밀서를 전하게 했다. 여포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한운을 정중히 대접했다. 한운이 돌아와 원술에게 보고하자, 원

술은 곧 기령을 대장으로 삼고 뇌부와 진란을 부장으로 삼아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소패를 공격하게 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 의논했다. 장비는 당장 나가 싸우겠다고 나섰으나, 손건이 말했다. "지금 소패는 식량도 부족하고 병력도 적은데, 어떻게 적을 막아내겠습니까? 우선 여포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장비가 투덜거렸다. "그자가 제 말로 오겠느냐!"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손건의 말이 옳다." 유비는 곧 바로 여포에게 보낼 구원 요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장군께서 평소 저를 아껴주신 덕분에, 지금 소패에 머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하늘 같은 은혜라 생각합니다. 지금 원술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 기령에게 군사를 주어 우리 현을 공격해 왔으니, 저희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위급한 처지입니다. 장군께서 아니시면 도저히 구할 길이 없사오니, 부디 군사를 이끌고 오셔서 이 절박한 위기를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포는 서신을 읽고 진궁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앞서 원술이 식량을 보내며 편지를 쓴 것은 나더러 유비를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비가 다시 구원을 요청해 오니 생각이 복잡하구나. 유비가 소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고는 하나, 그가 반드시 나를 해치려 하겠느냐? 만약 원술이 유비를 병합한다면, 원술은 북쪽으로 태산의 장수들과 손을 잡고 나를 노릴 것이니 내가 편히 잠들 수 없겠구나. 차라리 유비를 구하는 편이 낫겠다." 말을 마친 여포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길을 떠났다.

한편, 기령이 군사를 일으켜 거침없이 진격해 오더니, 이미 패현 동남쪽까지 이르러 진영을 차렸다. 낮에는 깃발이 산과 강을 뒤덮을 만큼 가득했고, 밤에는 북과 징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했다. 유비는 성 안에 겨우 오천여 명의 병사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고 막사를 세웠다. 이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1리 떨어진 서남쪽으로 내려와 진영을 구축했다는 내용이었다. 기령은 여포가 유비를 구하러 온 것을 알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여포에게 서신을 전하며 신의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여포는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원술과 유비 두 사람 모두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할 계책이 있다." 그러고는 사신을 보내 기령과 유비의 진영에 각각 전하며, 두 사람을 술자리에 초대했다.

유비는 여포가 자신을 돕겠다고 청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관우와 장비가 말렸다. "형님, 가시면 안 됩니다. 여포는 분명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내가 그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으니, 그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유비는 곧장 말을 타고 길을 나섰고, 관우와 장비도 그 뒤를 따랐다. 여포의 진영에 도착해 여포를 만나자 여포가 말했다. "내가 이번에 특별히 그대의 위기를 해결해 주려 하니, 훗날 뜻을 이루었을 때 나를 잊지 마시오." 유비가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포가 유비를 자리에 앉도록 권하자, 관우와 장비는 칼을 쥔 채 유비의 뒤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기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비는 크게 놀라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자 여포가 말했다. "나는 그저 두 사람과 회의를 하기 위해 당신을 청한 것이니, 의심하지 마시오."

유비는 여포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마음이 불안했다. 한편 기령은 말에서 내려 진영으로 들어오다가, 유비가 막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물러나려 했다. 곁에 있던 부하들이 붙잡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때 여포가 앞으로 나서서 기령을 마치 어린아이를 들어 올리듯 한 손으로 낚아채 붙잡았다.

기령이 물었다. "장군, 설마 나를 죽이려는 것이오?" 여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기령이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유비를 죽이려는 것이오?" 여포가 말했다. "그것도 아니오." 기령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이오?" 여포가 말했다. "유비와 나는 형제 사이인데, 지금 장군에게 곤경에 처해 있기에 구하러 온 것이오." 기령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겠다는 말이오?" 여포가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나는 평생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싸움을 말리는 것을 좋아하오. 내가 오늘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해결해 보겠소." 기령이 물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결할 셈이오?" 여포가 말했다.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의 뜻에 맡겨 결정할 것이오."

그러고는 기령을 끌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 유비와 만나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경계하며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으나, 여포가 가운데 앉고 기령을 왼쪽에, 유비를 오른쪽에 앉게 한 뒤 연회를 베풀어 술을 나누게 했다.

술자리가 몇 차례 돌아 여포가 말했다. "그대들 두 집안 모두 내 체면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 병을 거두시오."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기령이 말했다. "나는 주군(원술)의 명을 받들어 십만 대군을 이끌고 오직 유비를 잡으러 온 것이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소?" 장

비가 크게 화를 내며 칼을 뽑아 들고 호통을 쳤다. "우리 군사가 적다 하여 너희를 우습게 보는구나! 너희가 백만 황건적보다 낫단 말이나? 감히 내 형님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관우가 급히 장비를 말리며 말했다. "여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두고 보세. 그때 가서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싸워도 늦지 않네." 여포가 다시 말했다. "내가 그대들 두 집안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니, 결코 서로 죽이게 두지 않겠소."

한편, 기령은 분노하여 싸우려 하고 장비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싸움을 부추기자, 여포는 크게 화가 나 "좌우 군사들은 내 화극을 가져오너라!"라고 외치며 화극을 손에 들었다. 이를 본 기령과 유비는 모두 안색이 변했다. 여포가 말했다. "두 집안이 싸우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니, 내가 권하건대 싸움을 멈추시오." 여포는 부하들에게 화극을 건네받아 원문 밖 멀리 가서 꽂아 두게 한 뒤, 기령과 유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원문에서 중군까지의 거리는 백오십 보이다. 내가 화살을 쏘아 화극에 달린 작은 가지를 맞히면 두 집안은 모두 군사를 물리고 싸움을 멈추시오. 만약 맞히지 못한다면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싸움을 준비하시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힘을 합쳐 막아버릴 것이다." 기령은 속으로 '화극이 백오십 보나 떨어져 있는데 어찌 쉽게 맞히겠는가? 일단 승낙해 두었다가, 화살을 맞히지 못하면 그때 마음껏 싸워주마'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승낙했다. 유비 역시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여포는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다시 각자 술을 한 잔씩 마시게 했다.

술자리가 끝났다. 여포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유비는 속으로 '제발 화살이 명중하기만을!'이라며 간절히 빌었다. 여포가 소매를 걷어붙

이고 화살을 메운 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며 "쌈!" 하고 외쳤다. 그 기세는 마치 가을 달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유성이 땅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화살은 정확히 화극의 작은 가지를 꿰뚫었다. 장막 안팎의 장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찬양했다.

"여포의 신기한 활솜씨 세상에 드물구나, 원문에서 홀로 위기를 해결하였네. 지는 해가 과연 후예보다 뛰어나고, 원숭이 울음소리가 유기보다 낫다 하겠네. 호랑이 같은 활시위 울리며 활이 열리고, 독수리 깃털 휘날리며 화살이 날아갈 때, 표범 꼬리 같은 화살이 화극을 뚫으니, 십만 대군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났도다."

여포가 화극의 작은 가지를 화살로 맞히자, 호탕하게 웃으며 활을 땅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기령과 유비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집안의 전쟁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모두가 큰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마시게 했다. 유비는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기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여포에게 말했다. "장군님의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만, 제가 돌아갔을 때 주군께서 저를 어떻게 믿어주시겠습니까?" 여포가 대답했다.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면 될 일ियो." 술을 몇 차례 더 나누어 마신 뒤, 기령은 편지를 받기 위해 먼저 돌아가겠다고 청했다. 여포가 유비에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공은 큰 위기에 처했을 것ियो." 유비는 거듭 감사를 표하며 관우, 장비와 함께 돌아갔다. 이튿날, 세 진영의 군마는 모두 흠어졌다.

원술은 그 말을 따르고, 즉시 한운을 중매인으로 삼아 예물을 챙겨 서주로 보내 혼인을 청하게 했다. (직전 단락 기령의 말 교정) 기령이 만류하며 말했다. "주군,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포는 용맹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서주라는 땅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포와 유비가 서로 앞뒤를 받쳐주며 협력한다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여포의 아내 엄씨에게 이미 혼기를 맞이한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주군께도 아드님이 있으니, 사람을 보내 여포에게 혼담을 넣어보십시오. 여포가 딸을 주군께 시집보낸다면 반드시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먼 사이는 가까운 사이를 이간하지 못한다는 '소불간친(疏不間親)'의 계책'입니다."

원술은 그 말을 따르고, 즉시 한운을 중매인으로 삼아 예물을 챙겨 서주로 보내 혼인을 청하게 했다. 한운이 서주에 도착해 여포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주공께서 장군을 흠모하여 장군의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해 영원히 사돈의 인연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포는 안으로 들어가 아내 엄씨에게 이 일을 상의했다. 원래 여포에게는 두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첩이 있었다. 먼저 엄씨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했고, 나중에 초선을 첩으로 들였다. 그러다 소패에 머물 때 조표의 딸을 후처로 맞이했다. 조씨는 먼저 죽어 자식이 없었고 초선 역시 자식이 없었으나, 오직 엄씨만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여포가 그녀를 가장 아꼈다.

이때 엄씨가 여포에게 말했다. "내가 듣기로 원술은 오랫동안 회남 땅을 다스리며 병사도 많고 식량도 풍족하여, 머지않아 천자가 될 인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대업을 이룬다면 우리 딸이 황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에게 아들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여포가 대

답했다. "아들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장 혼인을 허락해야 합니다. 설령 황후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서주는 걱정할 일이 없어질 테니까요." 여포는 이 말에 마음을 굳히고 한운을 정중히 대접하며 혼인을 약속했다. 한운이 돌아가 원술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원술은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한운을 통해 서주로 보냈다. 여포는 예물을 받은 뒤 잔치를 베풀어 그를 대접하고, 관역에 머물며 쉬게 했다.

다음 날, 진궁은 관역에 있는 한운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진궁은 곁에 있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한운에게 물었다. "누가 이런 계책을 냈습니까? 원술과 여포가 혼인하게 하여 유비의 목을 취하려는 속셈입니까?" 한운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다. "부디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궁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입을 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이 늦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들통나서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울 뿐입니다." 한운이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진궁이 대답했다. "제가 여포를 만나서, 그가 즉시 딸을 보내 혼례를 치르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운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원술께서도 당신의 밝은 지혜에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진궁은 한운과 작별하고 여포를 찾아가 말했다. "공의 따님을 원술에게 시집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혼례를 치를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여포가 대답했다. "아직 천천히 의논해 볼 생각이다." 진궁이 다시 말했다. "옛 법도를 보면 혼인을 약속한 날부터 실제 혼례를 치르기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천

자는 1년, 제후는 반년, 대부는 한 계절, 평민은 한 달입니다." 여포가 물었다. "원술은 하늘이 내린 보배로운 인물이니 조만간 황제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 천자의 예법에 따라 1년 안에 치르는 것은 어떻겠느냐?" 진궁이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여포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제후의 예법에 따라 반년 안에 하는 것은 어떠냐?" 진궁이 말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포가 말했다. "그렇다면 경(卿)인 대부의 예법에 따라 한 계절 안에 하는 것은 어떠냐?" 진궁이 말했다. "그것 역시 안 됩니다." 여포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설마 내가 평민의 예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치르기를 바라는 것이냐?" 진궁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포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대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진궁이 말했다. "지금 천하의 제후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장군께서 원술과 혼인을 맺으시면, 다른 제후들이 시기하여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요? 만약 혼인 날짜를 고르느라 시간을 너무 끌다가는, 오히려 원술이 좋은 때를 틈타 길목에 복병을 매복시켜 장군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혼인을 약속하셨으니, 다른 제후들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딸을 수춘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단 따로 머물 곳을 마련해 둔 뒤에 나중에 길일을 잡아 혼례를 치른다면 결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포가 기뻐하며 말했다. "진궁의 말이 참으로 옳소."

여포는 즉시 엄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밤을 새워 혼례에 쓸 장신구와 예물을 준비하고, 보배로운 말과 화려한 수레를 꾸렸다.

이어 송헌과 위숙에게 한윤과 함께 딸을 데리고 가도록 명했다. 북소리와 악기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렬은 성 밖으로 나아갔다.

한편, 진등의 아버지 진규는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음악 소리를 듣고 좌우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사람들이 사정을 설명하자 진규가 말했다. "이것은 먼 사이는 가까운 사이를 이간하지 못한다는 '소불간친의 계책'이로구나. 유비가 위험해지겠어." 말을 마친 진규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여포를 만나러 갔다. 여포가 물었다. "어르신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진규가 대답했다. "장군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왔소." 여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규가 말했다. "지난번 원술은 금과 비단을 보내어 유비를 죽이려 했으나, 주군께서 화극을 쏘아 맞히는 기개로 그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술이 갑자기 혼인을 청해온 것은, 아마도 주군의 따님을 인질로 삼아 유비를 공격하고 소패를 차지하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소패가 무너지면 서주 또한 위태로워집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식량을 빌려달라거나 병력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군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쉴 새 없이 그들을 뒤쫓아 다니며 힘만 빼고 원수만 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요구를 거절하신다면, 친족을 버리고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꼴이 됩니다. 하물며 원술은 이미 황제를 칭하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그가 반역을 일으킨다면 주군께서는 반역자의 친척이

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천하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포는 깜짝 놀라며 "진궁이 나를 망쳤구나!"라고 외치고는, 급히 장료에게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료는 30리 밖에서 여포의 딸을 다시 데려왔고, 한인까지 잡아와 가두어 버린 뒤 풀어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딸의 혼수 준비가 아직 다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겠다"라고만 답하게 했다.

한편, 진궁이 여포에게 말하며 한인을 풀어 허도로 보내라고 권했지만, 여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때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유비가 소패에서 군사를 모집하며 말을 사고 있는데,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여포가 말했다. "장수가 군사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헌과 위숙이 여포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저희 둘이 주군의 명을 받들어 산동으로 가서 말들을 사 왔습니다. 좋은 말 삼백여 필을 구해 돌아오던 중, 패현 경계에서 강도들에게 절반이나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 유비의 동생 장비가 산적 흉내를 내며 말을 약탈해 간 것이라고 합니다." 여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 장비를 치러 소패로 향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황급히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갔다.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 대치한 가운데, 유비가 말을 타고 나가 물었다. "형님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포가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내가 원문사극의 계책으로 화극을 쏘아 네 큰 재난을 구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내 말들을 빼앗아 간 것이냐?"

유비가 대답했다. "제가 말이 부족하여 사람을 시켜 사방에서 사들 이게 했습니다. 어찌 감히 형님의 말을 빼앗았겠습니까?"

여포가 말했다. "네가 장비를 시켜 내 좋은 말 백선 마리를 빼앗아가 놓고도 아직 발뺌을 하는구나!"

그러자 장비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나가며 외쳤다. "내가 네 좋은 말을 빼앗은 것이 맞다! 이제 어쩔 셈이냐?"

여포가 욕을 하며 소리쳤다. "눈이 뱅뱅 돌아간 도둑놈 같으니! 네놈이 몇 번이나 나를 무시하느냐!"

장비가 맞받아쳤다. "네 말 몇 마리 빼앗은 것으로 이리 화를 내다니, 우리 형님의 서주를 통째로 빼앗아 간 것은 말도 안 꺼내는 모양이구나!"

여포가 창을 내뺌으며 말을 달려 장비와 맞붙자, 장비 역시 창을 들고 맞서 나갔다. 두 사람이 백 합 넘게 격렬하게 싸웠으나 승패는 나지 않았다. 유비는 혹시라도 실수가 생길까 두려워 서둘러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고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자 여포는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성을 에워쌌다. 유비가 장비를 불러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그 사람의 말을 빼앗는 바람에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들은 어디에 있느냐?" 장비가 대답했다. "모두 각 사찰에 맡겨 두었습니다."

유비는 즉시 사람을 성 밖으로 보내 여포의 진영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며, 말을 돌려줄 테니 서로 전쟁을 그만두자고 청했다. 여포도 그 제안을 따르려 했다. 그때 진궁이 말했다. "지금 유비를 죽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포는 그 말을 듣고도 요청을 따르지 않은 채 성을 공격하는 기세만 더욱 높였다. 유비는 미축, 손건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손건이 말했다. "조조가 원망하는 대상은 여포입니다. 차라리 성을 버리고 허도로 달려가 조조에게 의탁하십시오. 조조의 군대를 빌려 여포를 격파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누가 앞장서서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나섰다. "제가 앞장서서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앞세우고 관우를 뒤에 세운 뒤, 자신은 중간에 자리하여 노약자들을 보호하며 나아갔다. 그날 밤 삼경이 되자, 달빛이 밝은 틈을 타 북문으로 탈출했다. 마침 송헌과 위숙이 가로막았으나, 장비가 몰아붙여 그들을 물리치고 포위망을 벗어났다. 뒤이어 장료가 쫓아왔으나 관우가 맞서 막아냈다. 여포는 유비가 도망친 것을 보고도 굳이 뒤쫓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성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고순에게 소패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서주로 돌아갔다.

한편, 유비는 서둘러 허도로 달려가 성 밖에 진을 쳤다. 먼저 손건을 조조에게 보내, 여포에게 쫓기고 있으니 부디 몸을 의탁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조조가 말했다. "유비는 나와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곧장 유비를 성 안으로 불러들여 만났다. 다음 날,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성 밖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손건, 미축과 함께 조조를 찾아갔다. 조조는 유비를 귀한 손님처럼 정중히 대접했다. 유비가

여포에게 쫓기게 된 사정을 상세히 털어놓자 조조가 말했다. "여포는 의리가 없는 자이니, 내가 현재와 힘을 합쳐 그를 반드시 처단하겠소." 유비가 거듭 감사를 표했다. 조조는 연회를 베풀어 유비를 대접하고 밤늦게서야 배웅했다. 이때 순욱이 들어와 조조에게 말했다. "유비는 영웅입니다. 지금 미리 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조조가 대답하지 않자 순욱이 물러가고 곽가가 들어왔다. 조조가 물었다. "순욱이 나에게 유비를 죽이라고 권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곽가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주공께서는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을 몰아내고 계시니, 오직 신의를 바탕으로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인재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실 정도인데, 하물며 유비는 평소부터 영웅이라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궁핍한 처지에 놓여 주공께 의탁하러 왔는데, 만약 그를 죽인다면 이는 현명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천하의 지략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앞으로 누구도 주공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공께서는 누구와 함께 천하를 평정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근심을 없애려다 온 세상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위태로운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내 마음과 딱 맞는구려." 다음 날, 조조는 즉시 유비를 예주목으로 임명한다는 표문을 올렸다. 그러자 정욱이 간언했다. "유비는 결국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 차라리 일찍 손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지금 은 영웅을 등용해야 할 때라오. 단 한 사람을 죽인다는 이유로 천하 사

람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오. 이 점은 꼭가도 나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조조는 결국 정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병사 삼천 명과 군량 만 석을 보내 유비가 예주로 가서 부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소패에 진을 친 뒤, 흩어져 있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여포를 공격했다. 유비는 예주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내 조조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조조는 막 군사를 일으켜 여포를 치러 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장제가 관중에서 군사를 이끌고 남양을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장제의 조카인 장수는 그 군대를 이어받아 가후를 책사로 삼고 유표와 손을 잡은 뒤, 완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조조의 근거지를 공격해 황제를 찬탈하려 꾀하고 있었다. 조조는 크게 분노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치려 했으나, 한편으로는 여포가 허도를 공격해올까 두려워 순욱에게 계책을 물었다.

순욱이 말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포는 머리가 나쁜 자라 눈앞의 이익만 보이면 좋아할 것입니다. 주공께서 사신을 서주로 보내 관직과 상을 내리며 유비와 화친하라고 명하십시오. 여포가 그 이익에 기빠하면 먼 곳까지 도모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가 "좋소"라고 답했다. 이에 곧바로 봉군도위 왕척에게 관직 임명장과 화친 서신을 들려 서주로 보냈다. 그러면서 동시에 50만 대군을 일으켜 장수를 직접 토벌하러 나섰다.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는데, 하후돈을 선봉으로 삼았다. 군마가 유수 근처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가후가 장수를 설득하며 말했다. "조조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니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성을 내어주고 항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수는 가후의 말을 따랐고, 가후를 조조의 진영으로 보내 화친의 뜻을 전하게 했다. 조조는 가후가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를 매우 아껴 책사로 삼고 싶어 했다. 그러자 가후가 말했다. "저는 예전에 이각을 따르다 천하의 원망을 샀습니다. 지금은 장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제 계책을 따라 주니 차마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사양하며 물러났다. 다음 날 가후가 장수를 데리고 조조를 찾아가자, 조조는 그들을 매우 극진히 대접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완성에 진을 쳤는데, 나머지 군사들은 성 밖에 나누어 주둔시키며 진영을 십여 리에 걸쳐 연결했다. 조조의 군대가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 장수는 매일 연회를 베풀어 조조를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술에 취해 침소로 물러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물었다. "이 성 안에 기녀가 있느냐?" 조조의 조카인 조안민은 조조의 의중을 알아채고는 몰래 대답했다. "어젯밤 제가 숙소 옆을 살피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장수의 숙부인 장제의 아내라고 합니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안민에게 갑병 십 명을 거느리고 가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안민이 그녀를 군영으로 데려왔다. 조조가 보니 과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조조가 이름을 물으니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장제의 아내 추씨라고 합니다." 조조가 물었다. "부인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추씨가 말했다. "승상의 위명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오늘 밤 이렇게 뵈게 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부인을 위해 특별히 장수의 항복을 받아준 것이니, 그렇지 않았

다면 장수의 일족은 모두 멸망했을 것ियो." 추씨가 절하며 말했다.
"다시 살아난 은혜를 진심으로 느낍니다." 조조가 말했다. "오늘 부인을 만난 것은 하늘이 준 행운이구려. 오늘 밤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며, 나를 따라 도성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어떻겠소?"

추씨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막사에서 묵었다. 추씨가 말했다. "성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반드시 의심을 살 것이고, 외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일은 부인과 함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지냅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 밖으로 자리를 옮겨 쉬기로 하고, 전위를 불러 중군 막사 밖에서 호위하게 했다.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여 안팎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다. 조조는 매일 추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돌아갈 기약조차 잊고 있었다. 한편, 장수의 가족이 추씨의 행동을 몰래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수는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조조 저 도둑놈이 나를 너무나 모욕하는구나!" 그러고는 즉시 가후를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가후가 말했다. "이 일은 절대로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 조조가 회의를 하러 막사 밖으로 나오면, 다음과 같이 합시다."

다음 날, 조조가 막사에 있을 때 장수가 들어와 보고했다. "새로 항복한 병사들 중에 도망치는 자가 많으니, 중군을 옮겨 배치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조조가 이를 허락하자, 장수는 군대를 옮겨 네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배치한 뒤 거사를 치를 날짜를 정했다. 장수는 전위가 워낙 용맹하여 가까이 다가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부장인 호차아와 상의했다. 호차아는 혼자서 오백 근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에 칠

백 리를 달릴 만큼 비범한 인물이었다. 호차아가 장수에게 계책을 올렸다. "전위가 무서운 이유는 그가 든 쌍철극 때문입니다. 주군께서 내일 그를 불러 술을 대접하여 잔뜩 취해 돌아가게 만드십시오. 그때 제가 그의 부하들 틈에 섞여 들어가 막사로 몰래 침입한 뒤, 그의 철극을 훔쳐버린다면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는 매우 기뻐하며 미리 화살과 갑옷, 병기를 준비하라고 각 진영에 공고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가후를 보내 전위를 자기 진영으로 초대하게 했고, 정성껏 술을 대접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갈 때, 호차아는 다른 병사들 틈에 섞여 대장막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날 밤 조조는 막사 안에서 장수의 여인인 추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막사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자 조조가 사람을 보내 살펴 보게 했다. 보고하기를 장수의 군대가 밤 순찰을 도는 것이라 하여 조조는 의심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 이경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진영 뒤쪽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보고하기를 짚을 쌓아 만든 수레에 불이 났다고 했다. 조조가 말했다. "군중에 불이 났으니, 절대 동요하지 마라."

순식간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자, 조조는 당황하여 급히 전위를 불렀다. 전위는 막 술에 취해 잠든 참이었는데, 꿈결에 북소리와 징소리, 그리고 함성 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급히 찾으니 쌍극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이미 적군이 진영 문앞까지 들이닥쳐 있었기에, 전위는 급히 보병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뽑아 들었다.

문 앞에는 수많은 군마가 긴 창을 앞세운 채 진영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전위는 힘껏 앞으로 나아가 스무 명 남짓한 적을 베어 넘겼다. 적의 기병이 막 물러가자 이번에는 보병들이 밀려들었는데, 양옆

으로 늘어선 창들이 마치 갈대밭처럼 뻗뻗했다. 갑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전위는 수십 차례 창에 찔리면서도 끝까지 죽기로 싸웠다. 칼날이 이가 빠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전위는 아예 칼을 버리고 두 손으로 적병을 움켜쥐고 맞서며 여덟아홉 명을 더 격살했다.

적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화살을 퍼부었다.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으나 전위는 죽음을 불사하며 진영 문을 지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군이 이미 진영 뒤쪽으로 침입해 들어왔고, 전위는 등 뒤에 창을 한 대 맞고는 크게 몇 번 비명을 질렀다. 그는 피를 땅에 뿌리며 쓰러져 죽고 말았다. 전위가 죽고 한참이 지나도록, 정문으로 감히 들어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편, 조조는 전위가 성문을 지키는 사이 성 뒤편으로 빠져나와 말을 타고 급히 도망쳤다. 조안민만이 그 뒤를 따랐는데, 조조는 오른쪽 팔에 화살 한 대를 맞았고 말에도 화살 세 대가 박혔다. 다행히 그 말이 대원에서 온 명마였기에, 고통을 참아내며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

겨우 유수하 강변에 다다랐을 때 적병들이 뒤쫓아왔고, 조안민은 칼에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조조는 급히 말을 몰아 적의 파도를 뚫고 강을 건넜다. 겨우 강가에 올라섰을 때, 적병이 쏜 화살 한 대가 말의 눈에 정통으로 박히는 바람에 말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다. 이때 조조의 장남 조앙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조조에게 바치며 조조를 말에 태워 보냈다. 조조는 말을 타고 급히 달아났으나, 조앙은 쏘아지는 화살 세례를 맞고 죽고 말았다. 조조는

그제야 간신히 도망쳐 나와 길에서 장수들을 만나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았다.

한편, 하후돈이 거느린 청주병들이 기세를 몰아 마을로 내려가 백성들의 집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평로교위 우금이 즉시 자기 부대를 이끌고 길목에서 이들을 토벌하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청주병들이 패하여 물러나자, 그들은 조조를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그들은 우금이 반란을 일으켜 청주병들을 몰살하려 한다고 고했다. 조조가 크게 놀라자, 곧 하후돈과 허저, 이진, 악진이 모두 달려왔다. 조조가 우금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군사를 정비하여 맞서 싸우자고 말하자, 이들은 모두 응했다.

한편, 우금이 조조 일행이 모두 도착한 것을 보고는 군대를 이끌어 진영의 모서리에 멈춰 세운 뒤, 참호를 파고 진을 쳤다.

"청주군 사람들이 장군께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지금 승상께서 이미 도착하셨는데, 어찌하여 해명부터 하지 않고 먼저 진영부터 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우금이 말했다. "지금 적의 추격군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곧 들이닥칠 것이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어떻게 적을 막아내겠느냐? 해명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적을 물리치는 것은 큰일이다."

진영을 다 구축하자마자 장수가 두 갈래 길로 군사를 몰아 공격해 왔다. 우금이 앞장서서 진영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자, 장수가 급히 군사를 물렸다. 곁에 있던 장수들도 우금이 앞장서는 것을 보고 각자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나가니, 장수의 군대는 대패하여 백여 리를 쫓겨

달아났다. 장수는 세력과 힘이 다해 패잔병을 이끌고 유표에게로 도망쳤다.

조조가 군대를 거두어 장수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우금이 들어와 보고했다. 우금은 청주병들이 제멋대로 약탈을 일삼아 백성들의 신망을 크게 잃었기에, 자신이 그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조조가 물었다.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먼저 진영을 치고 군사를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금이 앞서 말한 이유를 대며 설명했다. 조조가 말했다. "장군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군사를 정비하고 성채를 튼튼히 쌓았으며, 비난과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패배할 뻔한 상황을 승리로 바꾸어 놓았으니, 옛날의 명장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나을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고는 우금에게 금제 장식품을 하사하고 익수정후로 봉했다. 한편, 군기를 엄격히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하후돈을 꾸짖었다. 또한 제사를 지내며 전위를 기렸다. 조조는 직접 눈물을 흘리며 전위를 위해 제를 올린 뒤,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 장남과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을 때도 이토록 슬프지는 않았는데, 오직 전위를 위해서는 이토록 통곡하는구나." 장수들은 모두 감탄하며 탄식했다. 다음 날, 조조는 군대를 돌려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간 사이의 이야기이다. 왕즉이 조서를 가지고 서주로 오자, 여포는 그를 맞이하여 부중으로 모신 뒤 조서를 낭독했다. 조서에는 여포를 평동장군으로 봉하고 인장과 끈을 특별히 내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조조가 보낸 개인적인 편지도 함께 전달되었다. 왕즉은 여포 앞에서 조조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극찬했고, 여포는 이를 매우 기뻐했다.

그때 갑자기 원술이 사람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포가 그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묻자,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원술님께서 머지않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동궁을 세울 예정이니, 황비가 될 분께서 조속히 회남으로 오시기를 재촉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포는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반역자가 감히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나!" 여포는 즉시 사신을 죽이고, 한인을 잡아다가 칼로 목을 박는 형벌을 내렸다. 그러고는 진등을 보내 사죄의 표를 전하게 하는 한편, 한인을 데리고 왕족을 따라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은혜에 감사하도록 했다. 또한 조조에게 답장을 보내 서주목의 직위를 실제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조는 여포가 원술과의 혼사를 무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원술의 부하 한인을 시장에서 처형했다. 이때 진등이 조조를 은밀히 찾아가 간언했다.

"여포는 굶주린 이리와 같은 자입니다. 용맹하기만 할 뿐 지략이 없고, 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가벼워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속히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나도 평소 여포가 늑대 같은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래 길러주기 어렵다고 생각했소. 진등 공처럼 여포의 속내를 잘 아는 이가 없으니, 공이 나와 함께 그를 대책을 세워주시오."

진등이 말했다.

"승상께서 만약 움직이신다면, 제가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진규에게 치중이천석의 관직을 내리고, 진등을 광릉 태수로 임명하는 표를 올렸다. 진등이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가려 하자, 조조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동쪽의 일은 이제 공에게 모두 맡기겠소."

진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고는 서주로 돌아가 여포를 만났다. 여포가 이유를 묻자, 진등은 "아버님께서 녹봉을 내려주셔서 제가 태수가 되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너는 나를 위해 서주목 자리를 구해오지는 못할망정, 제멋대로 작위와 녹봉을 챙기려 드느냐! 네 아버지는 나에게 조조와 협력하고 원술과의 혼사를 끊으라고 가르치더니, 정작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너희 부자는 각자 귀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 부자에게 팔려 간 꼴이 아니냐!" 말을 마친 여포는 칼을 뽑아 들고 진등을 베려 했다. 진등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어찌 이리도 사리에 어두우십니까!" 여포가 되물었다.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말이나?" 진등이 대답했다. "제가 조조를 뵈었을 때, 장군을 기르는 것은 호랑이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고기로 배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불리 먹이지 않으면 호랑이는 결국 사람을 물게 되는 법입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과는 다르오. 나는 여포를 대하는 것이 마치 매를 기르는 것과 같소. 여우와 토끼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한 감히 먼저 배불리 먹이지 않소. 배가 고파야 쓸모가 있고, 배가 부르면 멀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오." 진등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여우와 토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조가 답했

다. "회남의 원술, 강동의 손책, 기주의 원소, 형주의 유표, 익주의 유장, 한중의 장로가 모두 여우와 토끼라오." 여포는 칼을 던지며 웃으며 말했다. "조조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원술의 군대가 서주를 치러 왔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여포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화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우듯, 혼사가 불러온 화근이 결국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결국 상황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7회 — 원공로가 칠군을 크게 일으키고, 조맹덕이 세 장수와 합류하다

袁公路大起七軍 曹孟德會合三將

한편, 원술은 회남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땅이 넓고 식량도 풍부한 데다 손책이 맡겨둔 옥새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에 원술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생각을 품었다. 그는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회의를 열고 말했다.

"옛날 한나라 고조는 사수 지역의 작은 정장(亭長)에 불과했으나 천하를 얻었다. 이제 한나라가 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천명은 다했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다. 우리 가문은 4대에 걸쳐 삼공(三公)을 배출했으니 백성들이 의지할 만하다. 나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주부 염상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옛날 주나라의 후직은 덕을 쌓고 공을 세웠고, 그 후손인 문왕에 이르러 천하의 셋 중 둘을 차지하고도 여전히 은나라를 섬겼습니다. 명공의 가문이 비록 귀하다 하나 주나라의 번영에는 미치지 못하며, 한나라 황실이 비록 미약하다 하나 은나라 주왕의 폭정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술이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우리 원씨 가문은 진(陳)나라에서 나왔다. 진나라는 순임금의 후손이니, 흙의 기운으로 불의 기운을 잇는 것이 바로 천명의 흐름에 부합한다. 또한 예언에도 '한나라를 대신할 자는 길에 우뚝 선 높은 자(當塗高)다'라고 하였다. 내 자가 공로(公路), 곧 '큰길'을 뜻하니 이는 바로 그 예언과 딱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내게는 전국의 옥새까지 있으니, 만약 내가 임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토를 다는 자는 모두 베겠다!"

원술은 마침내 중씨(仲氏)라는 연호를 세우고 태성 등의 관직을 만들었다. 용과 봉황이 장식된 화려한 수레를 타고 남북의 교외에 제사를 지냈으며, 풍방의 딸을 황후로 세우고 아들을 동궁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여포의 딸을 동궁의 비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여포가 이미 한운을 붙잡아 허도로 압송했고, 그 한운이 조조에게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원술은 크게 분노했다.

원술은 즉시 장훈을 대장군으로 삼아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게 하고,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서주를 정벌하게 했다. 첫 번째 길의 대장은 장훈이 중앙을 맡았고, 두 번째 길의 좌장에는 교유가, 세 번

째 길의 우장에는 진기가 배치되었다. 네 번째 길의 부장은 좌측의 뇌박이, 다섯 번째 길의 부장은 우측의 진란이 맡았으며, 여섯 번째 길은 항복한 장수 한겸이 좌측을, 일곱 번째 길은 항복한 장수 양봉이 우측을 맡았다. 각 길의 장수들은 부하 용장들을 거느리고 정해진 날짜에 출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주자사 금상을 태위로 임명하여 일곱 갈래 군대의 군량과 자금을 감독하게 했으나, 금상이 이를 거절하자 원술은 그를 죽였다. 대신 기령을 일곱 길 군대의 구원 사령관으로 삼았다. 원술은 스스로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섰으며, 이풍, 양강, 낙취를 출정 독려 사절로 보내 일곱 갈래의 군사들을 지원하게 했다.

여포가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하니, 장훈의 군대는 큰길을 따라 곧장 서주로 향하고, 교유의 군대는 소패로, 진기의 군대는 기도로, 뇌박의 군대는 낭야로, 진란의 군대는 갈석으로, 한겸의 군대는 하비로, 양봉의 군대는 준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일곱 갈래의 군대는 하루에 50리씩 나아가며 길목의 물자를 약탈하고 있었기에, 여포는 급히 모사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진궁과 진규 부자가 함께 찾아왔다. 진궁이 말했다.

"서주에 닥친 이 재앙은 모두 진규 부자가 불러온 것입니다. 그들이 조정에 아첨하며 작위와 녹봉을 구하려다 오늘 장군께 화를 넘겼으니,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원술에게 바친다면 그 군대도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여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진규와 진등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진등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리도 겁이 많으십니까? 제가 보니 저 일곱 길의 군대는 그저 썩은 풀더미와 같아서, 전혀 신경 쓸 가치도 없습니다!"

여포가 말했다. "네게 만약 적을 물리칠 계책이 있다면, 네 죽을 죄를 면해주겠다."

진등이 대답했다. "장군께서 만약 저의 어리석은 말을 들어주신다면, 서주는 아무 탈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포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아라."

진등이 말했다. "적의 병사가 비록 많다 하나 모두 오합지졸이며, 평소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정병으로 수비하고 기습 부대로 승부를 본다면 성공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계책이 더 있는데, 서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원술까지 생포할 수 있습니다."

여포가 물었다. "그 계책이 무엇이나?"

진등이 말했다. "한검과 양봉은 한나라의 옛 신하들입니다. 조조가 두려워 도망쳐 나온 처지라 의지할 곳이 없어 잠시 원술에게 몸을 맡긴 것뿐입니다. 원술은 분명 그들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그들 또한 원술을 위해 기꺼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신을 보내 그들을

내응하게 하고, 유비와 연합하여 밖에서 압박한다면 반드시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포가 말했다. "네가 직접 한검과 양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신을 전해야겠다."

진등이 이에 응낙했다.

여포는 허도에 소식을 보내고 예주에도 서신을 보낸 뒤, 진등에게 기병 몇 기를 이끌고 하비로 가는 길목에서 한검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한검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진영을 갖추자, 진등이 그를 찾아가 만났다.

한검이 물었다. "그대는 여포의 사람이면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는가?"

진등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한나라의 공경(公卿)으로서 말하는 것이니, 어찌 여포의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장군께서는 본래 한나라의 신하였으나, 지금은 반역자의 신하가 되셨으니 예전에 관중에서 황제를 보유했던 공적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장군께서 이를 취하지 않으신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원술은 성격이 의심이 많으니, 장군께서는 머지않아 그에게 해를 입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일찍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검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한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길이 없어 한탄할 뿐이오."

그러자 진등이 여포의 서신을 꺼내 보여주었다. 한검은 서신을 다 읽고는 말했다. "이제 알겠소.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나와 양봉 장군이 반기를 들어 그들을 공격하겠습니다. 다만 불길치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을 테니, 여포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응응해 주시면 되겠소."

한검이 말을 타고 달려가 여포에게 급히 보고했다. 여포는 즉시 군사를 다섯 갈래로 나누었다. 고순이 한 군을 이끌고 소패로 진격하여 교유를 상대하게 했고, 진궁이 한 군을 이끌고 기도로 진격하여 진기를 상대하게 했으며, 장료와 장패가 한 군을 이끌고 낭야로 나가 뇌박을 상대하게 했다. 송헌과 위숙이 한 군을 이끌고 갈석으로 나가 진란을 상대하게 했고, 여포는 직접 한 군을 이끌고 큰길로 나가 장훈을 상대하기로 했다. 각 부대는 만 명씩 거느렸으며, 나머지는 성을 지키게 했다. 여포는 성을 나와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장훈의 군대가 도착했으나, 장훈은 여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 짐작하고 20리 뒤로 물러나 진을 친 채 사방에서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2경(밤 10시~자정 사이) 무렵, 한검과 양봉이 병력을 나누어 곳곳에 불을 지르며 여포의 군대가 진영으로 들어오도록 호응했다. 장훈의 군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여포는 이 기세를 몰아 몰아붙여 장훈을 패퇴시켰다. 여포가 밤새도록 추격하여 날이 밝았을 때, 마침 기령의 지원군과 맞닥뜨렸다. 양쪽 군대가 서로 맞붙어 싸우려던 찰나, 한검과 양봉이 이끄는 두 갈래의 군대가 습격해 왔다. 기령은 대패하여 달아났고,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뒤쫓던 중 산 너머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났다. 깃발을 펼쳐 보니 용과 봉황, 해와 달이 그려진 깃발과 사두오방(四斗五方)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으며, 금빛

과(金瓜)와 은 도끼, 누런 도끼(黃鉞)와 흰 소꼬리 깃발(白旄)이 늘어서 있었다. 금실로 수놓은 누런 비단 일산(日傘) 아래, 금갑옷을 입고 양 옆구리에 두 자루 칼을 찬 원술이 진영 앞에 서서 여포를 향해 크게 꾸짖었다.

"주인을 배신한 종놈 같으니라고!"

여포가 분노하여 창을 치켜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원술의 장수 이풍이 창을 들고 맞서 나갔으나,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여포의 창에 손을 찔려 상처를 입고는 창을 내던진 채 도망쳤다. 여포가 휘두르는 병사들이 거세게 몰아치며 공격하자 원술의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졌다.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뒤쫓으며 말과 갑옷 등 수많은 물자를 빼앗았다. 원술이 패잔병을 이끌고 몇 리도 채 가지 못했을 때, 산등성이 너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장수는 바로 관우였다. 관우가 크게 외쳤다.

"반역자 놈아! 어찌 아직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원술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고, 남은 병사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느라 관우에게 큰 화를 입었다. 원술은 겨우 패잔병을 수습하여 회남으로 도망쳐 돌아갔다.

여포가 승리를 거둔 후, 관우와 양봉, 한겸 등 일행을 서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대접했다. 군사들에게도 모두 포상을 내렸다. 이튿날 관우가 작별을 고하고 떠나자, 여포는 한겸을 기도로 임명하고 양봉을 낭야의 목으로 삼았다. 여포는 이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게 할까 고민하며 상의했다.

그러자 진규가 말했다. "안 됩니다. 한겸과 양봉 두 사람은 산동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산동의 성곽들이 모두 장군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포가 그 말에 동의하여, 두 장수를 일단 기도와 낭야 두 곳에 머물게 하며 은혜로운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진등이 아버지에게 은밀히 물었다. "어찌하여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게 하여 여포의 뿌리를 뽑지 않으셨습니까?"

진규가 대답했다. "만약 두 사람이 여포를 돕게 된다면, 도리어 호랑이에게 발톱을 달아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진등은 그제야 아버지의 높은 식견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원술은 패하여 회남으로 도망친 뒤, 사람을 강동으로 보내 손책에게 군사를 빌려 복수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손책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네놈이 감히 나의 옥새를 빌미 삼아 황제를 참칭하고 한나라를 배반했으니, 이는 천하를 거스르는 대역죄다! 나는 이제 막 군사를 일으켜 네 죄를 물으려 하는데, 어찌 반역자를 돕겠느냐?"라며 절교를 선언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 사자가 돌아와 글을 전하자 원술은 그것을 읽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다. "철부지 어린놈이 감히 나에게 이따위로 대하다니! 당장 군사를 일으켜 저놈을 치겠다!" 그러자 장사 양대장이 간곡히 만류한 끝에 겨우 그만둘 수 있었다.

한편, 손책은 편지를 보낸 뒤 원술의 군대가 들이닥칠 것에 대비해 군사를 배치하고 강 어귀를 지켰다. 그러던 중 조조의 사신이 찾아와 손책을 회계 태수로 임명하며, 군사를 일으켜 원술을 토벌하라는 명을

전했다. 손책은 이를 두고 의논한 끝에 곧바로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그러자 장사 장소가 말했다. "원술이 비록 이번에 패하긴 했으나, 여전히 병력이 많고 식량도 넉넉하니 가볍게 적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남쪽으로 내려와 공격하도록 권하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쪽 군대가 서로 도우면 원술의 군대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조조가 구원해 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손책은 이 말을 따랐고, 사신을 보내 조조에게 이 뜻을 전달했다.

한편, 조조가 허도에 이르러 전위를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내고, 그의 아들 전만을 중랑으로 봉하여 자신의 부에서 거두어 키웠다. 이때 갑자기 손책이 사신을 보내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조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원술의 군량은 부족한데 진류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허점을 틈타 공격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정벌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조인은 허도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정벌에 따르게 하니, 기병과 보병이 모두 17만 명에 달했고 군량과 물자를 실은 수레도 천여 대가 넘었다. 조조는 한편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 손책, 유비, 여포와 합류하도록 했다.

군대가 예장 경계에 이르자, 유비가 일찍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갔다. 조조는 유비를 진영으로 들어오도록 명했다. 서로 만난 후 유비가 머리 두 개를 바쳤다. 조조가 놀라며 물었다.

"이것은 누구의 머리인가?"

유비가 대답했다.

"한검과 양봉의 머리입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얻었는가?"

유비가 말했다.

"여포가 이 두 사람에게 기두와 낭야 두 현을 지키게 하였는데, 뜻밖에도 이들이 군사를 풀어 백성을 약탈하니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회를 베풀어 거짓으로 일을 논의하자고 청한 뒤, 술을 마시는 틈을 타 잔을 던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관우와 장비가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부하들을 모두 항복시켰습니다. 이제 그 죄를 청하러 왔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국가를 위해 해로운 무리를 제거했으니 참으로 큰 공을 세운 것인데, 어찌 죄를 말하는가?"

조조는 유비를 극진히 대접한 뒤, 군사를 합쳐 서주 경계에 이르렀다. 여포가 마중을 나오자 조조는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달래며 위로하고, 여포를 좌장군으로 봉하며 나중에 수도로 돌아갈 때 인장을 바꿔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포는 크게 기뻐했다. 조조는 즉시 여포의 군대를 왼쪽에, 유비의 군대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중앙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하후돈과 우금을 선봉장으로 삼았다.

원술은 조조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장 교유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선봉으로 나서게 했다. 양측 군대는 수춘의 경계 지역에서 맞붙었다. 교유가 먼저 말을 타고 나가 하후돈과 맞붙었으나, 세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하후돈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원술의 군대는 대패하여 성 안으로 도망쳤다.

그때 갑자기 손책이 배를 띄워 강가 서쪽을 공격하고,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을 공격하며, 유비와 관우, 장비가 남쪽을 공격하고, 조조가 직접 17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을 공격하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원술은 크게 놀라 서둘러 문무백관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장사 양대장(楊大將)이 말했다. "수춘은 몇 년째 가뭄과 홍수가 이어져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군사를 일으켜 백성을 괴롭히면, 백성들의 원망이 깊어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군대를 수춘에 남겨둔 채 굳이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어림군(御林軍)을 거느리고 회수를 건너가십시오. 그리하면 첫째로 곡식이 익어 양식이 넉넉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둘째로 잠시 적의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원술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풍, 낙취, 양강, 진기 네 사람을 남겨 십만 대군과 함께 수춘을 굳게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와 병사들, 그리고 창고에 쌓인 금은보화와 보물들을 모두 챙겨서 회남 너머로 옮겨갔다.

한편, 조조의 군사 17만 명은 매일 소비하는 식량이 워낙 방대하여, 여러 군에서 보급을 보내려 해도 가뭄과 흉작 탓에 미처 다 대지 못했다. 조조가 군사들에게 속전속결로 싸울 것을 재촉했으나, 이풍 등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조조의 군대가 한 달 넘게 대기하며 싸우는 동안 식량이 거의 바닥나자, 조조는 손책에게 편지를 보내 식량 10만 석을 빌려왔으나 이마저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니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군량을 관리하는 임준의 부하인 창고 관리관 왕후가 조조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병사는 많은데 식량이 너무 적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작은 척량(작은 그릇)을 사용하여 나누어 주어라.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왕후가 다시 물었다. "만약 병사들이 원망하면 어찌합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왕후는 조조의 명령을 받아 작은 곡식 되를 나누어 주었다. 조조가 몰래 사람을 보내 각 진영의 형편을 살피게 하니, 진영마다 탄식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모두가 승상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조가 비밀리에 왕후를 불러 말했다. "내가 물건 하나를 빌리고자 하니, 군심을 다스리는 데 쓰려 한다. 부디 아까워하지 말게나." 왕후가 물었다. "승상께서 무엇을 쓰려 하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자네의 머리를 빌려 대중에게 보여주려 하네."

왕후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도 자네가 죄가 없음을 아네. 하지만 자네를 죽이지 않으면

군심이 흔들릴 것이야. 자네가 죽은 뒤에 자네 처식구들은 내가 직접 돌볼 터이니, 아무 걱정 말게나."

왕후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조조는 이미 칼을 든 병사들을 불러 그를 문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병사가 단칼에 왕후의 목을 베어 높은 장대에 매달았다. 그리고 방을 붙여 널리 알리기를, "왕후가 고의로 작은 되를 사용하여 관청의 군량을 훔쳤기에 군법에 따라 처단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제야 군사들의 원망이 가라앉았다.

다음 날, 조조가 각 진영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약 사흘 안에 힘을 합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모두 참수하겠다!" 조조는 직접 성 아래로 내려가 군사들이 흙과 돌을 옮겨 해자와 구덩이를 메우는 것을 독려했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때 부장 두 명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자, 조조는 직접 칼을 뽑아 성 아래에서 그들을 처형했다. 그러고는 스스로 말에서 내려 흙을 나르며 구덩이를 메우는 데 앞장섰다. 이를 본 크고 작은 장병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아갔고, 군대의 기세는 크게 떨쳤다. 성 위의 적들은 물려드는 군사를 막아내지 못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앞다투어 성벽을 기어올라 성문을 부수고 빗장을 풀어헤치자, 대부대가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풍, 진기, 낙취, 양강이 모두 생포되었고, 조조는 이들을 모두 시장터에서 처형하라고 명했다. 이어 가짜 궁궐과 전각, 그리고 금지된 물건들을 모두 불태웠으며, 수춘 성 안의 재물도 남김없이 약탈했다.

군사들이 수춘을 점령한 뒤, 원술을 뒤쫓기 위해 회하를 건너 진격할지를 논의했다. 이때 순욱이 간언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식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기서 더 진격한다면 군사들을 지치게 하고 백성

들에게 고통을 줄 뿐, 반드시 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잠시 허도로 돌아가 내년 봄 보리가 익어 군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장수가 유표에게 의탁하여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양의 여러 현에서도 다시 반란이 일어났으며, 조홍이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연달아 패하여 지금 급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즉시 손책에게 편지를 보내, 강을 건너 군대를 배치하여 유표가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그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은 곧바로 군대를 돌려 장수를 치는 방안을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조는 떠나기 전, 유비에게 소패에 계속 머물며 여포와 형제의 의를 맺어 서로 돕고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여포도 군사를 이끌고 서주로 돌아갔다.

조조가 유비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소패에 머물라고 한 것은 '구덩이를 파고 호랑이를 기다리는 계책'이라네. 그대는 그저 진규 부자와 잘 상의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거나. 내가 반드시 그대의 외부 지원군이 되어주겠네."

말을 마친 조조는 길을 떠났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단외가 이각을 죽였고 오습이 곽사를 죽여 그 머리를 가져왔다고 했다. 단외는 이각의 일가친척과 노소 200여 명을 모두 사로잡아 허도로 압송했다. 조조는 이들을 각 성문에 나누어 처형하게 하고, 그 머리를 높이 매달아 군령으로 호령하니 백성들이 통쾌해하며 환호했다. 천자는 전각에 올라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단외를 탕구장군으로, 오습을 진우장군으로 봉하여 각각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지키게 했다. 두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갔다. 조조는 즉시 장수가 반란을 일으켰음을 보고하며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천자가 직접 수레를 준비하여 조조의 출정을 배웅하니, 때는 건안 3년 여름 4월이었다.

조조는 순욱을 허도에 남겨두고, 병사들과 장수들을 소집하여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다. 군사를 몰아 행군하던 중, 길가에 잘 익은 밀밭을 마주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군대가 물려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모두 밖으로 피신해 있어, 감히 밀을 베지 못하고 있었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근처 마을의 어른들과 각 지역의 관리들에게 널리 공표하게 했다. "나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고 백성의 재앙을 없애고자 출병하였다. 마침 밀이 익을 때라 부득이하게 군사를 일으켰으니, 크고 작은 장수와 병사들 중 밀밭을 지나가다 조금이라도 밟는 자가 있다면 모두 목을 베겠다. 군법이 매우 엄하니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먼지 구름이 일 정도로 길가에 엮드려 절을 했다. 관군은 밀밭을 지날 때 모두

말에서 내려 손으로 밀을 하나하나 받쳐 들고 옆 사람에게 건네주며 조심스레 지나갔으니, 그 누구도 감히 밀을 밟지 않았다.

조조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밀밭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올랐다. 평소 영리한 조조의 말이 깜짝 놀라 밀밭 속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넓은 구역의 밀이 짓밟혀 망가지고 말았다. 조조는 즉시 행군 주부를 불러 자신을 밀밭에 들여보낸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 논의했다.

주부가 말했다. "승상, 어찌 스스로 죄를 논하신단 말씀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직접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먼저 어겼으니, 어찌 대중의 복종을 얻겠는가?"

말을 마친 조조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했다. 부하들이 급히 달려들어 그를 말렸다. 이때 곽가가 말했다. "옛 예법에 존귀한 자에게는 법을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통솔하고 계시는데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조조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말했다. "예법에 존귀한 자를 예우한다는 뜻이 있으니, 일단 죽는 것은 면하겠다."

그리고는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땅에 던지며 말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으로 목을 베는 것을 대신하겠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잘라낸 머리카락을 삼군에 전달하며 전하게 했다. "승상이 밀밭을 짓밟았으니 본래라면 목을 베어 군령을 세워야 마땅하나, 지금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에 삼군 장병들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군령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후대에 어떤 이가 이 일을 시로 읊어 논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십만 대군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것은 한 사람의 호령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이라. 칼을 뽑아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대신하니, 조조의 술수가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알겠구나."

한편, 장수는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뇌서와 장선을 두 장수에게 명하여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게 했다. 두 진영이 마주 서자 장수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조조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너는 가짜 인의를 내세우는 파렴치한 놈이니,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

조조가 크게 노하여 허저를 출전시키자, 장수는 장선에게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채 세 합을 채우기도 전에 허저가 말 아래로 장선을 베어 버렸고, 장수의 군대는 대패했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남양성 아래까지 몰아붙이자, 장수는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걸고 나오지 않았다.

조조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 주위의 해자가 매우 넓고 물살도 깊어 성에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가 않았다. 이에 조조는 군사들에게 흙을 운반해 해자를 메우라고 명령했다. 또한 흙을 담은 자루와 땔감, 짚 등을 한데 섞어 성벽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와 발판을 만들게 하고, 성 안을 살필 수 있도록 운제(구름 사다리)도 세웠다. 조조는 직접 말을 타고 성 주변을 돌며 상황을 살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자, 조조는 군사들에게 서문 모퉁이에 땔감을 쌓아 올리라고 명령한 뒤,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곳을 통해 성에 올라가기로 했다.

성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후가 장수에게 말했다. "조조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의 계략을 역이용해 대처해야 합니다."

과연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고, 속임수를 쓰려다 오히려 속임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법이다.

가후가 어떤 계책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18회 — 가문화가 적의 승패를 예측하고, 하후돈이 화살을 뽑아 눈알을 삼키다

賈文和料敵決勝 夏侯惇拔矢啖睛

한편, 가후는 조조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그 계략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장수에게 말했다.

"제가 성 위에서 지켜보니, 조조가 사흘 동안 성 주위를 돌며 살피고 있습니다. 조조는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벽돌과 흙의 색깔이 새것과 헌 것이 섞여 있고, 목책도 많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공격해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북서쪽에는 풀을 높이 쌓아두어 마치 그 쪽을 지킬 것처럼 위세를 부려, 우리를 속여 북서쪽으로 군사를 옮기게 하려 합니다. 조조는 밤의 어둠을 틈타 반드시 동남쪽 모퉁이로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장수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가후가 대답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일 정예 병사들에게 음식을 든든히 먹이고 짐을 가볍게 하여 성 동남쪽의 집 안에 모두 숨겨둡시다. 대신 백성들에게 군사처럼 보이게 하여 북서쪽을 지키는 척하게 하면, 조조는 밤중에 동남쪽 모퉁이로 성을 기어오를 것입니다. 적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대포를 한 번 크게 울리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면,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수는 가후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일찍이 정찰을 나간 기마병이 조조에게 보고하기를, "장수가 군사를 모두 북서쪽 모퉁이로 옮겨 함성을 지르며 성을 지키고 있으나, 동남쪽은 매우 허술합니다"라고 전했다. 조조가 말했다. "내 계책에 딱 걸려들었구나!" 조조는 즉시 군대에 성벽을 기어오를 삽과 곡괭이, 갈고리 같은 도구들을 비밀리에 준비하게 했다. 낮 동안에는 군사를 이끌고 북서쪽 모퉁이만 공격하는 척했다. 그러다 이경(밤 9시에서 11시) 무렵이 되자, 정예병을 거느리고 동남쪽 모퉁이로 몰래 기어 들어가 해자를 건너고 울타리를 베어 넘겼다. 성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기에,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 대포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지더니 곳곳에서 북병들이 나타났다. 조조의 군대는 급히 후퇴했으나, 뒤에서는 장수가 직접 용맹한 군사들을 몰아 공격해 왔다. 조조의 군대는 대패하여 성 밖으로 밀려났고, 수십 리를 허겁지겁 도망쳤다. 장수는 날이 밝을 때까지 추격한 뒤에야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들어갔다. 조조가 패배한 군사들을 헤아려 보니 이미 5만여 명의 병사를 잃었고, 수많은 군수 물자도 잃었다. 여건과 우금도 모두 부상을 입었다.

한편, 가후는 조조가 패하여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장수에게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 조조의 후방을 차단할 군사를 일으키라고 권했다. 유표는 편지를 받고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갑자기 손책이 호구에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괴량이 말했다. "손책이 호구에 주둔하는 것은 조조가 꾸민 계책입니다. 지금 조조가 갓 전투에서 패했으니, 이 기세를 몰아 공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표는 황조에게 요충지를 굳게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안중현으로 가서 조조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장수와도 만날 약속을 잡았다. 장수는 유표의 군사가 이미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후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습격했다.

한편, 조조의 군대가 천천히 행군하여 양성을 지나 유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조조가 갑자기 말 위에서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군사들이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조조가 말했다.

"내가 작년에 바로 이곳에서 나의 용맹한 장수 전위를 잃었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조조는 즉시 명령을 내려 군사들을 머물게 하고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여 전위의 넋을 기리게 했다. 조조가 직접 향을 피우며 울며 절하니, 삼군 모든 장병이 감탄하며 함께 슬퍼했다. 전위를 위한 제사를 마친 후에는 조카 조안민과 장남 조앙, 그리고 전사한 군사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으며, 전위가 화살을 맞아 죽은 대완마에게도 제사를 올렸다.

다음 날, 갑자기 순욱이 사람을 보내 보고했다. "유표가 장수를 도와 안중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우리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순욱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가 하루에 겨우 몇 리씩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적이 쫓아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으니, 나중에 도착하기만 하면 반드시 장수를 격파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말을 마친 조조는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안중 현의 경계에 이르렀다. 유표의 군대는 이미 험한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고, 장수 또한 뒤이어 군사를 몰아 쫓아오고 있었다. 이에 조조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어두운 밤중에 험한 곳을 깎아 길을 내게 하고, 몰래 기습할 병력을 매복시켰다.

날이 밝아올 무렵, 유표와 장수의 군사가 합류했다. 그들은 조조의 군사가 적어 보이자 조조가 이미 도망쳤다고 의심하며, 모두 군사를 이끌고 험한 곳으로 들어가 조조의 군대를 공격했다. 그러나 조조가 기습 부대를 내보내 두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조조의 군사는 안중의 요충지를 빠져나와 좁은 길목 바깥에 진을 쳤다. 패하여 물러난 유표와 장수는 각자 병력을 정비하여 서로 만났다. 유표가 말했다. "조조의 간계에 다시 이렇게 당할 줄이야!" 장수가 대답했다. "다시 한번 도모해 봅시다!" 그리하여 두 군대는 안중에 모이게 되었다.

한편, 순욱이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허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알아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편지를 보내 조조에게 알렸다. 편지를 받은 조조는 마음이 급해져 즉시 군사를 돌려 회군했다. 이때 첩자가 장수에게 조조가 퇴각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장수는 군사를 몰아 그를 추격하려 했다.

그러자 가후가 말했다.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추격했다가는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유표는 "오늘 추격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라며 장수에게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함께 가자고 강력히 권했다. 두 군사가 십여 리를 달려 조조군의 후미를 따라잡았다. 조조군이 힘을 다해 맞서 싸우자, 장수와 유표의 두 군대는 크게 패하여 퇴각했다.

장수가 가후에게 "공의 말이 맞았소. 과연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구려"라고 말했다. 가후가 다시 말했다. "지금 군사를 정비하여 다시 추격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장수와 유표가 함께 "이미 패했는데 어찌 다시 추격한단 말이오?"라고 묻자, 가후가 대답했다. "이번에 추격한다면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 목을 베어 주십시오."

장수는 가후의 말을 믿었으나, 유표는 의심이 생겨 함께 가기를 거부했다. 결국 장수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시작했다. 조조의 군사는 정말로 크게 패하였고, 군량과 말들이 뒤섞여 길 위에 버려진 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추격하던 중, 갑자기 산 뒤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장수는 감히 더 추격하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안중으로 퇴각했다.

유표가 가후에게 물었다. "아까 정예병으로 패퇴하는 적을 쫓을 때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 하시고, 나중에는 패잔병으로 승리한 적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당신의 말대

로 되었으니, 어찌하여 상황은 서로 다른데 결과는 모두 들어맞은 것입니까? 부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후가 대답했다. "그 이유는 알기 쉽습니다. 장군께서 비록 병법에 능하시다 해도 조조의 상대는 되지 못합니다. 조조의 군사가 비록 패했더라도 반드시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추격군을 막아낼 것이니, 우리 군사가 아무리 날카롭다 한들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기에 반드시 패할 것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조조가 그토록 급히 퇴각하려 했던 것은 분명 허도에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 추격군을 격파한 뒤에 반드시 가벼운 차림으로 서둘러 돌아가느라 다시 대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다시 추격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표와 장수는 모두 가후의 뛰어난 식견에 감탄했다. 가후는 유표에게는 형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장수에게는 양성을 지키게 하여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다. 이로써 두 군대는 각자 흩어졌다.

한편, 조조가 행군하던 중 후방 군대가 장수에게 쫓기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장수들을 이끌고 돌아가 구원하러 나섰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장수의 군대는 이미 물러간 뒤였다. 패하여 돌아온 병사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만약 산 뒤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길목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모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조조가 급히 누구냐고 묻자, 그 병사가 창을 내려 말에서 내려 조조에게 절을 올렸다. 그는 강하 평춘 출신의 진위중랑장 이통으로, 자는 문달이었다. 조조가 어디서 왔는지 묻자 이통이 대답했다.

"가까운 여남을 지키고 있다가, 승상께서 장수 및 유표와 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지원하러 왔습니다."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이통을 건공후로 봉하고, 유표와 장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여남 서쪽 경계를 지키게 했다. 이통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와 손책이 세운 공을 보고하여 그를 토역장군으로 봉하고 오후의 작위를 내렸다. 또한 사신을 강동으로 보내 조서를 전달하며 유표를 방어하고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조가 관저로 돌아오자 여러 관리들이 찾아와 문안을 마쳤다. 이때 순욱이 물었다.

"승상께서 안중까지 천천히 행군하신 것은 어찌하여 반드시 적군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신 것입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적들은 물러날 길이 없으니 반드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여 적을 유인하면서 몰래 계책을 꾸미고 있으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순욱이 물러가자 곽가가 들어왔다. 조조가 말했다. "공은 어찌 이리 늦게 왔소?" 곽가가 소매 안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조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원소가 사람을 보내 서신을 전해왔습니다. 공손찬을 치기 위해 군사와 식량을 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원소가 허도를 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또 다른 꾀를 내는 모양이군." 조조는 서신을 뜯어 읽어 내려갔다. 서신의 문구와 태도가 매우 오만함을 확인한 조조가 곽가에게 물었다. "원소가 이토록 무례하게 구니 내가 직접 치고 싶지만 힘이 모자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곽가가 말했다. "유방이 항우를 이긴 것은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항우가 아무리 강했어도 결국 유방의 지혜에 밀려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지금 원소에게는 열 가지 패배할 요인이 있지만, 주군께서는 열 가지 승리할 요인이 있습니다. 원소의 군사가 아무리 성대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원소는 격식과 예법을 지나치게 따지며 겉치레에 치중하지만, 주군께서는 몸가짐이 자연스럽고 소탈하시니 이것이 '도(道)'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원소는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주군께서는 순리를 따르시니 이것이 '의(義)'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 한나라 환제와 영제 시절부터 정치가 너무 너그러워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원소는 그 너그러움을 이용해 일을 그르치지만 주군께서는 엄격함으로 바로잡으시니 이것이 '치(治)'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넷째, 원소는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해도 속으로는 남을 경계하며 친척들 위주로 사람을 쓰지만, 주군께서는 겉으로는 간결하면서도 속으로는 명철하시며 오직 재능 있는 사람만을 등용하시니 이것이 '도량(度)'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원소는 꾀는 많으나 결단력이 부족하지만, 주군께서는

계책이 서면 즉시 실행에 옮기시니 이것이 '모략(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섯째, 원소는 명예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주군께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시니 이것이 '덕(德)'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일곱째, 원소는 가까운 사람만 챙기고 먼 곳은 소홀히 하지만, 주군께서는 살피시는 데 빈틈이 없으시니 이것이 '인(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원소는 헛소문에 휘둘려 정사를 어지럽히지만, 주군께서는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시니 이것이 '명철함(明)'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홉째, 원소는 옳고 그름을 혼동하지만, 주군께서는 법도를 엄격하고 명확히 세우셨으니 이것이 '법도(文)'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째, 원소는 허세를 부리며 군사의 요체를 알지 못하지만, 주군께서는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물리치시며 용병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무용(武)'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이처럼 열 가지 승리할 요건을 갖추셨으니, 원소를 이기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공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어찌 감히 원소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순욱이 말했다. "곽가의 '십승십패론'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원소의 병사가 비록 많다 하나,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곽가가 말을 이었다. "서주의 여포는 실로 우리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지금 원소가 북쪽으로 공손찬을 치러 떠났으니, 우리는 그 틈을 타 먼저 여포를 쳐서 동남쪽의 근심을 없애야 합니다. 그 후에 원소를 도

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소를 공격한다면, 여포가 반드시 빈틈을 노려 허도로 쳐들어와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에 동의하여 결국 여포를 치기 위해 동쪽으로 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순욱이 말했다. "먼저 사람을 보내 유비와 약속을 맺고, 그 대답을 기다린 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이 말을 따랐다. 그는 한편으로는 유비에게 서신을 보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소의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며 원소를 대장군 태위로 봉하고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네 주를 총괄하는 도독으로 삼는다는 임명장을 내렸다. 또한 원소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는 "공께서 공손찬을 치신다면 제가 마땅히 돕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원소는 이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일으켜 공손찬을 공격했다.

한편, 여포가 서주에 있을 때면 손님들을 모아 연회를 열 때마다 진규 부자는 반드시 여포의 덕망을 크게 칭송하곤 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진궁이 틈을 타 여포에게 말했다.

"진규 부자가 장군께 아첨하고 있으나, 그 속마음은 해아릴 수 없으니 부디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여포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가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을 헐뜯어 좋은 사람을 해치려 하는구나!"

진궁이 물러나며 탄식했다.

"충고가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 우리 모두가 재앙을 당하겠구나."

진궁은 여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온종일 근심에 잠겨 지냈다.

어느 날, 진궁은 말 몇 마리를 이끌고 소패 땅으로 사냥을 나가 마을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도 위로 역마를 탄 전령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진궁이 의아하게 여겨 사냥을 중단하고, 부하들을 거느린 채 지름길로 달려가 그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온 사명인가?" 전령은 상대가 여포의 부하라는 것을 알고는 겁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진궁이 몸을 수색하게 하자, 유비가 조조에게 보낸 밀서 한 통이 나왔다. 진궁은 즉시 전령과 서신을 챙겨 여포에게 달려갔다. 여포가 그 이유를 묻자 전령이 대답했다. "조승상이 저를 유비에게 보내 서신을 전하라 하였는데, 이제 답장을 받아 돌아가는 길입니다. 서신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포가 서신을 뜯어 자세히 살펴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명령을 받들어 여포를 도모하고자 밤낮으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병력과 장수가 부족하여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상께서 만약 대군을 일으키신다면,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겠습니다. 엄중히 군사를 정비하고 갑옷을 갖추어 승상의 명령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포는 밀서를 보고 깜짝 놀라며 외쳤다. "조조 저 도적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여포는 곧바로 사자를 베어버리고, 먼저 진궁

과 장패를 보내 태산 지역의 도적 무리인 손관, 오돈, 윤례, 창희와 손을 잡게 하여 동쪽의 산동 연주 지역 여러 군을 치도록 했다. 이어 고순과 장료에게는 소패성을 취하여 유비를 공격하라 명했고, 송헌과 위숙에게는 서쪽으로 가서 여남과 영천을 치게 했다. 여포 자신은 중앙 군대를 거느리고 세 갈래로 갈라진 군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고순 등이 군사를 이끌고 서주에서 나와 소패에 다다르자, 누군가가 이 소식을 유비에게 알렸다. 유비는 급히 사람들과 상의했다. 손건이 말했다. "어서 조조에게 급박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유비가 물었다. "누가 허도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겠느냐?" 그때 계단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살펴보니 그는 유비와 같은 고을 사람으로, 성은 간이고 이름은 옹이며 자는 현화인데, 지금 유비의 참모로 일하고 있었다. 유비는 즉시 편지를 써서 간웅에게 건네며 밤낮을 가리지 말고 허도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라고 일렀고, 동시에 성을 지킬 무기와 장비들을 정비했다. 유비는 남문을 지키고, 손건은 북문을, 관우는 서문을, 장비는 동문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미축과 그 동생 미방에게 중군을 지키라고 명했는데, 원래 미축의 누이가 유비의 둘째 부인으로 시집와 있었다. 유비는 미축 형제와 처남 매부 사이였기에, 그들에게 중군을 맡겨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고순의 군대가 도착하자, 유비는 적의 성루 위에서 물었다. "나는 여포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가?"

고순이 대답했다. "그대가 조조와 결탁하여 우리 주군을 해치려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일이 탄로 났으니, 순순히 포박당하는 게 어떠한가?" 말을 마친 고순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성을 공격하게 했다. 유비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장료가 군사를 이끌고 서문을 공격했다. 성 위에서 관우가 장료를 향해 말했다. "그대의 품행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거늘, 어찌하여 적의 무리에 몸을 맡겼는가?"

장료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관우는 장료에게 충의의 기운이 있음을 알아채고, 더욱이 거친 말로 그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직접 나가 싸우지도 않았다.

장료가 군사를 이끌고 동문 쪽으로 물러나자, 장비가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섰다. 이미 관우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뒤였다. 관우가 급히 동문으로 달려가 살펴보니, 장비가 막 성 밖으로 나가는 사이 장료의 군대는 이미 물러가고 없었다. 장비가 뒤쫓으려 하자 관우가 급히 그를 불러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장비가 말했다. "저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데, 어찌 뒤쫓지 않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저자의 무예는 너나 나에게 뒤지지 않는다. 내가 정중한 말로 그를 감복시켰더니,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와 더는 싸우려 하지 않고 물러난 것이다." 그제야 깨달은 장비는 병사들에게 성문만 굳게 지키게 하고,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편, 간옹이 허도에 도착해 조조를 만나 이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조조는 즉시 여러 책사를 불러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 "나는 여

포를 공격하려 하는데, 원소가 방해할까 봐 걱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유표와 장수가 뒤를 흔들까 봐 그것이 염려될 뿐이다." 그러자 순욱이 말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패했으니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포가 용맹한 데다 만약 원술과 다시 손을 잡고 회수와 사수 지역을 휘저으며 세력을 키운다면, 급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 곽가가 말했다. "지금은 여포가 막 반란을 일으켜 민심이 아직 그에게 붙지 않은 때이니, 서둘러 가서 공격해야 합니다."

조조는 그 말대로하기로 하고, 즉시 하후돈에게 하후연, 여건, 이진과 함께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나아가게 했다. 조조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차례로 진격했으며, 간옹도 그 뒤를 따랐다. 이때 정찰병이 고순의 움직임을 미리 보고하자, 고순은 즉시 여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여포는 곧장 후성, 학맹, 조성에게 200여 명의 기병을 주어 고순을 지원하게 했다. 이들은 소패성에서 30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조조군을 맞이하게 하고, 여포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그 뒤를 따라 지원하러 나섰다.

유비는 소패 성안에서 고순의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조조군의 병사가 도착했음을 알았다. 이에 유비는 손건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미축과 미방에게는 집을 지키게 한 뒤, 자신은 관우, 장비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각기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조조군을 맞이하러 나갔다.

한편,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던 중 마침 고순의 군대와 마주쳤다. 하후돈이 창을 앞세워 말을 타고 나가 싸움을 걸자 고순이 그를 맞이했다. 두 장수가 맞붙어 사오십 합가량 싸웠으나, 고순

이 버티지 못하고 패하여 물러났다. 하후돈이 말을 달려 뒤쫓자 고순은 진영을 빙빙 돌며 도망쳤다. 하후돈이 포기하지 않고 진영을 따라 계속 추격했다. 이때 진영 위에 있던 조성이 이 광경을 보고는 몰래 활을 들어 화살을 먹였다. 조성이 조준을 정확히 하여 화살을 쏘자, 그 화살이 하후돈의 왼쪽 눈에 정통으로 박혔다. 하후돈이 크게 비명을 지르며 급히 손으로 화살을 뽑으려 했으나, 뜻밖에도 눈알까지 함께 빠져나오고 말았다. 하후돈은 크게 외쳤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귀한 피와 살인데, 차마 버릴 수 없다!" 그러고는 빠져나온 눈알을 입에 넣어 삼켜버린 뒤, 다시 창을 들고 말을 몰아 곧장 조성을 향해 돌진했다. 조성이 미처 방비할 겨를도 없이 하후돈의 창에 얼굴이 꿰뚫려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양측의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후돈은 조성을 죽이고는 곧바로 말을 몰아 돌아갔다. 이때 고순이 뒤를 쫓아와 군사를 몰아 들이닥치니,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다. 하후연이 형을 구하기 위해 급히 퇴각하였고, 여건과 이전도 패한 군사를 이끌고 제북으로 물러가 진을 쳤다. 승기를 잡은 고순이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려는데, 마침 여포의 대군도 도착했다. 여포는 장료, 고순과 함께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유비, 관우, 장비의 세 진영을 협공하기 시작했다.

과연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화살을 맞은 선봉장이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유비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9회 — 하비성에서 조조가 군사를 몰아붙이고, 백문루에서 여포가 목숨을 잃다

下邳城曹操鑿兵 白門樓呂布殞命

한편, 고순이 장료를 이끌고 관우의 진영을 공격하자, 여포는 직접 장비의 진영을 습격했다. 관우와 장비가 각각 맞서 싸우러 나갔고, 유비는 두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이들을 도우러 갔다. 그러나 여포가 뒤쪽에서 군사를 나누어 기습해 오는 바람에 관우와 장비의 군대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유비는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급히 패성으로 도망쳤다. 여포가 뒤쫓아오자 유비는 성 위의 병사들에게 급히 외쳐 다리를 내리게 했다. 곧이어 여포도 도착했다. 성 위의 병사들이 화살을 쏘려 했으나, 혹시나 유비가 다칠까 봐 차마 쏘지 못했다. 그 틈을 타 여포가 기세를 몰아 성문 안으로 들이닥쳤고, 성문을 지키던 장수와 병사들은 저항하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여포는 군사들을 불러 성안으로 입성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진 유비는 집에 들러 가족을 챙길

겨를도 없이, 처자식을 버려둔 채 성을 가로질러 서문으로 빠져나와 홀로 말을 타고 도망쳤다.

여포가 유비의 집으로 달려가자 미축이 마중 나와 여포에게 말했다. "대장부라면 남의 처자식을 버리지 않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군과 천하를 다투는 이는 조조뿐입니다. 유비는 예전 원문에서 창을 쏘아 적을 물리쳐 준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 감히 장군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몸을 맡기려 하니, 부디 장군께서 그를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여포가 대답했다. "나와 유비는 오랜 벗인데, 어찌 그의 처자식을 해치겠는가?" 그러고는 즉시 미축에게 명령하여 유비의 처자식을 데리고 서주로 가서 안착하게 했다. 여포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산동 연주 경계로 향했으며, 고순과 장료를 남겨 소패를 지키게 했다. 이때 손건은 이미 성 밖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관우와 장비 두 사람 역시 각자 약간의 병력을 거느리고 산으로 들어가 머물렀다.

한편, 유비는 말을 타고 홀로 피난길에 올랐다. 한창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더니, 자세히 보니 손건이었다. 유비가 말했다. "지금 내 두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처자식과도 헤어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손건이 말했다. "차라리 우선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여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는 그 말에 따라 섯길을 찾아 허도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도중 식량이 떨어져 마을에 들러 음식을 구하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주목 유비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앞다투어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의 한 젊은이가 마중을 나왔다. 이름을 물으니 사냥꾼 유안이었다.

이때 유안은 예주목인 유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접할 산짐승 고기를 구하려 했으나 좀처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자기 아내를 죽여 그 고기를 음식으로 내놓았다. 유비가 "이것은 무슨 고기입니까?"라고 묻자, 유안은 "늑대 고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유비는 의심하지 않고 고기를 배불리 먹은 뒤 날이 저물자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 길을 떠나기 위해 뒷마당으로 말을 가지러 가던 유비는 갑자기 부엌 근처에서 한 여인이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팔 부분은 이미 살점이 모두 베여 나가 있었다. 유비가 깜짝 놀라 물어보고 나서야 어젯밤에 먹은 것이 바로 유안의 아내 살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비는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말에 올라탔다. 유안이 유비에게 말했다. "본래 사군(使君)님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집에 노모가 계시니 감히 멀리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유비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헤어져 양성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먼지 구름이 해를 가릴 정도로 자욱하게 일어나더니, 대군 하나가 몰려왔다. 유비는 조조의 군대임을 알아채고 손건과 함께 곧장 중군 기치 아래로 가서 조조를 만났다. 유비는 소패를 잃고, 두 형제를 잃었으며, 아내와 아이들까지 사로잡힌 비참한 사정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조조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유비가 사냥꾼 유안이 아내를 죽여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조조는 손건에게 금 백 냥을 주어 유안에게 전달하게 했다.

군대가 제북에 이르자 하후연 등이 마중 나와 진영으로 안내했다. 하후연은 하후돈이 한쪽 눈을 다쳐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조조는 하후돈의 침상 곁으로 가서 그를 살핀 뒤, 먼저 허도로 돌아가 몸을 추스르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여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정찰병이 말을 타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여포가 진궁, 장패와 손을 잡고 태산의 도적들과 결탁하여 연주의 여러 군을 함께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조조는 즉시 조인에게 군사 삼천을 주어 소패성을 공격하게 했다.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비와 함께 여포를 치러 나섰다. 군대가 산동 땅에 이르러 소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침 태산의 도적 손관, 오돈, 윤례, 창희가 이끄는 삼만여 명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고 나타났다. 조조가 허저에게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자 네 장수가 일제히 말에 올라 출전했다. 허저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네 장수가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각자 패하여 달아났다. 조조는 그 기세를 몰아 몰아붙이며 소관까지 추격했고, 정찰병이 이 소식을 나눈 듯이 여포에게 달려가 알렸다.

한편, 여포는 이미 서주로 돌아가 진등과 함께 소패를 구하러 가려 했다. 여포는 진규에게 서주를 지키게 하고 진등을 보냈는데, 진등이 떠나려 하자 진규가 말했다. "예전에 조조가 동쪽의 일은 모두 네게 맡겼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여포가 패할 판이니, 네가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 진등이 대답했다. "바깥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약 여포가 패해서 돌아오면, 아버님께서도 미축과 함께 성을 지키시고 여포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따로 빠져나

갈 계책이 있습니다." 진규가 걱정하며 물었다. "여포의 처자식이 (성 안에) 있고, 그를 따르는 심복도 아주 많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진등이 말했다. "저도 이미 생각이 있습니다." 말을 마친 진등은 여포를 찾아가 말했다. "서주가 사방에서 적을 맞이하고 있으니, 조조가 반드시 총력을 다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먼저 후퇴할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물과 식량을 미리 하비로 옮겨 두십시오. 그래야 혹시라도 서주가 포위되었을 때 하비에 있는 식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여포가 말했다. "원룡의 말이 아주 옳다. 내 처자식과 함께 옮기도록 하겠다." 여포는 곧 송현과 위숙에게 명하여 처자식과 재물, 식량을 보호하며 하비로 옮기게 했다. 그러고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진등과 함께 소관을 구하러 나섰다. 가는 도중에 진등이 말했다. "제가 먼저 관문에 가서 조조 군의 허실을 살펴본 뒤에, 주공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포가 그들을 허락하자 진등이 먼저 관문 위에 도착했다. 진궁 등이 그를 맞이했다. 진등이 말했다. "여포 장군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매우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진궁이 대답했다. "지금 조조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니 가볍게 적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문을 굳게 지키면서, 주공께 소패성을 철저히 보위하도록 권하는 것이 최선의 계책입니다." 진등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밤, 관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조의 군사들이 관문 바로 아래까지 밀고 들어와 있었다. 이에 진등은 밤을 틈타 편지 세 통을 써서 화살에 매단 뒤 관문 아래로 쏘아 보냈다. 다음 날, 진등은 진궁에게 작별을 고하고 말을 달려 여포에게

달려가 말했다. "관문 위의 손관 등이 모두 성문을 열어 항복하려 합니다. 저는 진궁을 남겨 성을 지키게 했으니, 장군께서는 해 질 녘에 군사를 몰아 습격하여 구원하셔야 합니다."

여포가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관문은 이미 함락되었을 것이요." 그러고는 곧장 진등에게 명령하여 기병을 먼저 관문으로 보내게 했다. 진등은 진궁에게 안에서 호응하며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진등이 급히 달려가 진궁에게 보고했다. "조조의 군사가 이미 지름길을 통해 관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서주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진궁은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관문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진등이 관문 위에서 불을 피워 올리자, 여포가 어둠을 틈타 들이쳤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진궁의 군사와 여포의 군사가 서로를 적군으로 착각하여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횃불이 일제히 치솟는 것을 보고는 기세를 몰아 맹렬히 공격해 들어왔다. 손관 일행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여포는 밤새도록 싸우다 날이 밝아서야 이것이 계책임을 깨닫고, 급히 진궁과 함께 서주로 퇴각했다. 그러나 성벽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을 때,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적의 누각 위에 있던 미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네놈이 우리 주군의 성을 빼앗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이 성을 우리 주군께 돌려드려야 한다! 너는 다시는 이 성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여포가 크게 분노하며 물었다. "진규는 어디 있느냐?" 미축이 대답했다. "내가 이미 죽었다!" 여포가 진궁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진등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진궁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아직도 미혹되어 어찌 저 간사한 도적놈에게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여포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살살이 찾아보게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진궁이 여포에게 서둘러 소패로 피신하자고 권하자 여포도 그 말을 따랐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급히 달려왔는데, 살펴보니 고순과 장료였다. 여포가 이유를 묻자 그들이 대답했다. "진등이 급히 전령을 보내 주공께서 포위당하셨다고 알려왔기에, 저희가 급히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진궁이 말했다. "저것 또한 간사한 도적의 계책입니다." 여포가 분노하며 외쳤다. "내가 반드시 저 도적을 죽이리라!" 하고는 급히 말을 몰아 소패로 향했다. 소패에 도착해 보니 성 위에는 이미 조조 군대의 깃발이 가득 꽂혀 있었다. 알고 보니 조조가 이미 조인에게 명하여 성을 습격하게 하고 군대를 이끌고 성을 지키게 한 것이었다. 여포가 성 아래에서 진등을 향해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성 위에 있던 진등이 여포를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나는 한나라의 신하인데, 어찌 너 같은 역적을 섬기겠느냐!" 여포가 크게 화를 내며 막 성을 공격하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다. 앞장선 장수는 바로 장비였다. 고순이 말을 타고 나가 맞서 싸웠으나 승기를 잡지 못했고, 여포가 직접 나서서 싸우기 시작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진영 밖에서 다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몰려와 몰아치기 시작했다.

여포는 병력이 부족하여 적을 막아내기 어렵자,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조조의 군사들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여포는 말과 사

람이 지칠 대로 지쳐 허덕이며 달아나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한 장수가 말 위에서 칼을 가로로 쥐고 크게 외쳤다. "여포는 멈춰라! 관우가 여기 있다!" 여포는 당황하여 급히 맞서 싸웠다. 그 뒤를 이어 장비가 달려왔다. 여포는 싸움에 마음을 둘 겨를이 없어 진궁 등과 함께 길을 뚫고는 곧장 하비로 달려갔다. 후성은 군사를 이끌고 여포를 뒤따라 지원하러 갔다. 관우와 장비는 서로를 마주하자, 그동안 헤어져 지냈던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관우가 말했다. "내가 해주 길목에 진을 치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네." 장비가 말했다. "동생은 망탕산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행히 만나게 되었구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들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찾아와 땅에 엎드려 울며 절했다. 유비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조조에게 안내했고, 곧 조조를 따라 서주로 들어갔다. 미축이 마중 나와 유비의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상세히 전하니, 유비는 매우 기뻐했다. 진규 부자 또한 조조를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조조는 큰 연회를 베풀어 장수들을 격려했다. 조조는 중앙에 앉고, 진규를 왼쪽에, 유비를 오른쪽에 앉혔으며, 나머지 장수와 병사들은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다. 연회가 끝난 뒤, 조조는 진규 부자의 공을 치하하며 열 개 현의 녹봉을 내리고, 진등을 복파장군으로 임명했다.

한편, 조조는 서주를 차지하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하비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정욱이 말했다.

"지금 여포는 하비 성 하나만을 지키고 있으니,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분명 필사적으로 싸우다 원술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포가 원술

과 손을 잡으면 공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 먼저 유능한 장수를 보내 회남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게 하여, 안으로는 여포를 막고 밖으로는 원술을 견제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산동에는 아직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은 장패와 손관 같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들을 경계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산동의 여러 길을 통해 진격할 것이니, 회남으로 통하는 길목은 유비에게 맡겨 막게 하라."

유비가 대답했다. "승상께서 명을 내리셨는데,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다음 날, 유비는 미축과 간웅을 서주에 남겨두고, 손건, 관우, 장비를 데리고 군사를 이끌어 회남의 길목을 지키러 떠났다. 한편 조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하비를 공격했다.

한편, 여포는 하비에 머물며 식량이 충분하고 사수라는 천험의 요새가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성을 지키고 있으면 될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자 진궁이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몰려오고 있으니, 적의 진영이 아직 채 정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쉬고 있는 우리가 지친 적을 공격한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나는 최근 여러 번 패했으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적이 먼저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맞서 싸우면 모두 사수에서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진궁의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조조의 군대가 진을 치고 준비를 마쳤다. 조조가 장수들을 거느리고 성 아래에 이르러 여포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대답을 요구했다. 여포는 성벽 위로 올라가 서 있었다. 조조가 여포에게 말했다.

"듣자하니 여포가 또 원술과 혼인하려 한다기에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소. 원술은 반역을 꾀하는 큰 죄를 지었으나, 그대는 과거 동탁을 토벌한 공이 있지 않소? 어찌하여 지난날의 공을 버리고 저 역적을 따르려 하는 것이오? 만약 성이 함락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오! 차라리 지금이라도 항복하여 함께 왕실을 보필한다면, 제후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오."

여포가 말했다.

"승상은 일단 물러가시오. 아직 상의할 시간이 남아 있소."

진궁은 여포의 곁에서 조조를 간악한 도적이라며 크게 욕하더니, 화살을 쏘아 조조의 군막을 맞혔다. 조조가 진궁을 가리키며 분노하여 말했다. "내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고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진궁이 여포에게 말했다. "조조가 멀리서 왔으니 그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보병과 기병을 나누어 성 밖에 진을 치시고, 저는 남은 병력으로 성 안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만약 조조가 장군을 공격하면 제가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치고, 만약 조조가 성을 공격하면 장군께서 뒤에서 구원하시면 됩니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조조의 군량이 떨어지면, 단숨에 몰아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여포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아주 옳소." 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군장을 챙겼다. 마침 겨울철이라 부하들에게 솜옷을 넉넉히 챙겨 입도록 일러두었다.

여포의 아내 엄씨가 이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여포가 진궁의 계책을 말해주자, 엄씨가 말했다. "성 전체를 포기하고 처자식까지 버려둔 채 홀로 군사를 이끌고 멀리 떠나려 하시다니요. 만약 한순간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제가 어찌 장군의 아내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포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사흘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진궁이 안으로 들어가 여포를 보고 말했다. "조조의 군사가 사방에서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서둘러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여포가 대답했다. "나는 멀리 떠나는 것보다 성을 굳게 지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오." 진궁이 말했다. "최근 조조의 군사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사람을 허도로 보내 보급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도착할 것입니다. 장군께서 정예병을 이끌고 나가 그 보급로를 끊으십시오. 이 계책이 아주 탁월합니다."

여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엄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엄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장군께서 만약 출정하신다면, 진궁과 고순이 어찌 성과 진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잘못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안에 있을 때 이미 장군께 버림받았으나, 다행히 방서가 저를 몰래 숨겨준 덕분에 장군과 다시 만날 수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를 버리고 떠나려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군의 앞날은 만 리 길처럼 창창하니, 부디 저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엄씨는 서럽게 통곡했다.

여포는 그 말을 듣고 근심에 잠겨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초선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초선이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저를 믿고 결정해 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혼자 나가지는 마십시오." 여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걱정할 것 없소. 내게는 그림 같은 창과 적토마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내게 접근하겠소?"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진궁에게 말했습니다. "조조가 군량미를 가져온다는 것은 거짓이다. 조조는 궤계가 많으니 나는 감히 움직이지 않겠다." 진궁이 나가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묻힐 땅조차 없게 생겼구나!"

여포는 그 뒤로 온종일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엄씨와 초선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름을 달랬다. 이때 모사인 허사가 여포를 찾아와 계책을 올렸다.

"지금 원술이 회남에서 기세를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예전에 그와 혼약을 맺기로 약속하셨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술의 군사가 오게 되면 안팎에서 조조를 압박할 수 있으니, 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포는 이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그날 즉시 편지를 써서 허사와 왕개 두 사람에게 들려 보냈다. 허사가 말했다.

"군사 한 부대가 길을 열며 돌파해 주어야 일이 수월할 것입니다."

여포는 장료와 학맹에게 병사 천 명을 이끌고 나가 길을 열어줄 것을 명령했다.

그날 밤 2경(밤 10시경)이 되자, 장료가 앞장서고 학맹이 뒤를 따르며 허사와 왕개를 호위하여 성 밖으로 돌격해 나갔다. 이들이 유비의 진영을 스쳐 지나갔으나, 장수들이 미처 뒤쫓기도 전에 이미 고개를 넘어 가버렸다. 학맹은 5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허사와 왕개를 따라갔다. 장료가 군사의 절반을 이끌고 돌아오다 고개에 이르렀는데, 이때 관우가 앞을 가로막았다. 두 편이 맞붙으려던 찰나, 고순이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 나와 지원하며 그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한편, 허사(許汜)와 왕개(王楷)가 수춘에 도착하여 원술을 알현하고 서신을 올렸다. 원술이 말했다. "지난번에는 내 사신을 죽이고 나와 맺은 혼약마저 저버리더니, 이제 와서 또 청을 하러 찾아왔으니 대체 무슨 까닭인가?" 허사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조조의 간계에 휘말린 것이니, 부디 명공께서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원술이 다시 물었다. "그대의 주군이 조조의 군사 때문에 궁지에 몰린 상황이 아니라면, 어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겠는가?" 그러자 왕개가 말했다. "명공께서 지금 구해주지 않으시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라 결국 명공께도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술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포는 신의가 없고 변덕스러운 자다. 우선 내 딸부터 보내준 다음에 군사를 움직이겠다." 허사와 왕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 학맹과 함께 돌아왔다. 유비의 진영 근처에 이르자 허사가 말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 한밤중에 우리 둘이 먼저 가고 학 장군이 뒤를 맡아주십시오."

의논을 마친 뒤, 밤이 되어 유비의 진영을 지나던 중 허사와 왕개가 먼저 앞서갔다. 학맹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장비가 진영에서 뛰어나와 앞길을 막아섰다. 학맹이 말 위에서 맞서 싸워보았으나 단 한 합 만에 장비에게 생포되었고, 그를 따르던 오백 명의 군사들은 모두 흩어져 죽거나 달아났다. 장비가 학맹을 잡아 유비에게 데려가자, 유비는 그를 큰 진영으로 압송하여 조조에게 보냈다. 학맹이 원술에게 혼인을 청하며 도움을 구했던 일을 자세히 고하자, 조조는 크게 노하여 학맹을 군문 앞에서 참형에 처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각 진영에 명하기를, "모두 조심하여 방어하라. 만약 여포나 그의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군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전하게 했다. 이 말을 들은 각 진영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떨었다.

유비가 진영으로 돌아와 관우와 장비에게 당부했다. "우리가 지금 회남의 요충지에 머물고 있으니, 두 동생은 부디 매사에 조심하고 주의하여 조조의 군령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도적 장수 한 명을 잡았는데, 조조는 상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겁을 주며 꾸짖기만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조조는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군령을 엄격히 세우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군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여라." 관우와 장비는 대답하고 물러갔다.

한편, 허사와 왕개가 여포를 찾아가 보고했다. 그들은 원술이 먼저 여포의 아내를 얻으려 한 뒤에야 구원병을 일으켰다고 상세히 일러주었다. 여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허사가 대답했다. "지금 학맹이 사로잡혔으니 조조가 분명 우리의 속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장군께서 직접 호위하며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포가 말했다. "오늘 바로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허사가 말했다. "오늘은 흉한 기운이 가득한 날이라 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길한 날이니 술이나 해시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포는 장료와 고순에게 군사 삼천명과 수레 한 대를 준비하게 하며 명령했다. "내가 직접 이백 리 밖까지 호위해 줄 테니, 그 후에는 너희 둘이 맡아서 보내거라."

다음 날 밤 이경(밤 9시~11시 사이) 무렵, 여포는 여인을 숨으로 감싸 깎옷 안에 넣은 뒤 등에 짊어지고는 창을 든 채 말에 올라탔다. 성문을 열고 여포가 앞장서 나가자 장료와 고순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이 유비의 진영 앞에 다다랐을 때, 북소리가 울리며 관우와 장비가 길을 막아섰다. 두 사람이 크게 외쳤다. "게 서라, 도망가지 마라!" 여포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오로지 길을 뚫고 나가는 데만 급급했다. 이때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달려들어 두 군대가 뒤엉켜 싸웠다. 여포가 아무리 용맹하다 한들, 등에 여인을 묶고 있는 처지라 혹여나 다칠까 두려워 감히 적진을 거세게 돌파하지 못했다. 뒤이어 서황과 허저까지 몰려와 공격하자, 모든 군사가 "여포, 도망가지 마라!"라고 크게 소리쳤다.

여포는 적군이 너무 급히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성 안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유비가 군사를 거두자 서황 등은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적군 중 단 한 명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여포는 성으로 돌아온 뒤 마음속이 답답하고 근심스러워 그저 술만 마셨다.

한편, 조조가 성을 공격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하내 태수 장양이 여포를 구하기 위해 동시에 군사를 일으켰으나, 부장 양추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추가 장양의 머리를 승상께 바치려 했으나, 도리어 장양의 심복 장수인 수고에게 죽임을 당하고는 견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조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사환을 보내 수고를 추격하여 베게 했다. 그리고 나서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장양은 비록 스스로 멸망했으나, 북쪽에는 원소라는 근심이 있고 동쪽에는 유표와 장수라는 환란이 있으니, 하비성을 오래 포위하고 있어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는 차라리 여포를 버리고 도성으로 돌아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싶은데, 어떠한가?"

그러자 순유가 급히 만류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여포는 거듭 패하여 이미 기세가 꺾였습니다. 군대는 장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법인데, 장수의 기세가 꺾이면 군사들은 싸울 마음을 잃게 됩니다. 저쪽의 진궁이 비록 계책은 있으나 행동이 느린 데다, 지금 여포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진궁의 계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속히 공격한다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곽가가 덧붙였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비성을 단번에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이십만 대군을 거느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순욱이 물었다.

"혹시 기수와 사수의 물줄기를 터뜨려 버리겠다는 뜻인가?"

곽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두 강물의 물길을 돌리게 했다. 조조의 군대는 모두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앉아, 물에 잠겨가는 하비를 구경했다. 하비성은 성문 중 동문 쪽만 물에 잠기지 않았을 뿐, 나머지 모든 문은 물에 잠겨버렸다. 여러 군사가 급히 여포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포가 말했다. "나에게는 적토마가 있으니, 물을 건너는 것이 마치 평지를 걷는 것과 같다.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러고는 매일 아내와 첩들을 불러 모아 맛있는 술을 마시며 즐겼다. 그러다 보니 술과 여자에 빠져 몸이 상하고 모습이 초라해졌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비춰보던 여포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내가 술과 여자 때문에 몸을 망쳤구나! 오늘부터는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겠다."

그리고는 성안에 명령을 내려,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 모두 참하라 하였다.

한편, 후성은 말 열다섯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구간을 관리하는 하인이 이를 훔쳐 유비에게 바치려 했다. 후성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도둑을 쫓아가 말들을 다시 빼앗아 오자, 여러 장수가 후성을 축하해주었다. 후성은 축하의 의미로 술을 대여섯 곡(斛)이나 빚어 장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려 했으나, 혹시라도 여포가 보고 죄를 물을까 두려워 먼저 술 다섯 병을 챙겨 여포의 부저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장군님의 용맹스러운 위엄 덕분에 잃어버린 말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장수가 모두 축하하러 모여 술을 조금 빚었는데, 감히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 우선 장군님께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여포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가 술을 금했는데, 네놈이 감히 술을 빚고 마시다니, 혹시 나와 한패가 되어 나를 치려는 것이냐?"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려 했다. 송헌과 위숙 등 여러 장수가 달려가 사정을 고했다. 여포가 말했다. "내 명령을 어겼으니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들의 면면을 봐서 이번만은 매 백 대를 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장수들이 다시 애원하자, 매 백 대 중 십 대만 때리고는 돌려보냈다. 장수들 모두 기가 죽어 낙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송헌과 위숙이 후성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다. 후성이 울면서 말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송헌이 말했다. "여포는 오로지 처자식만 아끼고, 우리 같은 부하들은 풀잎이나 잡초처럼 여기고 있소." 위숙이 말을 이었다. "군사들이 성 아래를 포

위하고 해자 주변까지 물이 차올랐으니, 우리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요!" 그러자 송헌이 제안했다. "여포는 인의가 없는 자니, 우리가 그를 버리고 도망치는 게 어떻겠소?" 위숙이 대답했다. "그건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지. 차라리 여포를 사로잡아 조조에게 바칩시다." 후성이 말했다. "나는 말을 쫓다가 책망을 들었지만, 여포가 의지하는 것은 적토마뿐이요. 만약 두 사람이 정말로 여포를 잡아 조조에게 바친다면, 나는 먼저 말을 훔쳐 조조에게 달려가겠소."

세 사람은 상의 끝에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후성은 몰래 마구간으로 들어가 적토마를 훔쳐 동문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위숙이 즉시 문을 열어 말과 함께 내보내고는, 마치 뒤쫓는 척 연기했다. 후성은 조조의 진영에 도착해 말을 바치며, 송헌과 위숙이 백기를 흔들며 성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수십 장의 방을 써서 성안으로 쏘아 보냈다. 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대장군 조조는 명을 받들어 여포를 정벌하러 왔다. 만약 대군에 맞서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성을 함락하는 날 그 집안을 몰살할 것이다. 장수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포를 사로잡아 바치거나 그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큰 상과 관직을 내릴 것이다. 이 방을 보고 모두 명심하라."

다음 날 새벽, 성 밖에서 땅이 울릴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여포는 깜짝 놀라 창을 들고 성벽 위로 올라가 각 문을 살피더니, 후성을 도망치게 하여 전마(적토마)를 잃게 한 위숙을 꾸짖으며 그 죄를 다스리려 했다. 성 아래에서는 조조의 군사들이 성 위에 걸린 백기를 보고 전

력을 다해 성을 공격해 왔기에, 여포는 직접 적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전투가 이어지자 조조의 군사들은 조금씩 물러났다. 여포는 성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그만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이때 송헌이 좌우의 부하들을 물리친 사이, 먼저 여포의 창을 훔쳐낸 뒤 위숙과 함께 달려들어 여포를 밧줄로 꼼꼼 묶어버렸다.

여포는 꿈결에 깜짝 놀라 깨어나 급히 좌우를 불렀으나, 이미 부하들은 두 사람에게 몰살당한 뒤였다. 여포가 흰 깃발을 흔들며 신호를 보내자 조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성 아래로 몰려왔다. 위숙이 크게 외쳤다. "이미 여포를 생포했습니다!" 하후연은 아직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때 송헌이 여포의 무기인 화극을 내던지며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조조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고순과 장료는 서문에 갇혀 물길이 막히는 바람에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조조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진궁은 남문으로 달려갔으나 서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조조가 성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즉시 명령을 내려 가두었던 물을 빼게 하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유비와 함께 백문루에 앉았는데, 관우와 장비가 그 곁에 시립해 있는 가운데 붙잡혀 온 죄인들이 끌려왔다. 여포는 비록 덩치가 컸으나 밧줄에 꼼꼼 묶여 있었다. 여포가 소리쳤다. "너무 짝 묶었으니 좀 느슨하게 풀어 주시오!" 조조가 말했다. "호랑이를 묶으려면 당연히 단단히 묶어야지." 여포는 곁에서 있는 후성, 위숙, 송헌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장수들을 박하게 대하지 않았거늘, 너희가 어찌 차마 배신을 한단 말이나?"

그러자 송헌이 말했다. "처첩들의 말만 듣고 장수의 계책은 듣지 않으시면서, 어찌 박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여포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사람들이 고순을 데리고 왔다. 조조가 물었다. "네게 할 말이 있느냐?" 하지만 고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는 화가 나 그를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서황이 진궁을 데리고 왔다. 조조가 물었다. "공태, 그동안 별 거 없으셨소?" 진궁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보가 바르지 못하기에 나는 그대를 버린 것이오!" 조조가 말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홀로 여포를 따랐단 말이오?" 진궁이 대답했다. "여포가 비록 꺾는 부족할지언정, 당신처럼 간사하고 교활하지는 않소." 조조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스스로 지략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더니, 지금 결과가 어떠한가?" 진궁은 여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 만약 내 말을 들었다면 결코 붙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조가 물었다. "오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진궁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나는 죽을 뿐이오!" 조조가 말했다. "그대가 정 그렇다면, 그대의 노모와 처자식은 어찌한단 말이오?" 진궁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효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으며, 어진 정치를 베푸는 자는 남의 대를 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노모와 처자식이 살고 죽는 것 또한 명백히 명공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은 이미 사로잡혔으니, 즉시 죽여 주십시오.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조조는 진궁을 보내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진궁이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자 좌우에서 붙잡아도 소용이 없었다.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며 그를 배웅했다. 진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조조가 부하들에게 말했다. "즉시 진궁의 노모와 처자를 허도로 보내 노후를 보살피게 하라. 만약 소홀히 대하는 자가 있다면 목을 칠 것이다." 진궁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목을 길게 빼어 형을 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조조는 관에 그의 시신을 담아 허도에 장사 지냈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그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하였다.

"삶과 죽음에 두 마음이 없으니, 대장부의 기개가 참으로 장하구나! 금석같은 (진궁의) 충언을 (여포가) 따르지 않았으니, 동량의 인재를 헛되이 저버렸도다. 주군을 보좌함은 참으로 공경할 만하고, 부모를 하직함은 참으로 애처롭구나. 백문루(白門樓)에서 목숨을 잃던 그날, 누가 기꺼이 공태(진궁) 같을 수 있으랴!"

조조가 진궁을 데리고 누각 아래로 내려갈 때, 여포가 유비에게 말했다. "공께서는 귀한 손님이 되셨고, 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십니까?" 유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조조가 누각 위로 올라오자 여포가 외쳤다. "명공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오직 저뿐입니다. 저는 이제 항복했습니다. 공께서 대장이 되시고 제가 보좌한다면 천하를 평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유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유비가 대답했다. "정건양과 동탁의 일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포가 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놈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다!"

조조가 명령하여 여포를 끌어내린 뒤 목을 매달아 죽게 하고, 그 머리를 베어 전시하게 했다. 훗날 어떤 이가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거센 물결 하비 땅을 삼키던 날, 여포가 사로잡히던 그 시절을 보라. 천 리를 달리는 적토마만 덩그러니 남았고, 방천화극 한 자루만 허망하게 남아 있구나. 호랑이를 묶어두고 너그럽게 대하려 한 것은 너무나 약한 처사였고, 매를 길러 배불리 먹인 것은 의심을 사지 않으려 했던 어리석음이었네. 아내를 아끼느라 진궁의 간언을 듣지 않으니, 은혜도 모르는 저 큰 귀를 가진 놈이라 욕할 수밖에 없구나."

또 어떤 시인이 유비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굶주린 호랑이가 묶여 있으니 그 결박을 풀어주면 어떠하리. 동탁과 정원이 흘린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데, 아비까지 잡아먹는 자를 어찌 그냥 두겠는가? 차라리 그를 붙잡아 두어 조조를 해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편, 무사들이 장료를 붙잡아 끌고 왔다. 조조가 장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 참으로 낮이 익구나." 장료가 대답했다. "북양 성안에서 뵈는 적이 있는데, 어찌 잊으셨습니까?"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네

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장료가 말했다. "다만 아쉬울 따름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무엇이 그리 아쉽단 말이냐?" 장료가 외쳤다. "그날 불길이 그리 세지 않아, 당신 같은 국적(나라의 도둑)을 태워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해 소리쳤다. "패장 주제에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조조는 검을 뽑아 들고 직접 장료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장료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목을 길게 빼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때 조조의 뒤에서 한 사람이 그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이 조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승상, 제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여포는 구원받으려 애써도 아무도 돕지 않았으나, 도적이란 욕먹던 장료는 오히려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과연 장료를 구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0회 — 조아만이 허전을 에워싸고, 동국구가 내각에서 조서를 받다

曹阿瞞許田打圍 董國舅內閣受詔

이야기는 이러하다. 조조가 칼을 들어 장료를 죽이려 하자, 유비가 그의 팔을 붙들었고 관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비가 말했다. "이토록 충심이 깊은 인재는 마땅히 살려두어 써야 합니다." 관우도 거들었다. "저 관우도 장료가 충의를 갖춘 선비임을 잘 알고 있으니,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지키고 싶습니다." 조조는 칼을 던지며 웃으며 말했다. "나 또한 장료가 충의로운 사람임을 안다. 그저 농담을 해본 것이니라." 그러고는 직접 장료의 포박을 풀어주고,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주며 상석으로 정중히 안내했다. 장료는 조조의 뜻에 감동하여 마침내 행복했다. 조조는 장료를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관내후의 작위를 내렸으며, 장패를 투항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장패는 여포가 이미 죽었고 장료도 행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부하들을 이끌고 투항했다. 조조는 그들에게 두터운 상을 내렸다. 장패는 이어 손관, 오돈, 윤례까지 투항하도록 이끌었으나, 창희만은 끝내 행복하지 않았다. 조

조는 장패를 낭야상으로 봉했다. 손관 등도 각각 관직을 내려 청주와 서주의 해안 지역을 지키게 했다. 이어 여포의 처자와 딸들을 실어 허도로 돌아왔다. 조조는 삼군에 큰 상을 내린 뒤 진영을 거두고 군사를 돌렸다. 서주를 지나갈 때, 그곳 백성들은 향을 피워 길을 막고 서서 유비가 다시 서주의 목민관이 되어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다. 조조가 말했다. "유비는 공이 크니, 내가 직접 그를 만나 작위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यो."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조조는 차기장군 차주에게 서주를 다스리게 했다. 조조의 군대가 허창으로 돌아오자, 조조는 출정에 나섰던 이들에게 봉상과 상을 내렸고, 유비를 상부 근처의 저택에 머물게 하여 안정을 취하게 했다.

다음 날, 헌제가 조회를 열자 조조는 유비의 군공을 보고하며 그를 황제 앞에 불러냈다. 유비는 예복을 갖춰 입고 붉은 계단 아래에서 절을 올렸다. 황제가 대전 위로 불러 물었다. "그대의 조상은 누구인가?" 유비가 대답했다. "신은 중산정왕의 후손이며, 효경제 폐하의 현손이자 유웅의 손자이며 유흥의 아들입니다." 황제는 종족의 족보를 가져와 확인해 보라고 명한 뒤, 종정경에게 족보를 소리 내어 읽게 했다. "효경제에게는 열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일곱째 아들이 바로 중산정왕 유승이다. 유승은 육성정후 유정을 낳았다. 유정은 패후 유앙을 낳았다. 유앙은 장후 유록을 낳았다. 유록은 기수후 유련을 낳았다. 유련은 흠양후 유영을 낳았다. 유영은 안국후 유건을 낳았다. 유건은 광릉후 유애를 낳았다. 유애는 교수후 유현을 낳았다. 유현은 조읍후 유서를 낳았다. 유서는 기양후 유의를 낳았다. 유의는 원택후 유필을 낳았다. 유필은 영천후 유달을 낳았다. 유달은 풍령후 유불의를 낳았다. 유불의는 제천후 유혜를 낳았다. 유혜는 동군 범령 유웅을 낳았다. 유웅

은 유홍을 낳았다. 유홍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유비가 바로 유홍의 아들이다."

헌제가 족보의 세대를 따져보니, 유비가 황제의 숙부뻘임이 드러났다. 헌제는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편전으로 모셔 숙부와 조카 사이의 예를 갖추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조조가 권력을 휘둘러 나라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이제 이런 영웅을 숙부로 모시게 되었으니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여겼다. 이어 유비를 좌장군 의성정후로 봉하였다. 연회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한 뒤 유비는 은혜에 감사하며 궁을 나섰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유황숙이라 불렀다.

조조가 집으로 돌아오자, 순욱을 비롯한 책사들이 찾아와 말했다. "천자가 유비를 황숙이라 인정했으니, 이는 명공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그가 이미 황제의 숙부로 인정받았다면, 내가 천자의 조서로 명령을 내릴 때 그는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그를 허도에 머물게 하여 곁으로는 황제 곁에 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내 손아귀 안에 두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태위 양표가 원술과 친척 관계라는 점이다. 만약 그가 두 원씨(원소·원술)와 내응한다면 그 해악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즉시 그를 제거해야겠다." 조조는 곧바로 사람을 몰래 보내 양표가 원술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고발을 하게 했다. 그리하여 양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만총에게 그를 다스리도록 명했다.

한편, 북해태수 공옹이 허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조조에게 이렇게 간언했다. "양표 공은 4대째 청렴하고 덕망 높은 가문인데, 어찌 원씨 일가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이것은 조정의 뜻이오." 공옹이 다시 말했다. "만약 (어린) 성왕이 소공을 죽였다 한들, 주공께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조는 어쩔 수 없이 양표의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때 의랑 조언은 조조의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하여, 조조가 황제의 뜻을 받들지 않고 대신들을 마음대로 잡아 가두는 죄를 저질렀다고 상소를 올려 그를 탄핵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즉시 조언을 잡아 처형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든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다. 조조의 모사인 정욱이 조조에게 말했다. "지금 명공의 위명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 어찌 이 기회를 틈타 왕업과 패업을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조정에는 아직 황제를 떠받치는 신하들이 많으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오. 우선 천자께 사냥을 청하여 그 동정을 살펴보겠소."

조조는 좋은 말과 명응(좋은 때), 날랜 개를 골라 뽑고 활과 화살까지 모두 갖추었다. 먼저 군사를 모아 성 밖에 집결시킨 뒤, 황제에게 들로 나가 사냥을 하자고 청했다. 헌제가 "사냥을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걱정스럽소"라고 말하자, 조조가 대답했다. "옛날의 제왕들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마다 교외로 나가 사냥을 행하며 천하에 무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온 세상이 어지러운 때야말로 사냥을 빌미로 군사들을 훈련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헌제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즉시 소요마에 올라 보물인 보조궁과 금비전(금빛 화살)을 챙기고, 화려한 어가를 갖추어 성을 나섰다. 유비와 관우, 장

비도 각자 활을 메고 화살을 쏜 채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손에 든 채,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어가를 따라 허창을 나섰다. 조조는 조황비전마를 타고 십만 대군을 이끌며 황제와 함께 허전에서 사냥을 시작했다. 군사들이 사냥터를 넓게 펼치니 그 둘레가 이백여 리에 달했다. 조조는 황제와 나란히 말을 달렸는데, 말 머리 하나 차이 밖에 나지 않을 만큼 바짝 붙어 있었고, 그 뒤에는 모두 조조의 심복 장수와 장교들이 버티고 있었다. 문무백관들은 멀찍이서 시종할 뿐, 감히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날 헌제가 말을 달려 허전으로 오니, 유비는 길가에 서서 맞이하고 있었다. 헌제가 말했다. "짐이 오늘 황숙의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유비가 명을 받들어 말에 올라타자, 갑자기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유비가 화살을 쏘니 화살이 토끼의 정중앙에 명중했다. 헌제가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언덕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가시덤불 속에서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헌제가 연달로 세 발의 화살을 쏘았으나 모두 맞이지 못했다. 헌제가 조조를 돌아보며 말했다. "경이 한번 쏘시오." 조조가 황제의 보물인 독수리 깃털 활과 금빛 화살을 가져와 시위를 가득 당겨 쏘니, 화살이 사슴의 등 중앙에 명중하여 사슴이 풀숲에 쓰러졌다.

신하들과 장수들은 금빛 화살을 보고는 황제가 맞힌 줄로만 알고, 모두 기뻐하며 황제를 향해 만세를 외쳤다. 이때 조조가 말을 타고 곧장 달려 나가 황제의 앞을 가로막으며 사슴을 가로채려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얼굴빛이 변하며 당황했다.

유비의 뒤에 서 있던 관우가 크게 분노했다. 관우는 눈썹을 치켜뜨고 단봉형의 눈을 부릅뜨더니, 칼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조조를 बे기 위해 달려나갔다. 이를 본 유비가 황급히 손을 흔들며 눈짓을 보내 만류했다. 관우는 형님이 이토록 간곡히 말하자 차마 움직이지 못했다. 유비는 몸을 굽혀 조조에게 축하를 건네며 말했다.

"승상의 활숨씨는 신기에 가까워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조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모두 천자의 큰 복 덕분이지요."

그러고는 말을 돌려 헌제에게 축하를 올렸으나, 보물인 조각된 활을 다시 바치지 않고는 직접 허리춤에 차 버렸다.

사냥이 끝나고 허전에서 잔치가 열렸다. 잔치가 끝나자 모두 수레를 타고 허도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그때 관우가 유비에게 물었다. "조조는 임금을 속이고 위를 기만하는 도적입니다. 제가 저놈을 죽여 나라의 해를 없애고자 하는데, 형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저를 말리시는 겁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쥐를 잡으려 해도 그릇을 깨뜨릴까 두려운 법이라네. 조조는 황제와 말 한 마리 거리만큼이나 가까이 있고, 그의 심복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호위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자네가 한때의 분노

를 참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황제께 결례를 범하는 셈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네."

관우가 다시 말했다. "오늘 저 도적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일단은 이 일을 비밀로 하고, 절대로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네."

한편, 헌제가 궁으로 돌아와 복황후에게 울며 말했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간사한 영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소. 먼저 동탁에게 화를 입더니, 뒤이어 이각과 곽사의 난리까지 겪었지. 남들은 겪지 않을 고통을 나와 당신이 겪어지고 있구려. 그나마 조조를 얻었을 때는 사직을 지킬 신하가 될 줄 알았건만, 뜻밖에도 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위세와 형벌을 부리고 있소.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등에 가시가 박힌 듯 괴롭소. 오늘 사냥터에서는 조조가 몸소 나서서 (짐에게 바쳐야 할) 환호와 하례를 가로채 받았으니, 그 무례함이 이미 극에 달했구려! 머지않아 반드시 흉계가 있을 터이니, 우리 부부는 어디서 죽을지조차 알 수 없는 신세가 되었소!" 그러자 복황후가 대답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한나라의 녹봉을 먹고 있으면서, 어찌 나라의 위기를 구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폐하와 황후께서는 근심을 거두소서. 제가 사람을 한 명 추천할 터이니, 나라의 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그를 바라보니, 바로 복황후의 아버지인 복완이었다. 황제는 눈물을 닦으며 물

었다. "장인어른께서도 조조라는 도적의 전횡을 알고 계십니까?" 복완이 대답했다. "허전에서 사슴을 쏘던 일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조정에 가득한 이들이 조조의 일가친척이거나 그의 수하들뿐입니다. 황실의 친척이 아니라면 누가 온 마음을 다해 도적을 토벌하려 하겠습니까? 늙은 신하인 저에게는 권력이 없어 이 일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차기장군이자 국구인 동승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동승이 나라의 위기에 여러 번 앞장서 온 것을 나도 평소 잘 알고 있소.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큰일을 논의하겠소." 복완이 말했다. "폐하의 곁에는 모두 조조의 심복들뿐입니다. 만약 일이 새어 나간다면 그화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하겠소?" 복완이 말했다. "신에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폐하께서 옷 한 벌과 옥대 하나를 만드셔서 동승에게 몰래 하사하십시오. 그리고 옥대 안쪽 받침에 밀지를 꿰매어 보내시면, 동승이 집에 도착하여 밀지를 확인하고는 밤낮으로 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도 모르게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헌제가 그렇게 명령하자, 복완은 사양하며 물러났다. 헌제는 직접 밀지를 작성한 뒤, 손가락 끝을 깨물어 피로 글을 썼다. 그리고는 복후에게 그 밀지를 비단띠 안쪽에 꿰매 넣게 한 다음, 스스로 비단 도포를 입고 그 띠를 맸다. 그리고 나서 내사에게 명하여 동승을 불러들이게 했다.

동승이 들어와 예를 갖추자 헌제가 말했다. "밤새 황후와 함께 나라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국구(황후의 아버지)의 큰 공을

생각하여 특별히 불러 위로하고자 하노라." 동승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헌제는 동승을 데리고 전각 밖으로 나와 태묘로 향하더니, 공신들이 모셔진 각 안으로 들어갔다. 헌제가 향을 피워 예를 마친 뒤 동승을 데리고 초상화를 구경했다. 한가운데에는 한나라 고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헌제가 물었다. "우리 고조 황제께서는 어디서 일어나 어떻게 창업을 하셨느냐?" 동승이 깜짝 놀라 대답했다. "폐하, 신을 놀리시는군요. 성조의 일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고조 황제께서는 사상 지역의 정장에서 일어나 세 자 칼을 들고 뱀을 베며 의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사해를 종횡무진하며 3년 만에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5년 만에 초나라를 멸하여 천하를 얻으셨으니, 마침내 만세에 길이 남을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헌제가 탄식하며 말했다. "조상님들은 이토록 영웅적이셨는데, 자손들은 이토록 나약하니 어찌 탄식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좌우에 있는 두 보좌관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두 사람은 유방의 유후 장량과 소하가 아니냐?" 동승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고조께서 기틀을 닦고 창업하신 것은 참으로 이 두 사람의 힘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헌제는 좌우의 초상화를 멀리서 한 번 훑어보더니, 동승에게 은밀히 말했다. "경 또한 이 두 사람처럼 내 곁에 서 있어야 하느니라." 동승이 말했다. "신은 아무런 공도 없는데 어찌 그 자리에 어울리겠습니까?" 헌제가 말했다. "경이 서도에서 황제를 구한 공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는 도

포와 띠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경은 마땅히 내가 입은 이 도포를 입고 이 띠를 매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동승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현재는 도포와 띠를 풀어 동승에게 하사하며 은밀히 당부했다. "경은 돌아가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부디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동승은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옷을 챙겨 입고 띠를 묶은 뒤, 현재에게 작별을 고하고 각에서 내려와 궁 밖으로 나왔다. 그때 누군가 조조에게 달려가 "황제께서 동승과 함께 공신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라고 보고했다. 조조가 즉시 궁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동승이 막 각에서 나와 궁문을 지나던 참에 조조와 마주치고 말았다. 피할 곳이 없었던 동승은 길가에 서서 예를 갖추 수밖에 없었다. 조조가 물었다. "국구께서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동승이 대답했다. "방금 천자께서 저를 부르셔서 비단 도포와 옥띠를 하사하셨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그런 하사를 받으셨습니까?" 동승이 말했다. "제가 예전에 서도(장안)에서 황제를 구했던 공을 생각하여 내려주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띠를 풀어 내게 보여주시오." 동승은 옷띠 안에 분명 밀지가 들어 있음을 알고, 조조가 눈치챌까 두려워 띠를 푸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조조가 좌우의 부하들에게 꾸짖었다. "어서 풀어 내놓지 못할까!" 조조는 한참 동안 살펴보다니 웃으며 말했다. "과연 좋은 옥띠로군. 다시 비단 도포도 벗어 내게 보여주시오." 동승은 마음속으로 겁이 났으나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도포를 벗어 올렸다. 조조는 직접 손으로 도포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어가며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다 살펴본 조조는 도포를 직접 몸에 걸치고 옥띠

까지 묶은 뒤,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길이가 적당한가?" 좌우의 부하들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조조가 동승에게 말했다. "국구께서 이 도포와 띠를 그대로 내게 넘겨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동승이 대답했다. "황제께서 내려주신 것이니 감히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국구께서 이 옷과 띠를 받으신 것을 보니, 혹시 그 안에 무슨 모략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오?" 동승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승상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남겨두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공이 황제께 받은 것을 내가 어찌 빼앗겠소? 그저 농담을 한 것이오." 그러고는 도포와 띠를 다시 동승에게 돌려주었다.

동승은 조조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옷을 정성스럽게 뒤집어가며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동승이 혼잣말로 말했다. "천자께서 내게 옷과 띠를 내리시며 자세히 살펴보라고 명하셨으니, 분명 뜻이 있을 터인데 어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다시 옥대를 가져와 살펴보았다. 백옥이 영롱하게 빛나고 작은 용이 꽃 사이를 누비는 듯한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며, 안감은 자줏빛 면으로 깔끔하게 꿰매어져 있었으나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의구심이 생긴 동승은 옥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몇 번이고 다시 찾아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몹시 피곤해졌다. 막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등잔불의 재가 옥대 위로 떨어지며 안감을 태우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닦아내 보니 이미 한 곳이 타서 구멍이 났고, 그 사이로 흰 비단이 살짝 드러나며 핏자국이 보였다. 급히 칼을 가져와 뜯어보니, 그것은 천자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비밀 밀지였다. 밀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짐이 듣기에 인륜의 큰 도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으뜸이며, 높고 낮음의 구별 중에는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가장 중하다. 근래에 조조라는 역적이 권력을 휘두르며 임금을 속이고 핍박하고 있다. 무리를 지어 결탁함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상을 내리고 벌을 주는 일조차 짐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 짐은 밤낮으로 근심하며 천하가 위태로워질까 두렵도다. 경은 나라의 대신이자 짐의 친척이니, 마땅히 고조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충성과 의리를 모두 지킬 열사들을 모으라. 간신 무리를 멸하고 사직을 다시 안녕하게 만든다면 조상님들께서도 다행히 여기실 것이다! 짐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이 밀지를 경에게 맡기니, 몇 번이고 신중히 행하여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건안 4년 봄 3월, 황제의 조서이다.

동승은 밀지를 다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서원으로 가서 황제의 조서를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았으나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조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조를 없앨 계책을 깊이 고민하다가, 책상에 기대어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때 시랑 왕자복이 찾아왔다. 문지기는 왕자복과 동승이 매우 친한 사이임을 알고 감히 막지 못한 채 그를 서원 안으로 들여보냈다. 왕자복은 동승이 엎드려 잠든 채 소매 밑으로 흰 비단 조서가 살짝 드러나 있고, 그 위에 '짐(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조서를 살펴본 뒤 소매 속에 숨기고는 동승을 깨우며 말했다.

"국구(國舅)께서는 참으로 태평하시구려! 어찌 잠이 오시는가!"

동승은 깜짝 놀라 눈을 떴으나 조서가 보이지 않자, 혼비백산하여 손발을 허둥거렸다. 그러자 왕자복이 말했다. "자네, 조조를 죽이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가서 고발하겠네." 동승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형님께서 이러시면 한나라는 끝장입니다!" 왕자복이 말했다. "농담이었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한나라의 녹봉을 먹어왔는데, 어찌 충심이 없겠는가? 형님을 도와 함께 나라의 도적을 처단하고 싶네." 동승이 대답했다. "형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니, 이는 나라의 큰 다행입니다." 왕자복이 이어서 말했다. "밀실에서 함께 의장(義狀, 서약서)을 쓰고, 각자 삼족을 내걸어서라도 한나라 황제께 보답해야 하네." 동승은 크게 기뻐하며 흰 비단 한 폭을 가져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을 두었다. 왕자복 역시 즉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을 두었다. 글을 다 적은 후 왕자복이 말했다. "장군 오자란은 나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니, 그와 함께 도모해도 좋겠네." 동승이 말했다. "조정의 대신 중에는 장수교위 종집과 의랑 오석만이 나의 심복이니, 반드시 나와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네."

한창 의논하던 중에 집안의 종이 종집과 오석이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동승이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러고는 왕자복을 잠시 병풍 뒤로 피하게 했다. 동승은 두 사람을 서원으로 불러들였다. 자리에 앉아 차를 다 마시자 종집이 물었다. "허전의 사냥 사건에 대해 그대 역시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동승이 대답했다. "원한은 품고 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구려." 그러자 오석이 말했다. "나는 반드시 저 도적을 죽이겠소. 다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스러

울 뿐이오!" 종집 역시 거들었다. "나라를 위해 해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소." 이때 병풍 뒤에 있던 왕자복이 나타나며 말했다. "너희 둘이 조 승상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가서 고발할 것이니, 동 국구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종집이 화를 내며 외쳤다.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 한나라의 귀신이 되는 것이, 너처럼 나라를 망치는 역적에게 아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자 동승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 두 공을 뵈고자 한 것이라네. 왕 시랑의 말은 농담일 뿐이네." 동승은 소매 안에서 조서를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조서를 읽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동승은 곧 조서에 이름을 적도록 청했다. 왕자복이 말했다. "두 공께서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오자란을 모셔 오겠습니다."

자복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란과 함께 도착하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동승은 그들을 뒷방으로 청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한창 즐기려는데, 갑자기 서량태수 마등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승이 말했다. "그저 내가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만나지 말라고 하라." 문지기가 돌아가 보고하자 마등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간밤에 동화문 밖에서 그가 비단 도포에 옥띠를 두르고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병을 핑계로 피한단 말인가! 내가 할 일 없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어찌 나를 거부한단 말인가!" 문지기가 다시 들어가 마등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동승이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시 나가 보겠습니다." 동승은 즉시 대청으로 나가 마등을 맞이했다. 예를 갖춘 뒤 자리에 앉자 마등이 말했다. "이 마등이 황제를 알현하고 이제 막

돌아가려던 참이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인데, 어찌하여 저를 피하셨습니다니까?" 동승이 대답했다. "몸이 갑자기 아파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으니 그 죄가 큼니다." 그러자 마등이 말했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전혀 아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승은 아무 말 없이 대답할 수 없었다. 마등은 소매를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며 탄식하며 말했다.

“모두 나라를 구할 인물이 아니로구나!”

동승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를 붙잡으며 물었다.

“공께서는 어떤 이들이 나라를 구할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등이 대답했다.

“허전에서 있었던 사냥 사건을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가슴이 울컥하며 분노가 치밀니다. 공께서는 황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면서도 여전히 술과 여자에 빠져 적을 토벌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어찌 황실의 재난을 구하고 나라를 도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승은 마등이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겁이 나 짐짓 놀란 체하며 말했다.

“조조 승상은 나라의 큰 신하이며 조정이 의지하는 분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등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대는 아직도 조조 같은 도적을 좋은 사람이라 여기는가?”

동승이 말했다.

“주변에 귀가 밝은 이들이 많으니 부디 목소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마등이 말했다.

“살기 위해 비겁하게 구는 자들은 큰일을 논하기에 부족하오!”

말을 마친 마등이 다시 일어나려 했다. 동승은 마등의 충성심과 의로움을 알기에 말했다.

“공, 부디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등을 서원으로 데려가 황제의 밀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마등은 글을 다 읽고 나자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이를 악물며 입술을 깨물어 입안에 피가 가득 고였다. 그는 동승에게 말했다. "공께서 만약 거사를 일으키신다면, 내가 즉시 서량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밖에서 호응하겠습니다." 동승은 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의장(서약서)을 꺼내 마등에게 이름을 적게 했다. 마등은 술을 가져와 피를 입에 발라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 죽기로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있는 다섯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열 명만 모은다면 대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동승이 말했다. "충의를 가

진 선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함께하는 이들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리어 서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마등은 백관의 명부를 가져오게 하여 살펴보았다. 명부를 살피다 유씨 종족의 이름을 발견한 마등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어찌하여 이 사람과 함께 상의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모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마등은 침착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국구가 황제의 밀조를 받든 데 이어, 한나라를 보좌할 종친이 나타난 것이었다. 결국 마등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1회 — 조조가 술을 끓이며 영웅을 논 하고, 관공이 성을 속여 차주를 베다

曹操煮酒論英雄 關公賺城斬車胄

한편, 동승 일행이 마등에게 물었다. "공께서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마등이 대답했다. "여기 예주목 유비를 보면 어떻겠소?"

그러자 동승이 말했다. "그 사람이 비록 황실의 친척이라 해도, 지금은 조조에게 붙어 있는데 어찌 이 일을 함께 하겠습니까?"

마등이 다시 말했다. "내가 지난번 사냥터에서 본 바로는, 조조가 사 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설 때 관우가 유비의 뒤에서 칼을 뽑아 들고 조조를 죽이려 했습니다. 유비가 눈짓으로 그를 만류하여 멈추게 했지요. 유비가 조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조의 수하 들이 너무 많아 힘이 부족할까 봐 염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께서 한번 청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오석이 덧붙였다. "이 일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니, 차분하게 상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말을 마친 이들은 모두 흠어들었다.

다음 날 밤, 동승은 황제의 밑지를 품에 안고 유비의 집으로 곧장 찾아갔다. 문지기가 보고하자 유비가 마중 나가 그를 작은 누각으로 모셔 앉혔다. 관우와 장비는 그 곁에 시립해 있었다. 유비가 말했다. "국구께서 이 깊은 밤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필시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이겠지요." 동승이 대답했다. "낮에 말을 타고 찾아뵈려 했으나, 혹시 조조가 의심할까 두려워 밤을 틈타 찾아왔습니다." 유비가 술을 가져오라 명하자 동승이 물었다. "지난번 사냥터에서 관우가 조조를 죽이려 했을 때, 장군께서는 눈짓으로 그를 만류하며 물러나게 하셨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 일을 어찌 아셨습니까?" 동승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나, 저만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말했다. "제 동생이 조조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동승은 얼굴을 가린 채 울며 말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관우와 같다면, 세상이 어지러울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유비는 혹시 조조가 자신을 시험하려고 동승을 보낸 것은 아닌지 두려워져,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조 승상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상이 어지러울 것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자 동승은 안색이 변하며 일어나 외쳤다. "공은 한나라의 황숙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간이라도 빼줄 심정으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국구께서 혹시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동승은 황제의 밑지가 담긴 의대조를 꺼내 보여주었다. 유비는 슬프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동승은 이어 거사를 함께할 의사들의 명단을 내보였는데, 명단에는 총 여섯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첫째는 차기장군 동승, 둘째는 공부시랑 왕자복, 셋째는 장수교위 종집, 넷째는 의랑 오석, 다섯째는 소신장군 오자란, 여섯째는 서량태수 마등이었다.

유비가 말했다. "동승 공께서 이미 황제의 명을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려 하시니, 저 유비가 어찌 미천한 힘이나마 보태지 않겠습니까."

동승은 유비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는 유비에게 이름을 적어달라고 청했다. 유비 역시 '좌장군 유비'라고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동승에게 건네주었다.

동승이 말했다. "아직 세 사람을 더 모셔 총 열 명의 의사를 결성한 뒤, 본격적으로 나라의 역적을 토벌하고자 합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반드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일이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밤새도록 회의를 이어가다 새벽 다섯 시가 되어서야 서로 작별하고 헤어졌다. 유비 역시 조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일부러 후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직접 물을 주는 등 자신의 뜻을 숨기고 은둔하는 척했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가 말했다. "형님께서서는 천하의 대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소인배들이나 하는 일에 매달리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그것은 너희 둘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관우와 장비가 자리에 없는 사이 유비가 후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이때 허저와 장료가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정원으로 들어와 말했다. "승상께서 명하셨으니, 즉시 가지지요." 유비가 놀라 물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허저가 대답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저 저더러 모셔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따라 조조를 만나러 부 안으로 들어갔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집에서 아주 큰일을 하고 계셨구려!" 그 말에 유비의 얼굴은 흠뻑이 되었다. 조조는 유비의 손을 잡고 후원까지 데려가며 말했다. "유비가 채소밭 가꾸는 일을 배우느라 쉽지 않겠구려." 그제야 유비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그저 소일거리로 하는 일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방금 가지에 푸른 매실이 맺힌 것을 보았는데, 문득 작년에 장수를 정벌할 때가 떠올랐소. 길에 물이 없어 장졸들이 모두 목말라하던 때였지. 그때 내가 피를 내어 채찍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앞에 매실나무 숲이 있다!'라고 외쳤소.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이 입에 침이 고여 갈증을 잊었지. 이제 이 매실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마침 술도 알맞게 익었으니, 유비와 함께 작은 정자에서 한잔합시다." 유비는 그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자로 따라갔다. 그곳에는 이미 술상과 안주

가 차려져 있었는데, 접시에는 푸른 매실이 담겨 있고 항아리에는 데운 술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마음껏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갑자기 먹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소나기가 쏟아질 듯했다. 곁에 있던 사람이 하늘 멀리 용 모양의 구름이 떠 있다고 가리키자, 조조와 유비는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조가 물었다. "유비, 용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이치를 아시오?" 유비가 대답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용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고,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며 몸을 숨기기도 하오. 커지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고, 작아지면 몸을 숨겨 자취를 감추지. 하늘로 솟구치면 우주 사이를 날아다니고, 몸을 숨기면 파도 속에 잠겨 있소. 지금은 봄이 깊어 용이 때를 만나 변화하듯, 사람도 뜻을 얻으면 천하를 중형무진 누비는 법이라오. 용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영웅에 비유할 만하지. 유비는 오랫동안 여러 곳을 다녔으니, 반드시 당대의 영웅이 누구인지 알 것이오. 어디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 짚어 말해 보시오."

유비가 말했다. "제가 어찌 영웅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너무 겸손하게 굴지 마시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저는 그저 은혜를 입어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하의 영웅 중에는 제가 정말로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얼굴을 모른다 해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 아니오."

유비가 말했다. "회남의 원술은 군사와 식량이 풍족하니, 영웅이라 부를 만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그놈은 무덤 속의 마른 뼈일 뿐이니,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잡을 것이오!"

유비가 말했다. "하북의 원소는 4대에 걸쳐 삼공의 지위를 지냈고, 문하에 옛 부하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주 땅을 호랑이처럼 차지하고 있으며, 그를 따르는 유능한 인재도 매우 많으니 영웅이라 할 만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원소는 겉모습만 위엄 있을 뿐 담력이 부족하고, 꺾는 많으나 결단력이 없소. 큰일을 도모하면서도 제 몸을 아끼고, 작은 이익을 보면 목숨을 잇는 자이니 영웅이 아니오."

유비가 말했다. "팔준이라 불리며 구주에 위세를 떨치는 이가 있으니, 유표야말로 영웅이라 할 만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유표는 헛된 명성만 있을 뿐 실속이 없으니 영웅이 아니오."

유비가 말했다. "기개가 넘치고 강동의 우두머리인 이가 있으니, 손책이야말로 영웅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손책은 그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고 있을 뿐이니 영웅이 아니오."

유비가 말했다. "익주의 유장도 영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유장은 비록 종실의 후손이라 하나, 그저 집을 지키는 개와 같을 뿐인데 어찌 영웅이라 하겠소!"

유비가 말했다. "그렇다면 장수나 장로, 한수 같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조조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그런 보잘것없는 소인배들을 어찌 입에 올리겠소!"

유비가 말했다. "그들을 제외하면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대저 영웅이란 가슴에는 큰 뜻을 품고 배 속에는 좋은 계책을 가진 자를 말하오. 우주의 기틀을 품고 천지를 삼킬 듯한 기개를 가진 자가 바로 영웅이오."

유비가 물었다. "그 누가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유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이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유비 당신과 나뿐이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손가락과 젓가락을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마침 하늘에 비가 쏟아지려는지 천둥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유비는 태연하게 몸을 굽혀 젓가락을 주우며 말했다.

"천둥소리의 위엄이 이토록 대단하군요."

조조가 웃으며 물었다.

"대장부가 천둥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유비가 대답했다.

"성인께서도 번개와 바람이 몰아치면 반드시 변한다고 하셨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는 젓가락을 떨어뜨린 이유를 이와 같이 재치 있게 돌려대어 위기를 모면했다. 조조는 그제야 유비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호랑이 굴에 잠시 몸을 맡겨 들어가, 영웅의 속마음을 꿰뚫어 사람을 놀라게 하네. 천둥소리를 빌려 교묘히 위기를 가리니,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솜씨가 신통하구나."

비가 막 그칠 무렵, 두 사람이 보검을 손에 쥐고 후원으로 급히 뛰어 들어와 정자 앞까지 들이닥쳤으나 좌우의 호위병들이 미처 막지 못했다. 조조가 살펴보니 바로 관우와 장비였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성 밖에서 활쏘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유비가 허저와 장료에게 불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조조의 저택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후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곳에는 유비가 조조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관우와 장비는 칼을 쥔 채 곁에 서 있었다. 조조가 두 사람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관우가 말했다. "승상께서 형님과 술을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검무를 선보여 즐거움을 더해드리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홍문연(鴻門宴)도 아닌데, 어찌 항장과 항백(項莊, 項伯)이 필요하겠는가?" 유비 또한 함께

웃었다. 조조가 명령했다. "술을 가져와 저 두 번쾌(樊噲)에게 주어 놀란 마음을 달래주어라." 관우와 장비는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잠시 후 술자리가 끝나자 유비는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왔다. 관우가 말했다. "하마터면 우리 둘 다 깜짝 놀라 죽을 뻔했습니다!" 유비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던 일을 관우와 장비에게 설명해 주었다. 장비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유비가 대답했다. "나는 원래 조조가 내가 큰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려 했는데, 뜻밖에 조조가 나를 영웅이라 칭하니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게다가 조조가 의심할까 두려워 천둥소리에 놀란 척하며 얼버무린 것이란다." 관우와 장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형님, 정말 대단한 지략이십니다!"

다음 날 조조가 다시 유비를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만총이 원소의 세력을 살피러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조가 만총을 불러 상황을 묻자 만총이 대답했다.

"공손찬이 이미 원소에게 패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비가 급히 물었다.

"그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총이 말했다. "공손찬이 원소와 싸워 불리해지자, 성을 쌓고 주변을 에워싼 뒤 그 위에 높이 열 장에 달하는 이경루라는 누각을 세웠습니다. 곡식 30만 석을 쌓아두고 스스로를 지키며 병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게 했습니다. 간혹 원소에게 포위당한 이가 생겨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공손찬이 '한 사람을 구해주면,

나중에 싸우는 이들은 구원만 바라볼 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끝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소의 군대들이닥치자 많은 병사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공손찬은 세력이 고립되자 사람을 보내 허도로 구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뜻밖에도 도중에 원소의 군대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공손찬이 또 장연에게 서신을 보내 불을 피워 신호로 삼아 안팎에서 호응하기로 몰래 약속했으나, 서신을 전달하던 사람이 원소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오히려 성 밖에서 불을 피워 적을 유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손찬이 직접 나가 싸웠으나 사방에서 복병이 나타나 군마의 태반을 잃었습니다. 성안으로 퇴각해 수비했으나, 원소의 군대가 땅을 뚫고 공손찬이 머물던 누각 아래까지 들이닥쳐 불을 질렀습니다. 공손찬은 도망갈 길이 없자 먼저 처자식을 죽인 뒤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고, 온 가족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제 원소가 공손찬의 군대를 얻어 기세가 매우 드높습니다. 한편 원소의 동생 원술은 회남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술은 사람을 보내 황제의 칭호를 원소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원소가 옥새를 차지하려 하자, 원술은 자신이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술은 지금 회남을 버리고 하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급히 토벌하기 어려워집니다. 승상께서 서둘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유비는 공손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자신을 추천해 주었던 그의 은혜를 떠올리며 슬픔을 금치 못했다. 또한 조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을 놓지 못했다. 유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기회에 몸을 피할 방도를 찾지 않으면, 대체 언제 찾겠는가?' 유

비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조조에게 말했다. "원술이 원소를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서주를 거쳐 올 것입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중간에서 습격한다면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 황제께 보고드리고 바로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시오."

다음 날, 유비가 현제를 알현하여 보고를 올렸다. 조조는 유비에게 5만 명의 군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명하고, 주령과 노소를 수행원으로 붙여주었다. 유비가 황제에게 작별을 고하자, 현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다. 유비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밤을 새워 군기와 말안장을 챙기고 장군의 인장을 걸어둔 채 서둘러 출정 채비를 마쳤다. 동승은 십 리 밖에 있는 장정까지 달려 나와 그를 배웅했다. 유비가 말했다. "국구께서는 부디 참아 주십시오. 이번 일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 보답하겠습니다." 동승이 대답했다. "부디 유념하여 황제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말 위에 올라탄 관우와 장비가 유비에게 물었다. "형님, 이번 출정은 어찌 이리 서두르시는 겁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새장에 갇힌 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네. 이번 행차는 마치 물고기가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새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으니, 더 이상 새장과 그물의 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네." 그러고는 관우와 장비에게 주령과 노소의 군마를 재촉하여 속히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한편, 곽가와 정욱은 군량과 자금을 점검하고 막 돌아오던 길에 조조가 이미 유비를 서주로 출병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달려와 간언했다. "승상, 어찌하여 유비에게 군사를 맡기셨습니까?" 조조가 말했

다. "원술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욱이 말했다. "예전에 유비가 예주목이었을 때 저희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청했으나 승상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군사를 내어주시다니, 이는 용을 바다에 풀어주고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격입니다. 나중에 그를 다스리려 한들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곽가도 거들었다. "승상께서 설령 유비를 죽이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하루라도 적을 놓아주면 만세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디 통찰하여 주십시오."

조조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허저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유비를 반드시 추격해 돌아오게 하라고 명했다. 허저는 명을 받들어 떠났다.

한편, 유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편에서 갑자기 먼지 구름이 크게 일어났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저것은 필시 조조의 군사가 뒤쫓아오는 것이로다." 유비는 즉시 진영을 내려,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무기를 들고 양옆에 서게 했다.

이때 허저가 도착했는데, 군사들이 엄격하게 대열을 갖추고 갑옷을 갖춰 입은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 유비를 만나러 진영으로 들어갔다. 유비가 물었다. "그대가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는가?" 허저가 대답했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장군을 특별히 모시고 돌아가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장수가 밖에 있으면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라네. 나는 조조를 직접 대면하기도 했고, 또 승상의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은 다른 생각이 없네. 그러니 그대는 어서 돌아가 나를 대신해 승상께 이 말을 전해주게."

허저가 속으로 생각했다. '승상께서 저 사람과 평소 친하게 지내시는데, 이번에는 싸우라고 시키지도 않으셨으니, 그저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다음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허저는 유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군사를 거느려 돌아갔다. 돌아온 허저가 조조에게 유비가 한 말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조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정욱과 곽가가 말했다. "유비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니, 분명 마음이 변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에게는 주령과 노소가 있으니, 그 두 사람이 그곳에 있는 한 유비가 감히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요. 하물며 내가 이미 군사를 보냈는데 어찌 다시 생각을 바꾸겠소?" 조조는 결국 유비를 더 이상 쫓지 않았다.

후대의 어떤 이가 유비를 찬양하며 시를 지어 읊었다.

"말과 병사를 서둘러 채비하여 길을 떠나니, 마음속에는 옷띠 속에 숨긴 황제의 밀지를 품었도다. 철창을 부수고 호랑이와 표범을 피해 달아나듯, 금빛 자물쇠를 풀고 용과 이무기를 타고 날아오르는구나."

한편, 마등은 유비가 떠난 것을 보고 급한 전갈이 이어지자 서량으로 돌아갔다. 유비의 군대가 서주에 도착하자, 서주자사 차주가 마중을 나왔다. 공식 연회가 끝난 뒤 손건과 미축 등이 모두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유비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살피는 한편, 사람을 보내 원술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첩자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원술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는 사이, 뇌박과 진란은 모두 송산으로 떠났습니다. 원술의 세력이 크게 약해지자, 그는 원소에게 황제의 칭호를 양보하겠

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원소가 사람을 보내 원술을 불러들이자, 원술은 군사와 궁궐의 물품들을 챙겨 먼저 서주로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유비는 원술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관우, 장비, 주령, 노소를 거느리고 5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 선봉장 기령을 맞이했다. 장비는 말 한마디 섞을 것도 없이 곧장 기령을 향해 달려들었다. 열 합도 채 되지 않아 장비가 크게 한 번 호통을 치자, 기령은 말 아래로 떨어지며 쓰러졌다. 패한 군사들이 앞다투어 달아나자 원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러 왔다.

유비는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주령과 노소는 원편에, 관우와 장비는 오른편에 배치하고 유비는 직접 중앙에서 군사를 이끌고 원술과 대치했다. 유비가 원술을 향해 호통치며 말했다. "네놈이 도리에 어긋나는 반역을 저질렀기에, 내가 지금 황제의 명을 받들어 너를 치러 왔다. 어서 항복하여 죄를 면하라!"

그러자 원술이 맞서며 욕설을 퍼부었다. "돛자리나 짜고 신발이나 엮던 미천한 놈이 감히 누구를 능멸하느냐!" 원술은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유비는 잠시 뒤로 물러나며 좌우 양측의 군사가 돌격할 기회를 주었다. 좌우 군사가 기세를 몰아 몰아치자 원술의 군대는 시체가 들판에 가득 쌓이고 피가 도랑을 이룰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도망치는 병졸들은 셀 수조차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嵩山(숭산)의 뇌박과 진란 같은 도적떼에게 군량과 물자까지 모두 약탈당했다. 원술이 수춘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또다시 도적떼의 습격을 받는 바람에 결국 강정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남은 병

력은 겨우 1천여 명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노약자들이었다. 때는 한창 무더운 여름이라 식량은 바닥이 났고, 겨우 남은 보리 30석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자 가족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원술은 밥이 거칠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자, 요리사에게 꿀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요리사가 "지금 피 섞인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꿀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자, 원술은 침상에 앉아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한 말이나 될 법한 많은 양의 피를 토하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때는 건안 4년 6월이었다. 훗날 사람들이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한나라 말기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원술이 까닭 없이 너무나 날뛰었구나. 대대로 공경과 재상을 지낸 가문임을 생각지 않고, 홀로 황제가 되려 했네. 강포한 성품으로 전국의 보물인 옥새를 함부로 자랑하며, 교만하고 사치스럽게 하늘의 상서가 자신에게 응했다고 망언했도다. 목이 말라 꿀물을 찾았으나 얻을 길이 없으니, 빈 침상에 홀로 누워 피를 토하며 죽었구나."

원술이 죽자, 그의 조카 원윤이 관과 가족을 데리고 여강으로 도망쳐 왔으나 서규에게 모두 살해당했다. 서규는 옥새를 빼앗아 허도로 가져가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서규를 고릉 태수로 봉했다. 이로써 옥새는 조조의 손에 들어갔다.

한편 유비는 원술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에는 상소문을 올리고 조조에게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고는 주령과 노소를 허도로 돌려보내 조조에게 보고하게 하고, 자신은 군사들을 남겨 서주를 지키게

한 뒤 직접 성 밖으로 나가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시 생업에 종사하도록 권유했다.

한편, 주령과 노소가 허도로 돌아가 조조에게 유비가 군마를 남겨두고 떠났다고 보고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베려 했으나, 순욱이 "권력은 유비에게 넘어갔으니 두 사람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조조는 그제야 그들을 사면했다. 그러자 순욱이 다시 말했다. "차주에게 편지를 써서 안에서 계획을 꾸미도록 하십시오."

조조는 그의 계책을 따라 몰래 사람을 보내 차주에게 조조의 명령을 전달했다. 차주는 즉시 진등을 불러 이 일을 상의했다. 진등이 말했다.

"이 일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유비가 성 밖으로 백성들을 모으러 나갔으니 머지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들에게 성문 안쪽 옹성에 매복하게 하여, 유비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말이 도착하자마자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제가 성 위에서 유비의 후군을 화살로 묶어두면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차주는 진등의 말대로 했다. 진등이 돌아가 아버지 진규에게 이 일을 보고하자, 진규는 진등에게 먼저 유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명했다. 진등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가던 중, 마침 돌아오던 관우, 장비와 마주쳤다. 진등이 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알고 보니 관우와 장비가 먼저 돌아오고 유비는 뒤따라오고 있었다.

장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이라도 달려가 싸우려 했다.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그가 성벽 근처에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가

면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내게 차주를 죽일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밤을 틈타 조조의 군사로 변장하여 서주로 간 뒤, 차주가 마중 나오게 유도하여 기습해 죽이는 것입니다." 장비가 그 말에 찬성했다. 마침 부하들의 군사들이 원래 조조의 깃발을 달고 있었고 갑옷도 모두 같았다.

그날 밤 삼경이 되자, 군사들이 성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성 위에서 누구냐고 묻자, 사람들은 조조 승상의 명을 받은 장료의 군사라고 대답했다. 이 소식이 차주에게 전해지자, 차주는 급히 진등을 불려 의논했다. "마중 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고, 마중을 나가자니 속임수일까 두렵구나." 차주는 성벽 위로 올라가 대답했다. "밤이 깊어 분간하기 어려우니,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자." 그러자 성 아래에서 대답했다. "유비가 알게 될까 두려우니 어서 문을 여시오!"

차주는 갈팡질팡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성 밖에서 성문을 열라는 외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차주는 어쩔 수 없이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타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조교를 지나 달려가던 차주가 크게 소리쳤다. "장료는 어디 있느냐!" 그때 불빛 사이로 관우가 칼을 치켜든 채 말을 달려 차주를 향해 돌진하며 외쳤다. "이 무도한 놈아, 감히 속임수를 써서 내 형님을 죽이려 하느냐!" 차주는 크게 놀라 싸움을 시작했으나,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어 말머리를 돌려 도망쳤다. 차주가 조교 근처까지 도망가자 성 위에서 진등이 화살을 퍼부었고, 차주는 성 주위를 빙빙 돌며 겨우 빠져나갔다. 관우가 뒤쫓아와 칼을 휘둘러 차주의 말 아래를 내리치더니, 그의 목을 베어 들고 성 위를 향해 외쳤다. "반역자

차주를 내가 이미 죽였으니, 다른 이들은 죄가 없으니 행복하라!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러자 군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버리고 행복하였고, 군사와 백성 모두 평안을 되찾았다.

관우는 차주를 맞이하러 가 유비에게 차주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일을 상세히 알리고, 이미 차주의 목을 베었다고 보고했다. 유비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조조가 만약 찾아온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관우가 대답했다. "저와 장비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유비는 후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서주로 들어갔다. 서주의 노인과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유비를 맞이했다. 유비가 관아에 도착해 장비를 찾으니, 장비는 이미 차주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린 상태였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조조의 심복을 죽였으니, 그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이때 진등이 말했다. "제게 조조를 물리칠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홀몸으로 호랑이 굴을 벗어났으니, 이제 묘책으로 늑대의 기세를 꺾으리라. 과연 진등이 어떤 계책을 내놓을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2회 — 원소와 조조가 각기 군사를 일으키고, 관우와 장비가 왕류 두 장수를 함께 사로잡다

袁曹各起馬步三軍 關張共擒王劉二將

한편, 진등이 유비에게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조조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는 기주, 청주, 유주를 비롯한 여러 군을 호랑이처럼 장악하고 있으며, 무장과 문관을 포함한 병력도 백만에 달할 만큼 막강합니다. 지금 어찌하여 서신을 써서 사람을 보내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원소는 그동안 나와 왕래가 없었을뿐더러, 최근에는 그의 동생까지 격파하였는데 그가 어찌 나를 돕겠는가?” 그러자 진등이 다시 말했다. “이곳에 원소와 3대째 친분을 이어온 가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를 통해 서신을 한 통 보낼 수만 있다면, 원소는 반드시 구하러 올 것입니다.” 유비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묻자, 진등이 답했다. “그분은 평소 유비께서 몸을 굽혀 깎듯이 예우하던 분인데, 어찌 잊으셨습니까?” 유비가 문득 깨닫고 말했다.

“혹시 정현 선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진등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정현은 이름이 현이고, 배움이 깊고 재주가 많아 일찍이 마옹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마옹은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붉은 휘장을 치고 앞에는 제자들을 모았으며, 뒤에는 노래하는 기생들을 세우고 시녀들을 좌우에 늘어세웠다. 정현은 3년 동안 강의를 듣는 동안 눈길 한 번 겹으로 돌리지 않을 만큼 집중했기에, 마옹은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정현이 배움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마옹은 "나의 학문 중 비법을 전수받은 이는 오직 정현 한 사람뿐이다!"라며 탄식했다. 정현의 집안 시녀들은 모두 『시경』에 능통했다. 한번은 한 시녀가 정현의 뜻을 거슬렀기에 정현이 계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길게 서 있게 했다. 그러자 다른 시녀가 장난스레 "진흙탕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자, 그 시녀는 즉시 "그 말을 전하러다가 저 사람의 노여움을 샀구나"라고 시의 구절로 대답할 만큼 그 풍류가 고상했다. 환제 시절에 정현은 상서의 관직에까지 올랐으나, 이후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서주에 머물렀다. 유비가 탁군에 있을 때 이미 정현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유비가 서주목이 된 후에도 수시로 집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며 지극히 예우를 다했다.

유비는 이 방법이 떠오르자 크게 기뻐하며, 진등과 함께 직접 정현의 집을 찾아가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정현은 흔쾌히 승낙하며 편지 한 통을 써서 유비에게 건네주었다. 유비는 즉시 손건을 보내 밤을 도와 원소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원소가 편지를 다 읽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유비가 내 동생을 공격해 멸망시켰으니 본래 도와줄

이유가 없으나, 정현 상서의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으니 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곧 문무백관을 모아 조조를 치기 위한 군사 행동을 논의했다.

모사 전풍이 말했다.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곳간에는 곡식조차 쌓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대군을 일으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승전보를 천자에게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조조가 우리 주군께서 천자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상소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군사를 일으켜 여양에 주둔시키고, 하내에서 배를 늘리며 군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예병을 나누어 변방에 배치한다면, 3년 안에 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사 심배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군의 신묘한 무력과 하삭 일대의 강성함을 생각하면,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토벌하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만큼이나 쉬운데 어찌 그리 시일을 끌려 하십니까?”

모사 저수가 말했다. “승리의 비결은 세력의 강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조조는 이미 법령이 잘 시행되고 병사들이 정예로 단련되어 있으니, 가만히 앉아 곤경에 빠졌던 공손찬과는 다릅니다. 지금 승전보를 올리는 좋은 방책을 버리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주군께서 취하실 바가 아닙니다.”

모사 광도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조를 치는 데 어찌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까? 마땅히 때를 놓치지 말고 조속히 대업을 이루셔야 합니다. 바라건대 정현 상서의 말을 따라 유비와 함께 대의를 받들어

조조를 소탕하십시오. 위로는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에 부합하니, 실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네 사람의 논쟁이 끝나지 않아 원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허유와 순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원소가 말했다. "두 사람은 식견이 높으니, 어떤 방책을 내놓는지 한번 보겠소." 두 사람이 예를 갖추자 원소가 말을 이었다. "정현 상서에게서 서신이 왔는데, 나더러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돕고 조조를 치라고 하는구려.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겠소, 아니면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옳겠소?" 두 사람이 일제히 대답했다. "명공께서는 많은 군사로 적은 군사를 상대하고,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치며, 한나라의 도적을 토벌하여 왕실을 보필하려 하시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소가 말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내 마음과 딱 맞는구려."

원소는 즉시 군사를 일으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손건을 보내 정현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고, 유비와 약속하여 군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심배와 봉기를 통군으로 삼고, 전풍, 순침, 허유를 모사로, 안량과 문추를 장군으로 삼았다. 기병 15만과 보병 15만, 도합 30만의 정예병을 일으켜 여양을 향해 진격했다.

군사 배치가 결정되자 곽도가 나아가 말했다. “명공께서 대군을 일으켜 조조를 치시려면, 반드시 조조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각 군에 격문을 보내 그의 죄를 성토하고 토벌에 나서야만 명분이 바로 서고 말이 순리에 맞게 됩니다.” 원소가 이 말을 따랐기에, 곧바로 서기인 진림에게 격문을 초안하게 했다. 진림의 자는 공장으로 평소 재능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었는데, 영제 시절에는 주부로 있었다.

당시 하진에게 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이어 동탁의 난을 만나 기주로 피난하였다가 원소가 그를 기실(記室)로 기용하였다. 그는 격문을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붓을 들어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듣건대 명철한 군주는 위난에 대비하여 변고를 제압하고, 충신은 어려움을 헤아려 권도(權道)를 세운다고 했다. 그리하여 비범한 사람이 있어야 비범한 일이 있고, 비범한 일이 있어야 비로소 비범한 공을 세울 수 있는 법이다. 무릇 비범함이란 본래 평범한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 막강한 진(秦)나라에 유약한 군주가 있어 조고가 권력을 움켜쥐고 조정의 권세를 독점하여 모든 복과 재앙을 제 마음대로 휘둘렀다. 당시 사람들은 위협에 놀려 누구도 감히 바른 말을 하지 못했으니, 결국 망이궁(望夷宮)의 변으로 패망에 이르고 종묘와 조상의 위패가 불타 없어져 지금까지도 치욕으로 남았으니, 이는 영원한 경계가 되었다.

이후 여후(呂后)의 말년에 이르러 여산(呂産)과 여록(呂祿)이 권력을 독점하니, 안으로는 남북 두 군대를 장악하고 밖으로는 양(梁)나라와 조(趙)나라를 통솔하며, 모든 국사를 제멋대로 결정하고 궁중 깊은 곳에서 일을 처결하였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위는 무너지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졸였다. 이때 강후(絳侯, 주발)와 주허후(朱虛侯, 유장)가 위엄을 떨치고 분노하여 역적과 폭도를 처단하고 태종(太宗, 한 문제)을 받들어 옹립하였다. 그리하여 왕도가 다시 흥하고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신이 권세를 세워 나라를 바로잡은 명백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사공 조조를 비판하는 격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중상시로서 좌관(左館), 서황(徐璜)과 함께 요사스러운 짓을 일삼으며 탐욕스럽고 횡포하게 굴어 풍속을 해치고 백성을 학대했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은 환관 조등의 양자로 거두어졌으며, 뇌물로 관직을 사들였고, 금과 옥을 수레에 실어 권문세가에 바치며 삼공(三公)의 자리를 도둑질하여 나라의 중대한 기물(國寶)을 뒤엎었다. 조조는 환관의 추잡한 후손으로 본래 아름다운 덕이 없으며, 경박하고 교활하며 사납고 험기를 부려 난리를 좋아하고 재앙을 즐기는 자다.”

막부(원소)는 군사를 통솔하여 매처럼 펼쳐 일어나 흉악한 역도를 쓸어버렸으나, 뒤이어 동탁이 등장하여 관청을 침범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이에 막부는 칼을 들고 북을 울리며 동쪽 지역에 명을 내려 영웅들을 불러 모으고, 결점을 따지기보다 그 재능을 중히 여겨 등용하였다. 그리하여 조조와 뜻을 같이하여 함께 모의하고 부장(副將)의 군사를 맡겼으니, 조조의 재능이 마치 사냥개와 같아 발톱과 이빨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조는 어리석고 경솔하며 지략이 짧아 가볍게 나아가고 쉽게 물러나, 다치고 패하여 여러 차례 군사를 잃었다. 이에 막부는 다시 군사를 나누어 정예병을 맡기고, 흩어진 병력을 수습해 보충하며, 표문을 올려 동군(東郡)을 다스리고 연주 자사를 겸하게 하였다. 또한 호랑이 무늬의 예복과 부절을 내려 위엄과 권병(權柄)을 세워줌으로써, 거둬 패하고도 끝내 적을 이긴 진(秦)나라 군대처럼 한 번의 승리로 보답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조조는 그 힘을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제멋대로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며 어진 이를 해치고 선한 이를 죽였다.

구강 태수였던 변양(邊讓)은 재능이 뛰어나고 풍채가 당당하여 천하에 이름이 높았다. 그는 성품이 곧고 엄정하여 남에게 아침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조에게 머리가 잘려 매달리는 형벌을 받았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멸족의 화를 당했다. 이 일로 인해 선비들은 분개하고 슬퍼했으며, 백성들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다. 한 사람이 팔을 휘두르며 일어서자 온 주(州)가 한목소리로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조조는 서주 일대에서 몸소 패하고 여포에게 땅을 빼앗겨, 동쪽 변방을 떠돌며 발붙일 곳조차 없게 되었다. 막부(원소)는 강한 줄기를 키우고 약한 가지를 누른다는 의리를 지키고, 또 반역자(여포)의 무리에 가담할 수 없었기에, 다시 깃발을 들고 갑옷을 갖추어 석권하듯 정벌에 나섰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떨쳐 울리자 여포의 무리는 달아나 무너졌다. 막부는 조조를 죽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의 방백(方伯) 자리를 되찾아 주었다. 그러니 막부는 연주 백성들에게는 베풀 덕이 없었으나, 조조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 셈이었다.

황제의 어가가 낙양으로 돌아오자, 무리 지은 도적들이 정치를 어지럽혔다. 마침 기주는 북쪽 변방의 침입 경보가 있어 막부(원소)는 미처 자리를 떠날 겨를이 없었다. 이에 종사중랑 서훈(徐勳)을 보내 조조를 파견하여, 교묘(郊廟, 천지와 종묘의 제사 시설)를 수리하고 어린 황제를 보필하며 호위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조는 곧 제멋대로 굴어, 권력을 독점하여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옮기고 궁궐 금중(禁中)을 장악하였으며, 왕실을 업신여겨 법도를 무너뜨렸다. 삼태(三臺)의 직위를 차지하고 조정의 정치를 독점한 조조는, 자신의 마음대로 작위를 주고 상을 내리며 말 한마디로 사

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가 아끼는 이는 종친의 영광을 누렸으나, 그가 싫어하는 이는 삼족이 멸해졌다. 드러내 말하는 자는 공개 처형하고, 속으로 비판하는 자는 은밀히 죽였다. 관리들은 입을 다물었고, 길거리 사람들은 눈짓으로만 뜻을 주고받았다. 상서들은 조정의 회의를 기록할 뿐이었고, 공경들은 그저 자리를 채우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태위 양표(楊彪)는 두 요직(二司)을 두루 거치며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데 조조는 사소한 원한 때문에 죄 없는 그를 엮어매어, 곤장으로 매질하고 다섯 가지 혹형(五毒)을 모두 가하였으며, 제 감정을 쫓아 함부로 죄를 씌우고 법과 기강은 돌아보지 않았다.

또한 의랑 조언(趙彥)은 충직하게 직언을 올렸으니 그 의로움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그의 말을 귀담아듣고 낮빛을 고쳐 상을 내렸다. 그러나 조조는 시대의 밝음을 어지럽혀 빼앗고 간언하는 길을 막으려 하여, 황제께 보고하여 윤희를 기다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조언을 잡아 그 자리에서 죽였다.

게다가 양효왕(梁孝王)은 선제(先帝)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로, 그 무덤은 마땅히 높고 귀하게 모셔야 했다. 고향의 소나무와 잣나무까지도 공경하고 엄숙히 대해야 마땅함에도, 조조는 장수와 관리, 병사들을 거느리고 직접 무덤을 파헤쳤다. 관을 부수고 시신을 드러내어 금은 보화를 약탈하기까지 했으니, 지금까지도 조정은 눈물을 흘리고 백성들은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조는 또한 발구중랑장과 모금교위라는 직책을 특별히 만들어 두었는데, 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무덤을 파헤치고 도굴하여 빼가 드러

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몸은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태는 도적과 다를 바 없으니, 나라를 더럽히고 백성을 해치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괴롭히는 짓을 저질렀다. 게다가 세금과 법령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고, 온갖 방책을 만들어 백성을 옥죄었다. 그물을 쳐서 길을 막고 구덩이를 파서 길을 가로막았으며, 손만 뻗어도 그물에 걸리고 발만 내디뎠어도 함정에 빠지게 하니, 연주와 예주에는 살 길이 막막한 백성들이 넘쳐났고, 수도에는 원망 섞인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도리에 어긋난 신하 중 조조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가혹하게 구는 자는 없었다.

막부(원소)가 막 바깥의 간악한 무리를 토벌하느라 미처 군사를 정비하고 훈련하지 못하던 차에, 너그러운 포용하여 그 틈을 메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조조는 굶주린 이리나 늑대 같은 야심을 품고 남몰래 화를 불러일으킬 계락을 꾸며,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을 꺾어 한나라 황실을 고립시키고, 충직하고 바른 신하들을 제거하여 스스로 흥포한 패권자가 되려 했다.

지난날 막부(원소)가 북을 울리며 북쪽으로 공손찬을 정벌할 때, 강한 적인 공손찬이 흉악하게 항거하여 한 해 동안이나 포위를 버텼다. 조조는 공손찬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틈을 타, 몰래 공손찬과 서신을 주고받아 겉으로는 왕사(王師, 원소의 군대)를 돕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기습을 노렸다. 마침 그 사자가 발각되었고 공손찬마저 처단되어, 조조의 예봉이 꺾이고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 조조는 오창(敎倉)에 진을 치고 강을 막아 요새로 삼으려 하니, 이는 사마귀가 제 도끼를 휘둘러 거대한 수레의 길을 막으려는 격

이다. 막부(원소)는 한나라의 위엄을 받들어 천하에 무위를 떨치니, 백만의 장창과 천 무리의 날랜 기병이 있으며, 중황백·하육·오획 같은 용사들을 떨쳐 일으키고 좋은 활과 강한 쇠뇌의 기세를 내달린다. 병주의 군사는 태행산을 넘고 청주의 군사는 제수(濟水)와 탐수(漯水)를 건너며, 대군이 황하를 따라 내려가 그 앞을 치고, 형주의 군사가 완(宛)과 엽(葉)으로 내려가 그 뒤를 친다. 우레처럼 떨치고 범처럼 내달아 일제히 적의 조정으로 들이치니, 이는 마치 타고르는 불로 마른 쭉을 사르고 드넓은 바다를 기울여 타는 숲에 끼얹는 것과 같으니 어찌 멸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또한 조조의 군리와 병사들 중 싸울 만한 자들은 모두 유주와 기주 출신이거나 예전부터 그를 따르던 부곡(部曲)들인데, 다들 고향을 떠나 원망하며 돌아가기를 그리워해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돌아본다. 그 외에 연주와 예주의 백성들은 여포와 장양(張楊)의 잔당으로, 나라가 망하고 핍박을 받아 잠시 형편에 따라 마지못해 따를 뿐, 저마다 상처를 입어 조조를 원수로 여긴다. 만약 우리 군이 깃발을 돌려 진격하여 높은 언덕에 올라 북과 나팔을 울리고 흰 깃발을 휘둘러 행복의 길을 열어준다면, 조조의 군대는 반드시 흠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지듯 무너져 칼에 피를 묻힐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한나라 황실은 쇠퇴하여 기강이 풀어지고 끊어졌으며, 조정에는 보필할 신하 하나 없고 팔다리 같은 신하에게도 적을 막을 힘이 없다. 수도 근방의 단련된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날개를 접은 채 의지할 곳이 없으며, 비록 충의로운 신하가 있다 한들 포악한 신하에게 협박당하니 어찌 그 절개를 펼칠 수 있겠는가? 또한 조조는 부곡의 정

예병 700명을 거느리고 궁궐을 에워싼 채, 겉으로는 숙위(宿衛)를 자처하면서 속으로는 황제를 가두어, 찬역의 싹이 이로부터 자라날까 두렵게 한다. 지금이야말로 충신이 목숨을 바치고 열사가 공을 세울 때이니,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조는 또한 황제의 명을 사칭하며 사신을 보내 군사를 일으켰다. 변방의 먼 주군(州郡)이 조조의 말을 잘못 듣고 군사를 내어주어, 다수를 거스르고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명분을 잃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되니, 현명한 이라면 결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로 유주·병주·청주·기주 네 주가 일제히 진격한다. 이 서신이 형주에 이르거든 곧 군사를 정비하여 건충군(建忠軍)과 기세를 함께하라. 각 주군도 의병을 정비하여 국경에 늘어세우고 무위를 떨쳐 함께 사직을 바로잡는다면, 비범한 공이 이로써 드러날 것이다.

“조조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5천 호의 후작에 봉하고, 5천만 전을 상으로 주겠다. 조조의 부곡과 편장·비장·장교 및 여러 관리들 중 항복하는 자는 일절 문책하지 않겠다. 은혜와 신의를 널리 펴고 부신(符信)과 포상을 반포하여 천하에 공포함으로써, 성스러운 조정이 조조에게 핍박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라. 율령대로 시행하라!”

원소는 격문을 읽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신을 보내 이 격문을 여러 주와 군에 널리 퍼뜨리고 곳곳의 관문과 길목마다 내걸도록 명령했다. 격문이 허도에까지 전해졌을 때, 조조는 마침 두통을 앓으며 침상에 누워 있었다. 측근들이 이 격문을 들고 들어와 조조에게 보여주니, 조조는 그것을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라 온몸에 식은땀을 흘

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아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조가 조홍에게 물었다. "이 격문은 누가 쓴 것이냐?" 조홍이 대답했다. "진림이 썼다고 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문제가 있는 자는 반드시 무력으로 그 뜻을 도와야 하는 법이다. 진림의 글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원소의 부족한 무력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곧 모사들을 불러 모아 적을 맞이할 방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융이 이 소식을 듣고 조조를 찾아가 말했다. "원소는 세력이 워낙 강대하니, 싸우려 들지 말고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자 순욱이 말했다. "원소는 쓸모없는 자인데, 어찌 화친을 논하십니까?"

공융이 다시 말했다. "원소는 영토가 넓고 백성들의 힘이 강합니다. 그 부하들인 허유, 곽도, 심배, 봉기는 모두 지략이 뛰어난 인물들이고, 전풍과 저수는 모두 충직한 신하들입니다. 안량과 문추는 용맹함이 삼군을 압도하며, 그 외에 고람, 장합, 순우경 등은 모두 세상에 이름난 명장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원소를 쓸모없는 자라고 하십니까?"

순욱이 웃으며 대답했다. "원소는 병력만 많을 뿐 군대가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풍은 강직하기만 하여 윗사람을 거스르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지혜가 부족하며, 심배는 독단적이라 계책이 없고, 봉기는 결단력만 있을 뿐 쓸모가 없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지 못해 반드시 내부의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량과 문추는 그저 필부의 용맹일 뿐이니 한 번의 싸움으로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평범한 무리들은 설령 백만 명이라 한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공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모두 순욱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군.” 그러고는 곧바로 전군을 이끄는 유대와 후군을 이끄는 왕충을 불러, 승상의 기치를 내걸고 5만 군사를 몰아 서주로 가서 유비를 공격하게 했다. 본래 유대는 예전에 연주 자사였는데,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자 유대가 조조에게 항복하였고, 조조는 그를 편장으로 삼았기에 이번에 왕충과 함께 군사를 이끌게 한 것이었다. 한편 조조는 스스로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여양으로 진격하여 원소를 막아섰다. 정욱이 말했다. “유대와 왕충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나도 그들이 유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저 잠시 허세를 부려 기세를 올리려는 것뿐이다.” 그러고는 분부했다. “함부로 진격하지 마라. 내가 먼저 원소를 격파한 뒤에 다시 군사를 몰아 유비를 치겠다.” 유대와 왕충은 군사를 이끌고 떠났고, 조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양에 이르렀다. 양측 군대는 80리 거리를 사이에 두고 각자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쌓은 채 대치하며 싸우지 않았다. 8월부터 10월까지 수비만 이어졌다. 당시 허유는 심배가 군사를 거느리는 것이 못마땅했고, 저수는 원소가 자신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에 원망을 품고 있어 서로 화합하지 못한 채 나아갈 궁리조차 하지 않았다. 원소 또한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득하여 군사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조조는 여포의 부하였던 향장 장패(臧霸)를 불러 청주와 서주를 지키게 했고, 우금과 이전을 황하 근처에 주둔시켰으며, 조인을 대군의 총독으로 삼아 관도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조조 자신은 한 부대를 이끌고 마침내 허도로 돌아갔다.

한편, 유대와 왕충은 5만 군사를 이끌고 서주에서 10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이들은 조조의 깃발을 내걸고 허장성세를 부르며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 채, 그저 하북 쪽의 소식만을 살피고 있었다. 한편 유비 역시 조조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북의 상황을 살피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조조가 사람을 보내 유대와 왕충에게 어서 진격하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진영 안에서 이 문제를 두고 상의했다. 유대가 말했다. "승상이 성을 공격하라고 재촉하니, 자네가 먼저 가게나." 그러자 왕충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먼저 자네를 보내셨네." 유대가 다시 말했다. "내가 주장이거늘, 어찌 내가 먼저 가겠는가?" 왕충이 대답했다. "그럼 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가세." 유대가 제안했다. "그럼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으로 하지." 왕충이 제비를 뽑았더니 '먼저'라는 글자가 나왔다. 결국 왕충은 군사의 절반만을 이끌고 서주를 공격하러 떠나게 되었다.

유비는 군사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등을 청해 상의하며 말했다. "원소가 비록 여양에 군사를 주둔시키고는 있으나, 모사들 사이가 좋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조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여양의 군대에는 조조의 깃발이 보이지 않고 어찌하여 다른 깃발들이 보이는 것입니까?" 진등이 대답했다. "조조는 수단이 매우 교묘한 사람입니다. 분명 하북 지역을 중요하게 여겨 직접 감독하고 있을 텐데, 일부러 깃발을 세우지 않고 이곳에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조조는 분명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두 동생 중 누가 가서 적의 실정을 살펴볼 수 있겠느냐?" 장비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유비가 만류했다. "너는 성격이 급하고 성미가 거칠어서는 안 된다." 장비가 대들었다. "설령 조조가 있다 해도 잡아 오겠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제가 가서 적의 움직

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관우 네가 간다면 나는 마음이 놓이겠다."

한편, 관우가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주에서 출동했다. 때마침 초겨울이라 먹구름이 낮게 깔리고 눈송이가 어지럽게 흩날리는 가운데, 군마들은 눈을 맞으며 진을 쳤다. 관우가 말을 몰아 칼을 치켜들고 달려 나가며 왕충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왕충이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승상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느냐?" 관우가 말했다. "승상을 진영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왕충이 대답했다. "승상께서 어찌 너 같은 자를 쉽게 만나시겠느냐!" 관우가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앞으로 돌진했다. 왕충도 창을 들고 맞서 나왔다. 두 말이 부딪치자 관우는 즉시 말을 돌려 달아났다. 왕충이 뒤쫓아 산비탈을 돌아 나오자, 관우가 말을 돌리며 크게 한 번 소리 지르고는 칼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들이쳤다. 왕충은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고, 그 틈을 타 말을 타고 도망치려 했다. 관우는 왼손으로 보도를 거꾸로 쥐고 오른손으로는 왕충의 갑옷 끈을 낚아채더니, 그를 안장에서 끌어내려 말 위에 가로로 엎어 놓은 채 본진으로 돌아왔다. 왕충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관우는 왕충을 압송하여 서주에 있는 유비를 찾아갔다. 유비가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감히 조조 승상이라고 거짓을 말하다니!" 왕충이 대답했다.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명을 받들어 의심을 사게 하려고 허장성세를 부린 것뿐입니다. 승상께서는 실제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유비는 옷과 음식 등을 챙겨주며 일단 잠시 잡아두되, 유대를 잡게 되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고 일렀다. 관

우가 말했다. "형님께서 화해할 뜻이 있으신 줄 알고, 그래서 생포해 온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장비가 성급한 성격 탓에 왕충을 죽여버릴까 봐 보내지 않은 것이라네. 이런 자를 죽여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살려두었다가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이용해야 하지 않겠나."

장비가 말했다. "둘째 형님이 왕충을 잡았으니, 저는 가서 유대를 생포해 오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유대는 예전에 연주 자사였고, 호로관에서 동탁을 칠 때도 한 지방을 다스리던 제후였다. 오늘 네가 앞장서서 나가는 만큼,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장비가 말했다. "저런 자들이 대수입니까! 저도 둘째 형님처럼 생포해 오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혹시라도 그자의 목숨을 잃게 하여 우리의 큰일을 그르칠까 걱정되는구나."

장비가 말했다. "만약 죽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비는 결국 장비에게 군사 삼천 명을 주어 보냈다.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유대는 왕충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장비가 매일 진영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질러대자, 유대는 그 목소리가 장비라는 것을 알고 더욱 겁

이 나 감히 밖을 내다보지도 못했다. 장비는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유대가 나오지 않자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오늘 밤 이경에 진영을 습격하라고 명령한 뒤, 낮에는 막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하며 군사들의 죄를 물어 매질을 했다. 그러고는 군사들을 진영 안에 묶어두며 "오늘 밤 내가 출병할 때 너희를 제물로 삼겠다!"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하들에게 몰래 풀어주라고 일렀다. 군사들은 그 기회를 틈타 탈출하여 몰래 진영을 빠져나간 뒤, 곧장 유대의 진영으로 달려가 오늘 밤 습격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유대는 항복한 군사들이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그 말을 믿었으며, 곧바로 빈 진영을 꾸며놓고 밖에는 매복 병력을 배치했다.

그날 밤, 장비는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가운데 부대 서른 명 남짓에게는 적의 진영을 습격해 불을 지르라고 명했다. 그리고 양쪽 부대에는 적이 장비의 본진을 포위해 나오면 불길을 신호 삼아 협공하라고 일러두었다. 밤이 깊은 이경쯤 되자, 장비가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나타나 유대의 퇴로를 먼저 끊어버렸다. 그사이 가운데 부대 서른 명 남짓은 적진으로 뛰어들어 불을 질렀다. 유대의 매복병들이 막 공격하려던 찰나, 장비의 양쪽 군사들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유대의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에 빠져 장비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사방으로 흩어졌다. 유대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겨우 길을 찾아 도망치려 했으나, 마침 장비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좁은 길에서 맞닥뜨린 데다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기에, 두 사람이 말 위에서 단 한 합을 겨루자마자 유대는 장비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남은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장비가 사람을 보내 먼저 서주에 소식을 전했다. 유비가 이 소식을 듣고 관우에게 말했다. “장비는 평소 거칠고 무모했는데, 이번에는 은혜를 발휘했으니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그러고는 직접 성 밖으로 나가 장비를 맞이했다. 장비가 말했다. “형님께서는 제가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말로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네가 기지를 발휘했겠느냐?” 장비가 크게 웃었다. 유비가 보니 유대를 묶어 데려오고 있었다. 유비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유대의 포박을 풀어주며 말했다. “동생 장비가 큰 결례를 범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유대를 서주로 맞아들였고, 왕충도 풀어주어 함께 정중히 대접했다. 유비가 말했다. “지난번에는 차주(車胄)가 저를 해치려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승상께서 제가 반역을 꾀한다고 잘못 의심하시어 두 장군을 보내 죄를 물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승상의 큰 은혜를 입어 보답할 길을 찾고 있었는데, 어찌 감히 반역을 하겠습니까? 두 장군께서 허도로 돌아가시면 부디 저를 위해 잘 변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다행이겠습니다.” 유대와 왕충이 말했다. “저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 주신 사군(유비)의 은혜가 너무나 깊습니다. 승상께 잘 말씀드리고, 저희 두 집안의 식솔을 걸고 사군의 결백을 보증하겠습니다.”

유비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 날, 유비는 빌렸던 군마를 모두 돌려주고 성 밖으로 배웅했다. 유대와 왕충이 채 열 리도 가지 못했을 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장비가 길을 가로막으며 크게 호통을 쳤다.

"우리 형님이 너무 무른 구석이 있어! 저 적장들을 잡아두었다가 왜 그냥 보내준 거냐?"

그 소리에 유대와 왕충은 말 위에서 벌벌 떨었다.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창을 겨누며 달려오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고개를 들어 보니 바로 관우였다. 그제야 유대와 왕충은 겨우 안심했다. 관우가 말했다.

"형님께서 이미 놓아주셨는데, 동생인 내가 어찌 법도를 어기겠는가?"

장비가 대꾸했다.

"이번엔 그냥 보내주지만,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보자고!"

관우가 말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지체 없이 죽여버릴 테니."

유대와 왕충은 연신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빌었다.

"재상께서 우리 삼족을 멸한다 해도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부디 장군들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장비가 외쳤다.

"조조가 직접 온다 해도 단 한 조각의 갑옷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번에는 일단 머리 두 개를 챙겨둔 셈 치자!"

유대와 왕충은 머리를 감싸 쥐고 쥐새끼처럼 황급히 도망쳤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조조가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자 손건이 유비에게 제안했다.

"서주는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니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군사를 나누어 소패에 주둔하고, 비성도 지키게 하여 양쪽에서 호위하는 형세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조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비는 그 말을 따라 관우에게 하비를 지키게 했다. 감 부인과 미 부인도 하비에 머물게 했는데, 감 부인은 소패 출신이고 미 부인은 미축의 누이였다. 손건, 간옹, 미축, 미방은 서주를 지켰고, 유비와 장비는 소패에 주둔했다.

유대와 왕충이 조조를 찾아가 유비가 반역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러나 조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소리쳤다. "나라를 욕되게 하는 무리들을 살려두어 무엇하겠느냐!" 그러고는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이 상황을 시로 읊자면 이러하다. "개와 돼지 같은 무리가 어찌 호랑이와 싸우려 하며, 물고기와 새우가 어찌 용과 다투려 하는가."

이 두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23회 — 예정평은 옷을 벗어 적을 꾸 짚고, 길태의는 독을 썼다가 형벌을 받다

禰正平裸衣罵賊 吉太醫下毒遭刑

한편, 조조는 유대와 왕충을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공옹이 간언했다. "두 사람은 본래 유비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이들을 죽인다면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조조는 결국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작위와 녹봉을 박탈하여 파직했다. 그리고 직접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치려 했다. 공옹이 다시 말했다. "지금 금은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우니 아직 군사를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내년 봄에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을 보내 장수와 유표를 회유하여 항복하게 만든 뒤에 서주를 도모하십시오." 조조는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먼저 유엽을 보내 장수를 설득하게 했다. 유엽이 양성에 도착하여 먼저 가후를 만났다. 유엽이 조조의 넓은 덕망을 늘어놓으며 설득하자, 가후는 유엽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유패는 장수를 찾아가 조조가 자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원소

가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수가 사신을 들여보내게 하자 사신이 서신을 바쳤다. 장수가 서신을 읽어보니 그 내용 역시 항복을 원하는 뜻이었다.

가후가 사신에게 물었다. "요즘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치고 있는데, 승부는 어떠한가?" 사신이 대답했다. "한겨울 추운 달이니 우선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형주의 유표와 더불어 나라를 구할 인재의 풍모를 지니고 계시기에, 저희가 청하러 온 것입니다."

가후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원소에게 돌아가 이렇게 전하라. '당신은 형제조차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의 인재들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면전에서 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신을 꾸짖어 쫓아냈다.

장수가 말했다. "지금은 원소가 강하고 조조가 약한 형편인데, 방금 서신을 찢고 사신을 꾸짖었으니 만약 원소가 다시 찾아오면 어찌하겠는가?" 가후가 말했다. "차라리 조조를 따르는 게 낫습니다." 장수가 말했다. "나는 이미 조조와 원한이 있는데 어찌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

가후가 다시 말했다. "조조를 따르는 데에는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천하를 정벌하고 있으니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원소는 세력이 강하지만 우리가 적은 수로 그를 따르려 하면 분명 우리를 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조조는 비록 세력이 약하더라도 우리를 얻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이점입니다. 셋째, 조조는 왕과 패자가 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으니, 반드시 사적인 원한을 버리고 천하에 자신의 덕을 펼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점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장수는 가후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유엽을 청하여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유엽은 조조를 크게 칭송하며 말했다. "승상께서 예전의 원한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면, 어찌 저를 보내 장군과 화친을 맺게 하셨겠습니까?" 장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가후 등과 함께 허도로 가서 투항했다. 장수가 조조를 만나 계단 아래에서 절을 올리자, 조조는 서둘러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손을 잡고 말했다. "작은 실수가 있었으나 마음에 두지 마시오." 그리고는 장수를 양무장군으로 봉하고, 가후를 집금오사로 삼았다. 조조는 곧장 장수에게 글을 써서 유표를 투항시키라고 명했다. 이때 가후가 나아가 말했다. "유표는 명망 있는 선비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니, 지금 반드시 문명 높은 선비를 보내 설득해야 비로소 항복할 것입니다." 조조가 순유에게 "누가 가서 말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순유가 대답했다. "공융이라면 그 임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조조는 그 말에 따랐다. 순유가 나가서 공융에게 말하기를, "승상께서 세상에 명망 있는 선비를 얻어 행인(行人, 사신)의 임무를 맡기려 하십니다. 공께서 이 직책을 맡아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융이 대답했다. "내 친구 중에 예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는 정평이라네. 그 재능은 나보다 열 배는 뛰어나지. 그런 인재라면 단순히 행인 자리에 머물 게 아니라 마땅히 황제 곁에 있어야 하네. 내가 천자께 직접 추천하겠네." 공융은 곧바로 상소를 올려 황제에게 보고했다. 그 글의 내

용은 이러했다. "신이 듣기로, 홍수가 범람하듯 세상이 어지러우면 황제께서는 이를 다스리길 염원하시며, 사방을 두루 살펴 어질고 뛰어난 인재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세종께서 대통을 이으시고 기틀을 넓히고자 하실 때도, 인재를 구하고 부르니 수많은 선비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성스러우시어 선대의 기틀을 이어받으셨으나, 불행히도 험난한 운수를 만나 밤낮으로 애쓰며 겸손히 나라를 돌보고 계십니다. 산악의 신이 내려온 듯 비범한 인물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이 보기에 처사 평원 사람 예형은 올해 스물네 살로 자는 정평입니다. 성품이 맑고 곧으며 재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학문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깊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금방 외워 입에 올리고, 귀로 잠시 들은 것은 가슴에 새겨 잊지 않습니다. 성품은 도리에 부합하고 생각은 신묘하기까지 합니다. 상홍양이 암산으로 셈을 헤아리고 장안세가 묵묵히 기억해 낸 재주도, 예형에 견주어 본다면 결코 놀랄 것이 못 됩니다. 충성스럽고 곧으며 뜻은 서리처럼 서슬 퍼렇습니다. 선한 것을 보면 놀랄 만큼 기뻐하고 악한 것을 보면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임좌가 직언으로 항거하고 사어가 절개를 다한 것에도 거의 뒤지지 않습니다. 백 마리의 맹금류가 모여 있어도 물수리 한 마리만 못하듯, 예형이 조정에 선다면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거침없는 말솜씨로 논쟁을 주도하고 기세가 흘러넘치며, 의문을 풀고 맺힌 것을 풀어내는 능력은 적진 앞에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옛날 가의는 속국의 관직을 청하면서 계략으로 흉노 선우를 묶어 끌어오겠다고 하였고, 종군은 긴 끈 하나로 굳센 남월 왕을 묶어오려 했습니다. 모두 약관의 나이에 의기가 드높았으니, 앞 세대 사람들이 이

를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근래에 노획(擧擧)과 엄상 같은 이들도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대랑(臺郎)의 자리에 발탁되었으니, 예형도 마땅히 이들과 견줄 만합니다. 마치 용이 하늘로 솟구쳐 은하수에서 날개를 펼치고, 자미성에서 소리를 떨치며 무지개처럼 빛을 드리우는 것과 같으니, 이는 조정에 인재가 많음을 밝히고 사문(四門)의 위엄을 더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늘의 큰 음악이 울려 퍼지면 반드시 기이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고, 황실의 거처에는 반드시 비범한 보물이 쌓이는 법입니다. 예형 같은 인물은 좀처럼 얻기 힘든 재목입니다. '격초'나 '양아' 같은 지극히 절묘한 가락은 악공들이 탐내는 바이며, 비토(飛兔)와 요뇨(腰褭) 같은 천리마는 거침없이 내달리니 왕량과 백락이 애타게 구하던 바입니다. 신들이 미천하나마 어찌 감히 이를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신중히 인재를 가려 뽑으시니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예형을 벼룩 차림으로 불러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에게서 불만한 재능이 없다면, 저희가 면전에서 속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헌제가 표문을 살펴보았으나, 결국 조조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조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예형을 불러들였다. 예법에 따라 절차를 마쳤음에도 조조는 그에게 앉으라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예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천지가 이토록 넓은데, 어찌하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조조가 말했다. "내 수하에는 수십 명의 인재가 있으며, 모두 당대의 영웅들인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예형이 말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조조가 대답했다. "순욱, 순유, 곽가, 정욱은 지략이 깊고 지혜가 멀리까지 미치니, 비록 소하와 진평이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장료, 허저, 낙진, 이전은 용맹함이 대적할 자가 없으

니, 비록 잠팽과 마무리 해도 미치지 못한다. 여건과 만충은 종사로 삼고, 우금과 서황은 선봉으로 삼았다. 하후돈은 천하의 기재요, 조자효는 세상에 보기 드문 복장(福將, 복을 타고난 장수)이다. 이래도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 예형이 웃으며 말했다. "공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런 인물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순욱은 상례를 치르거나 병문안을 가게 하고, 순유는 무덤을 지키게 하며, 정욱은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곽가는 글을 짓고 시부를 읊게 하며, 장료는 복을 치고 징을 울리게 하고, 허저는 소를 치고 말을 방목하게 하며, 낙진은 임명장을 받고 조서를 읽게 하고, 이전은 편지와 격문을 전달하게 하며, 여건은 칼을 갈고 검을 주조하게 하고, 만충은 술을 마시며 술지계미를 먹게 하며, 우금은 흙을 저 나르고 담을 쌓게 하고, 서황은 돼지를 잡고 개를 죽이게 해야 합니다. 하후돈은 '완체장군'이라 불리고 조자효는 '돈만 밝히는 태수'라 불리니, 나머지는 모두 옷걸이나 밥통, 술통이나 고기 자루일 뿐입니다!" 조조가 화가 나서 물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예형이 말했다.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세상의 온갖 학문과 직업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위로는 임금에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만들 수 있고, 아래로는 공자와 안희 같은 성현의 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찌 속물들과 함께 논하겠습니까!" 이때 곁에 있던 장료가 칼을 뽑아 들고 그를 베려 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마침 북 치는 관리 한 명이 부족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조회나 잔치를 열 때 예형에게 그 직책을 맡기면 되겠구나." 예형은 사양하지 않고 대답만 한 채 떠나버렸다. 장료가 물었다. "이 자가 하는 말이 너무 무례한데, 어찌하여 죽이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이 자는 평소 허명만 높아 멀리까지 이름이 알려진 자다. 오늘 그를 죽이면 천하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사람을 품지 못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저 스스로

재주가 있다고 믿고 있으니, 복 치는 관리를 시켜 수치를 주려는 것이다."

며칠 뒤, 조조는 관청에서 손님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복 치는 관리에게 복을 치게 했다. 그러자 예전부터 일하던 관리가 "복을 칠 때는 반드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예형은 낡은 옷을 입은 채로 들어와 복을 치기 시작했다. 그가 연주한 '어양삼타'는 가락이 아주 절묘하여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그 소리를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옷을 갈아입지 않느냐!"라고 꾸짖었다. 예형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낡고 해진 옷을 훌랑 벗어 던지고는, 몸을 다 드러낸 채 벌거벗은 상태로 당당히 서 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예형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바지만 다시 입었다.

조조가 꾸짖으며 말했다. "조정의 높은 어른들 앞에서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예형이 대답했다. "임금을 속이고 위하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무례한 것이지요. 나는 그저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이 결백함을 드러내고자 본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조조가 다시 말했다. "네가 결백하다면, 그럼 누가 더럽다는 말이냐?"

그러자 예형이 말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지 못하니 눈이 더럽고, 시와 서를 읽지 않으니 입이 더럽고, 충성스러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귀가 더럽고, 예부터 지금까지의 이치를 알지 못하니 몸이 더럽고, 제후들을 포용하지 못하니 배가 더럽고, 늘 찬탈과 역모를 품고 있으니 마음이 더럽습니다! 나 같은 천하의 명사를 북 치는 관리로 삼으려 하더니, 이는 마치 양화가 공자를 업신여기고 장창이 명자를 비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패왕의 업을 이루려 하면서 어찌 이리 사람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공융은 조조가 예형을 죽일까 두려워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예형의 죄는 (옛날 부열이 그러했듯) 노역형 죄수에 견줄 정도일 뿐이니, 그를 죽이는 것은 은 고종이 꿈에서 어진 신하를 얻은 것과 같은 명군의 도량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조는 예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를 형주로 보내 사신으로 삼겠다. 만약 유표가 항복해 온다면, 그대를 공경의 자리에 앉혀주마." 하지만 예형은 가기 싫다며 거절했다. 조조는 말 세 필을 준비하여 두 사람이 예형을 양옆에서 붙잡아 가도록 했고, 부하 문무 관원들에게 명해 동문 밖에서 술을 차려놓고 배웅하게 했다. 순욱이 말했다. "만약 예형이 오거든, 일어서서 맞이하지 마시오." 예형이 도착해 말에서 내려 들어오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단정히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예형이 목놓아 크게 울기 시작했다. 순욱이 물었다. "어찌 하여 우는 것이오?" 예형이 대답했다. "죽은 관(棺)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소?" 사람들이 일제히 말했다. "우리는 죽은 시체들이고, 그대는 머리 없는 미친 귀신일 뿐이오!" 예형이 외쳤다. "나는 한나라의 신하로서 조조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으니, 어찌 머리가 없단 말이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순욱이 급히 말했다. "쥐나 참새 같은 자들을 죽이느라 칼을 더럽힐 가치도 없습니다!" 예형

이 다시 말했다. "나는 비록 쥐나 참새라 해도 사람의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당신들은 그저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오!" 사람들은 분노하며 흠어졌다.

예형이 형주에 도착해 유표를 만났을 때, 겉으로는 유표의 덕을 칭송했으나 속으로는 실제로는 그를 비웃고 조롱했다. 유표는 이를 기분 나쁘게 여겨, 그를 강하에서 쫓아내 황조를 찾아가게 했다. 어떤 이가 유표에게 물었다. "예형이 주군을 희롱하는데, 어찌하여 죽이지 않으십니까?" 유표가 대답했다. "예형이 자주 조조를 모욕해도 조조가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인망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부하로 삼아 내 손을 빌려 그를 죽임으로써, 내가 현자를 해친다는 오명을 쓰게 하려는 속셈이다. 나는 지금 그를 황조에게 보내 조조에게 내가 식견이 있는 사람임을 알리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유표의 지혜가 뛰어나다며 감탄했다.

한편, 원소 또한 사신을 보냈다. 유표가 여러 책사에게 물었다. "원소의 사신이 또 왔고, 조조는 예형을 이곳으로 보냈으니, 나는 어찌해야 하겠소?"

그러자 종사중랑장 한승이 나아가 말했다. "지금 두 영웅이 서로 맞서고 있으니, 장군께서 무언가 성과를 내고자 하신다면 이 기회를 틈타 적을 격파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두 세력 중 더 나은 쪽을 택해 따르십시오. 지금 조조는 군사를 부리는 데 능할 뿐 아니라 인재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조의 기세는 반드시 원소를 먼저 꺾은 뒤에 강동으로 군사를 돌릴 것이니, 장군께서 이를 막아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형주를 들어 조조에게 귀순하신다면, 조조가 반드시 장군을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유표가 말했다. "그대는 우선 허도로 가서 조조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오."

한승이 말했다. "임금과 신하에게는 각자 정해진 분수가 있는 법입니다. 저 한승은 지금 장군을 모시고 있으니, 비록 불속에 뛰어들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명을 따를 뿐입니다. 장군께서 위로는 천자를 받들고 아래로는 조조를 따르신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제가 수도에 도착했을 때 천자께서 저에게 관직을 내리시는 순간 저는 천자의 신하가 될 것이니, 다시는 장군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유표가 말했다. "그대는 일단 가서 살펴보고 오시오. 나에게는 따로 생각이 있소."

한승은 유표에게 하직하고 허도로 가서 조조를 만났다. 조조는 한승을 시중으로 임명하고 영릉 태수를 겸하게 했다. 이때 순욱이 물었다. "한승은 형주의 동정을 살피러 온 것이라 아직 작은 공도 세우지 않았는데, 어찌 이토록 중한 직책을 맡기십니까? 그리고 예형의 소식도 없는데, 승상께서는 사람을 보내놓고도 어찌하여 묻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예형이 나를 너무나 모욕했기에 유표의 손을 빌려 그를 죽이려는 것인데, 무엇을 더 묻겠느냐?" 조조는 곧 한승을 형주로 돌려보내 유표를 설득하게 했다. 한승이 돌아가 유표를 만나 조정의 성대한 덕을 칭송하며, 유표의 아들을 도성으로 보내 천자를 모시게 하라

고 권했다. 그러자 유표가 크게 화를 내며 "네가 탄마음을 품은 것이냐!"라고 외치며 그를 베려 했다. 한승이 크게 소리쳤다. "장군께서 저를 저버리실지언정, 저는 결코 장군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곁에 있던 괴량이 말했다. "한승은 떠나기 전부터 이미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표는 결국 한승을 사면해 주었다.

황조가 예형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표가 그 이유를 물었다. 황조가 대답하기를, "예형과 함께 술을 마시다 둘 다 취했는데, 제가 예형에게 '허도에는 어떤 인물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형이 '큰 인물로는 공융이 있고, 작은 인물로는 양덕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는 다른 인물은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시 '나는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예형이 '당신은 마치 사당 속에 모셔진 신과 같아서, 제사는 받지만 영험함이 없는 것이 한스럽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크게 노하여 '네가 나를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으로 보는 것이냐!'라고 외치며 즉시 베어버렸습니다. 예형은 죽는 순간까지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유표는 예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을 금치 못하며, 그를 앵무주 근처에 묻어주라고 명령했다. 훗날 사람들이 남긴 시에 이르기를,

"황조는 어찌 장부의 도리를 모르는 자인가, 예형은 이 강가에서 목숨을 잃었네. 이제 앵무주 근처를 지나가 보아도, 오직 무정한 푸른 물결만이 흐르고 있구나."

한편, 조조는 예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씩어빠진 선비가 제 혀로 제 목숨을 끊었구나!" 조조는 유표가 항복해 오지 않자 군사를 일으켜 책임을 묻고 싶어 했다. 그러자 순욱이 간언했

다. "아직 원소를 평정하지 못했고 유비도 멸하지 않았는데, 강하와 한수 지역에 군사를 쓰려 하시는 것은 마치 심복을 버려두고 손발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원소를 멸하고 그다음에 유비를 멸한다면, 강하와 한수 지역은 한꺼번에 깨끗이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따랐다.

한편, 동승은 유비가 떠난 뒤로 밤낮없이 왕자복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방도가 없었다. 건안 5년 정월 초하루, 조조가 조정에 나아가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그 오만함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본 동승은 분노를 참지 못해 병이 나고 말았다. 현재는 국구인 동승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을 따르는 태의를 보내 치료하게 했다. 이 의원은 낙양 사람으로 성은 길, 이름은 태이며 자는 평이라 하여, 사람들이 모두 길평이라 불렀는데 당시 이름난 명의였다. 길평은 동승의 집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약을 달여 치료했으나, 동승이 늘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도 감히 다가가 물어보지 못했다.

때마침 정월 대보름이었다. 길평이 물러가려 하자 동승이 그를 붙잡아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깊어 밤이 깊어지자, 동승은 졸음이 쏟아져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왕자복 등 네 사람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동승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 왕자복이 말했다.

“큰일이 잘 풀렸습니다!”

동승이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어서 말해보게.”

왕자복이 대답했다.

“유표가 원소와 손을 잡고 50만 대군을 일으켜 열 갈래로 나누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등은 한수와 연합하여 서량 군사 72만 명을 이끌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조는 허도에 있는 병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각지로 나누어 적을 막게 했으니, 지금 허도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집안의 하인들을 모은다면 천 명도 넘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관청에서 정월 대보름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열어 상을 내린다고 하니, 이 기회에 관청을 포위하고 들이닥쳐 조조를 죽여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승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집안 노비들에게 병기를 챙기라고 명령했다. 자신도 직접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말에 올라, 모두 내문 앞에서 만나 동시에 진격하기로 약속했다. 밤이 깊어 밤의 두 번째 경(二鼓)이 되었을 때 모든 병사가 도착했다. 동승은 보검을 손에 들고 맨발로 급히 뛰어 들어가, 조조가 연회를 베풀고 있는 후당을 보고는 “조조이 역적 놈아, 거기 서라!”라고 크게 외치며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칼이 닿기도 전에 동승은 그대로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저 꿈이었을 뿐이었다. 동승은 꿈속에서도 조조를 욕하느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길평이 다가와 물었다. “국구께서는 조조를 해치려 하시는 겁니까?” 동승은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길평이 다시 말했다. “국구님,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의사로 살고 있으나 한나라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요

며칠 국구님께서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히 여쭙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방금 꿈속에서 하신 말씀은 국구님의 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디 저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쓸모가 있다면, 설령 구족을 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동승은 얼굴을 가리고 울며 말했다. "그저 그대의 말이 진심이 아닐까 두려울 뿐이요!"

길평은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깨물어 맹세했다. 동승은 곧바로 의대조를 꺼내 길평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지금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유비와 마등이 각자 떠나버려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니, 그로 인해 병이 생겼다네." 길평이 말했다. "여러 어른께서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조조의 목숨은 오직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동승이 그 이유를 묻자 길평이 대답했다. "조조는 평소 두풍(두통)을 앓는데, 그 통증이 뺏속까지 사무칠 정도입니다. 통증이 한번 발작할 때마다 저를 불러 치료하게 하는데, 만약 아침저녁으로 저를 부른다면 독약 한 첩만 써서 먹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어찌 칼을 들고 병사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승이 말했다.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면, 한나라의 사직을 구하는 일은 모두 그대에게 달려 있구려!"

길평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동승은 속으로 내심 기뻐하며 뒷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안 노비인 진경동이 첩 운영과 함께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동승은 크게 노하여 좌우 사람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붙잡게 하고 죽이려 했다. 그러자 부인이 죽이는 것만은 면해달라고 간청하여, 대신 모두의 등에 매로 마흔 대씩을 치게 하고 진경동은 차가운 방에 가두어 버렸다. 진경동은 원한을 품고

있다가 깊은 밤에 쇠사슬을 비틀어 끊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 그는 곧 장 조조의 집으로 달려가 국가의 기밀을 고했다. 조조가 그를 밀실로 불러 물었다. 진경동이 말했다. "왕자복, 오자란, 종집, 오석, 마등 등 다섯 사람이 주인님 댁에서 기밀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 승상을 모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흰 비단 한 필을 꺼내 놓으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최근 길평이 손가락을 깨물며 맹세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조조는 진경동을 자신의 저택에 숨겨두었기에, 동승은 그가 다른 곳으로 도망친 줄로만 알고 따로 쫓지 않았다. 다음 날, 조조는 갑자기 편두통이 있는 것처럼 꾸며 길평을 불러 약을 쓰게 했다. 길평은 속으로 '이 도적놈을 반드시 없애리라!'라고 다짐하며 몰래 독약을 저택 안으로 들여왔다. 조조가 침상에 누워 있으니 길평이 약을 올렸다. 길평이 "이 병은 약 한 첩만 드시면 곧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약탕기를 가져가 눈앞에서 직접 약을 달였다. 약이 반쯤 졸았을 때 길평은 몰래 독약을 넣은 뒤, 직접 약을 들고 조조에게 나아갔다. 조조는 약에 독이 든 것을 알아차렸으나, 일부러 약을 먹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길평이 "약이 식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약간 땀을 흘리고 나면 곧 나을 것입니다"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조조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대는 유교 경전을 읽었으니 마땅히 예의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임금이 병이 들면 신하가 먼저 약을 맛보고, 아버지가 병이 들면 자식이 먼저 맛보는 법이다'라고 했다. 그대는 나의 심복이거늘, 어찌하여 먼저 맛을 보지 않고 나에게 권한는가?" 길평이 대답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어찌 사람이 맛을 보게 합니까?"

비밀이 탄로 났음을 알자마자, 길평은 앞으로 성큼 걸어 나가 조조의 귀를 붙잡고 독약을 들이부었다. 조조가 약을 밀쳐내는 바람에 약은 바닥에 쏟아졌고, 그 충격으로 바닥의 벽돌이 튀어 오를 정도였다. 조조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좌우의 부하들이 이미 길평을 붙잡아 굴복시켰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어찌 병이 있겠느냐? 그저 너를 시험해 보려 했을 뿐인데, 네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 했구나!”

조조는 곧장 긴장한 옥졸 스무 명을 불러 길평을 뒷마당으로 끌고 가 고문하게 했다. 조조는 정자에 앉아 땅에 묶여 있는 길평을 내려다 보았다. 길평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조조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의원이라지만 어찌 감히 나를 독살하려 들었느냐? 분명 누군가 너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자가 누구인지 말하면 살려주마.”

길평이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임금을 속이는 도적놈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 나 하나뿐이겠느냐!”

조조가 몇 번이고 거듭 캐물었으나, 길평은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너를 죽이려 한 것이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이제 일이 틀어졌으니 그저 죽음뿐이다!”

조조가 분노하여 옥졸들에게 매질을 명령했다. 두 시간 동안 매질이 이어지자 길평의 살점이 터지고 피가 계단에 가득 고였다. 조조는 혹시라도 매질하다 죽어 증거가 없어질까 걱정되어, 옥졸들에게 길평을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일단 쉬게 하라고 일렀다.

이어 조조는 다음 날 잔치를 베풀어 여러 대신을 초대해 술을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동승만이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왕자복 등은 조조가 의심할까 두려워 모두 잔치에 참석했다. 조조는 후당에 자리를 마련했다. 술이 몇 차례 돌 무렵, 조조가 말했다. “잔치에 흥을 돋울 만한 것이 없구나. 여기 내게 한 사람이 있으니, 관리들의 술을 깨게 해줄 것이다.”

그러고는 옥졸 스무 명에게 명령했다. “그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잠시 후, 길평이 커다란 칼을 쓴 채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왔다. 조조가 말했다. “모든 관리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자는 악당들과 결탁하여 조정에 반역하고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도우셨으니, 이제 이 자의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조는 먼저 매를 때려 길평을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우게 했다. 길평은 정신이 들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옥설을 퍼부었다. “조조 이 도적놈아! 나를 죽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조조가 다시 물었다. “공모한 자가 먼저 여섯 명이었는데, 너까지 합쳐서 일곱 명이나?” 하지만 길평은 그저 크게 욕을 할 뿐이었다. 곁에 있던 왕자복 등 네 사람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며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못했다. 조조는 계속해서 매를 때리면서 동시에 물을 뿌려가며 몰아붙였으나, 길평은 전혀 살려달라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그가 자백하지 않자 일단 끌고 가도록 명령했다.

관료들이 연회를 마치고 물러가자, 조조는 왕자복 등 네 사람만 남겨두고 밤늦도록 술자리를 이어갔다. 네 사람은 혼이 나간 듯 뺨이 빠져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조조가 말했다.

"원래는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으나, 물어볼 일이 있어 남겨두었다.
너희 네 사람은 동승과 무엇을 모의했는지 모르는 것이냐?"

왕자복이 대답했다.

"별다른 일을 모의한 적은 없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그 흰 비단 속에 무엇을 써 놓았느냐?"

왕자복 일행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숨기려 하자, 조조는 진경동을 불러내어 증언하게 했다. 왕자복이 항변했다.

"저놈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진경동이 말했다.

"너희가 사람들을 모두 피하게 한 뒤, 여섯 명이 모여 글자를 적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발뺌하려느냐?"

왕자복이 소리쳤다.

"이 도적놈은 국구(동승)의 첩과 간통하다가 들통나자, 오히려 주인을 모함하고 있다. 저놈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조조가 말했다.

"길평이 독을 쓴 것이 동승의 명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명령이었겠느냐?"

왕자복 일행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땀다. 조조가 엄히 꾸짖었다.

"오늘 밤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면 아직 용서할 여지가 있으나, 일이 다 터진 뒤에 밝혀진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왕자복 일행은 모두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잡아땀다. 조조는 호통을 치며 좌우에게 명해 그 네 사람(왕자복 등)을 붙잡아 가두게 했다. 다음 날, 조조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곧장 동승의 집으로 찾아가 병문안을 했다. 동승은 어쩔 수 없이 마중을 나갔다. 조조가 물었다. "어찌하여 어제 연회에 나오지 않았소?" 동승이 대답했다. "몸이 조금 좋지 않아 아직 다 낫지 않았기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이겠구려." 동승은 깜짝 놀랐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국구께서는 길평의 일을 알고 계시오?" 동승이 말했다. "모릅니다." 그러자 조조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국구께서 어찌 모르신단 말이오?" 그러고는 좌우를 불러 명령했다. "그를 끌어와 국구의 병이나 낫게 해드려라!" 동승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잠시 후, 스무 명의 옥졸이 길평을 끌고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길평은 크게 소리치며 옥설을 퍼부었다. "조조, 이 역적 놈아!" 조조가 동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가 왕자복 등 네 사람을 끌어들었기에, 내가 이미 그들을 정위(廷尉)에 넘겨 가두었다.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아

잡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고는 길평에게 물었다. "누가 너를 보내 나를 독살하려 했느냐? 어서 실토해라!" 길평이 대답했다. "하늘이 나를 보내 역적을 죽이라 하셨다!" 조조가 화가 나 매질을 명령하자, 길평의 몸에는 더 이상 매를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승은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조조가 다시 길평에게 물었다. "원래 손가락이 열 개였을 텐데, 어찌하여 지금은 아홉 개뿐이냐?" 길평이 말했다. "손가락을 씹어 맹세했노라, 반드시 국적을 죽이겠다고!" 조조가 칼을 가져오라 명령하더니, 계단 아래에서 그의 나머지 손가락을 마저 잘라버리며 말했다. "한 번에 끝내주마, 네놈이 다시는 맹세하지 못하도록!" 길평이 말했다. "아직 입이 남아 있으니 적을 삼킬 수 있고, 혀가 남아 있으니 적을 꾸짖을 수 있다!" 조조가 그의 혀를 자르려 하자 길평이 말했다. "잠시만 멈추시오. 지금 형벌을 더는 견딜 수 없으니 자백하겠소. 포박을 풀어주시오." 조조가 말했다. "풀어준들 무엇이 문제겠느냐?" 하고는 즉시 포박을 풀게 했다. 길평은 일어나 궁궐 쪽을 향해 절하며 말했다. "신이 나라를 위해 역적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절을 마친 길평은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했다. 조조는 그의 시신을 토막 내어 군사들에게 돌려 보이며 경계로 삼게 했다. 때는 건안 5년 정월이었다. 사관이 시를 지어 그를 기렸다. "한나라에 다시 일어설 기운 없으니, 나라를 고치려던 의원 길평이 있었네. 간사한 무리를 없애겠다고 맹세하며, 몸을 던져 성명하신 임금께 보답했구나. 가혹한 형벌 속에서도 꾸짖음은 더욱 매서웠고, 비참한 죽음은 마치 살아있는 듯하네. 피 흘리는 열 손가락의 흔적은, 천 년 뒤에도 그 이름 드높으리라."

조조는 길평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좌우에 명하여 진경동을 끌어들게 했다. 조조가 물었다. "국구(동승)께서는 이 자를 아십니까?"

그러자 동승이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저 도망친 노비가 여기 있습니다! 당장 죽여 마땅합니다!"

조조가 다시 말했다. "이놈이 반역을 꾀했다고 고발하여 증거를 대러 왔는데, 누가 감히 이 자를 죽이겠소?"

동승이 반박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저 도망친 노비의 말만 믿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왕자복 일행은 이미 내가 붙잡아 모두 명백하게 자백하게 했거늘, 아직도 발뺌하려는 것이오?"

말을 마친 조조는 즉시 좌우에게 명령하여 동승을 붙잡게 하고, 부하들을 동승의 침실로 들여보내 '의대조'와 '의장'을 찾아내게 했다. 조조가 그것들을 살펴보다니 비웃으며 말했다.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어 조조가 명령했다. "동승의 집안에 있는 상놈부터 귀한 몸까지 모두 잡아 가두어라.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조조는 집으로 돌아와 밀지와 의장을 여러 책사에게 보여주며, 헌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일을 상의했다.

과연 붉은 글씨로 쓴 밑지는 헛된 희망이 되었고, 종이 한 장에 적힌 서약은 재앙을 불러왔다. 현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4회 — 국적(나라의 도적)이 흉악한 짓을 저질러 귀비가 살해되고, 황숙이 패 하여 원소에게 도망치다

國賊行兇殺貴妃 皇叔敗走投袁紹

한편, 조조는 의대조를 보고 여러 모사들과 상의하여 헌제를 폐위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새로 뽑아 황제로 세우려 했다. 그러자 정욱이 간언했다. "주군께서 사방에 위엄을 떨치고 천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한나라의 명분을 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후들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황제를 폐하고 새로 세우는 일을 벌인다면, 반드시 큰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멈추었다. 다만 동승 등 다섯 사람과 그 일가친척을 모두 잡아다가 각 문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하게 하니, 죽은 사람이 모두 700여 명에 달했다. 성안의 관리와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후대의 어떤 시인은 동승을 기리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비밀스러운 조서를 옷띠 속에 숨겨 전하니, 하늘의 뜻이 궁궐 문을 나섰구나. 그 시절 황제를 구했던 공로로, 오늘 다시 큰 은혜를 입었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병이 되고, 간신을 제거하려는 뜻은 꿈속까지 이어지니, 그 충절은 천년토록 남으리니, 성패를 누가 따지겠는가!"

또 왕자복 등 네 사람을 탄식하는 시도 있었다.
편지에 이름을 적어 충성스러운 계책을 맹세하고,
강개한 마음으로 임금(군부)께 보답하려 하였네.
가엾도다, 그 붉은 충심으로 백 식구의 목숨을 바쳤으니,
그 일편단심은 본래 천추에 길이 남기에 충분하리라.

한편, 조조는 동승 일가를 죽인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칼을 차고 궁궐로 들어가 동귀비를 죽이려 했다. 동귀비는 동승의 누이로, 헌제의 총애를 받아 임신한 지 다섯 달이 된 상태였다. 마침 헌제는 후궁에서 복후와 함께 동승의 일에 대해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 갑자기 조조가 분노 섞인 얼굴로 칼을 들고 궁에 들어오자, 헌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크게 놀랐다.

조조가 물었다. "동승이 반역을 꾀한 것을 폐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헌제가 대답했다. "동탁은 이미 처단하지 않았느냐." 조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동탁이 아니라 바로 동승입니다!" 헌제가 몸을 떨며 말했다. "짐은 정말로 알지 못하네." 조조가 다시 다그쳤다. "손가락을

깨물어 의대조를 쓰라고 명한 일은 잊었던 말인가?" 현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조가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동귀비를 붙잡아 오게 했다. 현제가 조조에게 간곡히 말했다. "동귀비는 임신한 지 다섯 달이 되었으니, 승상께서 부디 가엽게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조조가 말했다. "하늘이 (저들의 음모를)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미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 여자를 살려두어 저에게 후환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복후가 조조에게 제안했다. "차라리 냉궁으로 쫓아내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조가 맞받아쳤다. "이 역적의 씨앗을 살려두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게 하려는 것입니까?"

동귀비가 울며 애원했다. "부디 시신만이라도 온전하게 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추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조는 즉시 하얀 비단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현제는 눈물을 흘리며 동귀비에게 말했다. "그대는 저승에 가서도 짐을 원망하지 마시오!" 말을 마친 현제는 비가 내리듯 눈물을 쏟아냈고, 복후 역시 크게 통곡했다. 조조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아직도 계집애처럼 울고 있는 것이냐!" 조조는 무사들에게 명령해 그녀를 끌어내게 한 뒤, 궁궐 문 밖에서 목을 졸라 죽였다. 훗날 사람들이 동귀비를 기리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봄날 궁궐에서 은총을 입었으나 헛된 일이었구나, 슬프도다, 용의 씨앗마저 제때에 사라지다니. 위엄 있는 황제조차 구하지 못하니, 얼굴을 가린 채 눈물만 샘처럼 쏟아지는구나."

조조가 궁궐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엄중히 명령했다. "앞으로 외척이나 종친이라 할지라도 나의 명을 받들지 않고 함부로 궁궐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즉시 처형하겠다. 또한 수비가 허술하여 이를 막지 못한 자도 똑같이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러고는 심복 3천 명을 뽑아 어림군으로 삼고, 조홍에게 이를 통솔하게 하여 경계와 감찰을 맡겼다.

조조가 정욱에게 말했다. "지금 동승 일가는 처단했지만, 아직 마등과 유비 같은 자들이 남아 있으니 이들 역시 반드시 제거해야 하오." 정욱이 대답했다. "마등은 서량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쉽게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편지를 보내 위로하며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한 뒤, 그를 수도로 유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는 현재 서주에 자리 잡고 의각지세(犄角之勢)를 펼치고 있으니 그 또한 가볍게 적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지금 원소가 관도에 군사를 모아놓고 수시로 허도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유비를 치러 동쪽으로 진격한다면, 유비는 반드시 원소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원소가 빈틈을 타서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소. 유비는 인물이 뛰어난 자요. 지금 그를 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그의 세력이 완전히 커지면 그때는 손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오. 원소가 비록 강하다고는 하나, 매사에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소."

한창 의논하던 중에 곽가가 밖에서 들어왔다. 조조가 물었다. "내가 유비를 치러 동쪽으로 가려는데, 원소가 걱정되는구나. 어찌하면 좋겠느냐?" 곽가가 대답했다. "원소는 성격이 굼뜨고 의심이 많으며, 그 모사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니 그리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유비는

이제 막 군사를 정비하여 아직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 승상께서 군사를 이끌고 동정하시면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뜻과 딱 맞는구나." 그러고는 곧 20만 대군을 일으켜 다섯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서주로 진격했다.

첩자들이 정보를 입수하여 서주에 보고했다. 손건은 먼저 하비로 가서 관우에게 알린 뒤, 소패로 가서 유비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유비가 손건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원소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겠소." 이에 유비는 서신 한 통을 써서 손건을 하북으로 보냈다.

손건은 먼저 전풍을 만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원소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전풍은 곧 손건을 원소에게 인도하여 서신을 올리게 했다. 그런데 원소의 모습이 초췌하고 의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전풍이 물었다. "주공, 오늘 어찌하여 이토록 모습이 처량하십니까?" 원소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네!" 전풍이 다시 물었다. "주공,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소가 말했다. "내 다섯 아들 중 막내가 내 마음에 가장 꼭 드는데, 지금 피부병이 심해 목숨이 경각에 달렸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다른 일을 논하겠는가?"

전풍이 말했다. "지금 조조가 유비를 치러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어 허도가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의로운 군대를 이끌고 빈틈을 타서 들어가면, 위로는 천자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얻기 힘든 기회이니 부디 명철하게 결정하십시오." 원소가 말했다. "나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아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불리한 일이 생길까 두렵네." 전풍이 물었다. "무엇이 두렵다는 말씀입니까?"

원소가 답했다. "다섯 아들 중 이 아이가 가장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내 목숨도 끝이라네."

결국 원소는 출병하기를 거부하며 손건에게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 유비에게 내 사정을 전하게.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로 와도 좋네. 내가 도울 방도를 찾아보겠네." 전풍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탄식했다. "이토록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고작 어린아이의 병 때문에 기회를 놓치다니, 대사를 그르치게 되었구나! 참으로 통탄할 일 이로다!" 전풍은 발을 구르며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손건이 원소를 만났으나 출병을 거절당하자, 밤을 도와 급히 소패로 돌아가 유비에게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조의 군사는 멀리서 왔으니 반드시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막 도착했을 때를 틈타 먼저 진영을 습격한다면 조조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평소 너를 그저 용맹한 장사로만 여겼는데, 지난번 유대를 잡을 때도 제법 계책을 잘 쓰더니 이번에 내놓은 방책 또한 병법에 딱 들어맞는구나."

유비는 곧 장비의 말을 따라 군사를 나누어 진영을 습격하기로 했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소패로 향했다. 한창 행군하던 중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깃발 하나가 찢어지며 꺾이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조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행군을 멈추게 하고, 모사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물었다.

순욱이 물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와서 어떤 색깔의 깃발을 꺾었습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바람은 동남쪽에서 불어왔고, 깃발 모서리에 달린 청색과 홍색이 섞인 깃발이 꺾였다네."

순욱이 말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 유비가 반드시 우리 진영을 습격할 것입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모개가 들어와 보고했다. "방금 동남풍이 불어와 청색과 홍색이 섞인 깃발 하나가 꺾였습니다. 주군께서는 이것을 길조로 보십니까, 흉조로 보십니까?"

조조가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모개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 반드시 누군가 진영을 습격할 징조 같습니다."

후세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아아, 황제의 혈통은 외롭고 처지가 곤궁하니, 오로지 군사를 나누어 진영을 습격하는 공에 의지하려 했네. 그러나 깃발이 꺾여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으니, 하늘은 어찌하여 저 간웅을 내버려 두는가?"

조조가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돕고 있으니, 즉시 대비해야겠다." 그리고는 군사를 아홉 부대로 나누었는데, 한 부대만 앞쪽에 가짜 진영을 치게 하고 나머지 여덟 부대는 사방에 매복시켰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유비는 왼쪽에서, 장비는 오른쪽에서 각각 두 부대로 나누어 진격하였고, 손건에게만 소패를 지키게 했다.

한편, 장비는 자신의 계책이 성공했다고 믿고 가벼운 기병을 앞세워 조조의 진영으로 돌격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병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장비는 적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진영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때 정동쪽에서는 장료가, 정서쪽에서는 허저가, 정남쪽에서는 우금이가, 정북쪽에서는 이전이 달려들었다. 이어 동남쪽에서는 서황이, 서남쪽에서는 악진이, 동북쪽에서는 하후돈이, 서북쪽에서는 하후연이 여덟 방향에서 군마를 몰고 몰려왔다. 장비는 좌우로 부딪치며 앞뒤를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그가 거느린 병사들은 본래 조조 휘하의 옛 군사들이었다.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사들은 모두 항복해 버렸다.

장비가 적진 사이를 뚫고 싸우던 중 서황을 만나 한바탕 크게 싸웠고, 뒤이어 악진까지 쫓아왔다. 장비는 겨우 피를 흘리며 길을 내어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나, 그를 따르는 기병은 고작 수십 명뿐이었다. 소패로 돌아가려니 길이 끊겼고, 서주나 하비로 가려니 조조의 군대가 길을 막을 차단할까 두려웠다. 갈 곳이 없음을 깨달은 장비는 결국 망탕산 쪽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진영을 습격하려 채영 근처에 이르자, 우렁찬 함성과 함께 뒤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와 유비의 병력 절반을 가로막아 버렸다. 이때 하후돈이 다시 나타났다. 유비는 포위망을 뚫고 급히 도망쳤으나, 이번에는 하후연이 뒤쫓아왔다. 유비가 뒤를 돌아보니 함께 따르는 기병은 겨우 서른 명 남짓뿐이었다. 서둘러 소패로 돌아가려 했으나, 멀리서 이미 소패성 안에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결국 소패를 포기하고 서주나 하비로 향하려 했지만, 조조의 군사들이 산과 들을 가득 메우고 길을 막고 있었다. 유비는 돌아갈 길이 없음을 깨닫고 생각했다. '원소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게 와서 의탁하라'고 말했으니, 지금은 일단 그곳으로 가서 몸을 피하며 다음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유비는 청주 쪽으로 길을 잡아 달아나려 했으나, 마침 이전과 마주쳐 길이 막혔다. 유비는 말 한 필에 의지해 들판으로 빠져 북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전은 유비를 따르던 기병들을 사로잡아 갔다.

한편, 유비는 말을 타고 청주로 향했다. 하루에 300리를 달린 끝에 청주 성 아래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외쳤다. 문지기가 이름을 묻고는 자사에게 보고했는데, 그 자사는 바로 원소의 장남 원담이었다. 원담은 평소 유비를 존경해 왔기에, 유비가 홀로 말을 타고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성문을 열어 맞이했다. 그는 유비를 관청으로 안내하여 찾아온 이유를 자세히 물었다. 유비는 전쟁에서 패해 몸을 의탁하러 왔다는 뜻을 자세히 밝혔다. 원담은 유비를 관사 내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아버지 원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동시에 청주의 군사를 보내 유비를 호위하게 했다. 유비가 평원 경계에 이르자, 원소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업군에서 30리나 떨어진 곳까지 나와 유비를

맞이했다. 유비가 절하며 감사를 표하자, 원소는 서둘러 답례하며 말했다. "어제는 내 아들이 병이 드는 바람에 구원하러 가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평소 그리워하던 마음이 풀려 정말 기쁩니다." 유비가 말했다. "보잘것없는 저 유비는 오래전부터 장군님의 휘하에 들기를 원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조의 공격을 받아 처자식마저 모두 적에게 잡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천하의 인재들을 두루 받아들이시는 분이라 들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곧장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매우 극진히 대접했고, 이후 유비는 원소와 함께 기주에서 지내게 되었다.

한편, 조조는 그날 밤 소패를 점령하고 곧바로 군사를 몰아 서주로 진격했다. 미축과 간웅은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성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진등은 서주를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의 대군이 성에 들어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여러 책사를 불러 모아 하비를 어떻게 취할지 논의했다.

순욱이 말했다. "관우가 유비의 처자식을 보호하며 이 성을 죽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면, 자칫 원소에게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평소 관우의 무예와 인재됨을 아껴 그를 얻어 내 사람으로 삼고 싶다. 차라리 사람을 보내 그를 설득해 항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곽가가 말했다. "관우는 의리가 매우 깊은 사람이니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보내 설득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해를 입을까 걱정됩니다."

그때 막사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관우와 안면이 있으니, 직접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니 바로 장료였다.

그러자 정욱이 말했다. "장료가 비록 관우와 구면이라 하나, 내가 보기에 관우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먼저 관우를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은 뒤에 장료를 보내 설득하게 한다면, 관우는 반드시 승상께 귀순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하다. 빈틈없이 함정 활을 갖춰 맹호를 쏘려 하고, 향기로운 미끼를 놓아 거대한 자라를 낚으려 하는구나.

과연 그 계책이 무엇일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